

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Vol. 49

2026. 2

CONTENTS

A Theoretical Review of Port City Theory and Port Markets in Gaya
Jeong, Seon-Woon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Emergence Background of Koguryo(style) Pottery Excavated from Baekje Sites of the Hanseong-Ungjin Period
Lee, Myeong-Heon

Human-Thing Entanglement : A Case Study of the Lower Xinle Culture
Jeon, Jeong-Min

Archaeological Authenticity and Policy Dilemmas in the Excavation of the Silla Royal Capital
Lee, Sung-Joon

中央考古研究

第49號

2026.2

中央文化遺產研究院

中央考古研究

第49號 | 202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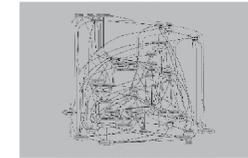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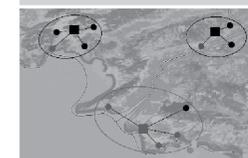
연구논문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와 가야의 ‘港市’ | 정선운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과 등장 배경 | 이명현

얽힘 이론(Entanglement Theory)으로 이해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 | 전정민

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진정성과 정책적 딜레마 | 이성준



中央考古研究

第 49號 | 202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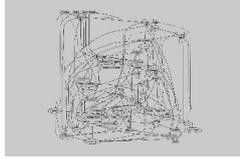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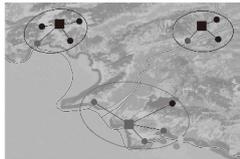
연구논문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와 가야의 ‘港市’ | 정선운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과 등장 배경 | 이명현

얽힘 이론(Entanglement Theory)으로 이해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 | 전정민

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진정성과 정책적 딜레마 | 이성준



중앙고고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성정용(충북대학교)

위 원 권오영(서울대학교)

김범철(충북대학교)

성형미(동양대학교)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조윤재(고려대학교)

최태선(중앙승가대학교)

高田貫太(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간 사 오준혁(중앙문화유산연구원)

정수진(중앙문화유산연구원)

中央考古研究 - 第 49 號 -

인쇄일 2026년 2월 23일

발행일 2026년 2월 28일

발 행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인쇄처 현대옵셋인쇄사

주 소 본원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삼평동) 서건타워 904호
tel. 031-708-8001 fax. 031-708-8010

분원 34029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7로 32-9(용산동)

tel. 042-933-2700 fax. 042-933-7300

홈페이지 www.jungang.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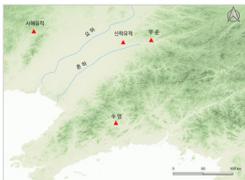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와 가야의 ‘港市’ 1

정 선 운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과 등장 배경 37

이 명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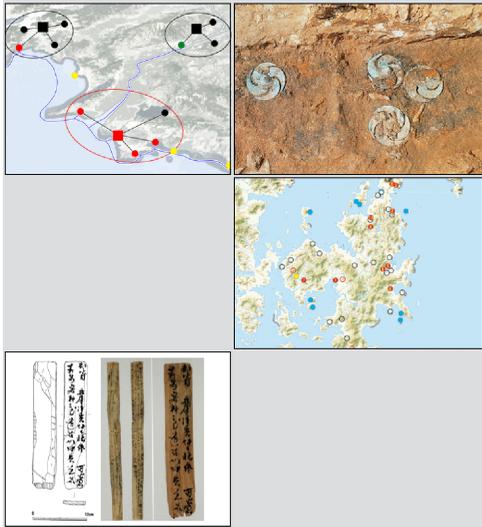
얽힘 이론(Entanglement Theory)으로 이해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 : 신라하층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71

전 정 민



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진정성과
정책적 딜레마 101

이 성 준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와 가야의 ‘港市’

A Theoretical Review of Port City Theory and Port Markets in Gaya

정선운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II. ‘港市國家論’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

III.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

IV. 고고학적 분석을 통한 삼국시대 가야의 항시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최근 가야사 및 삼국시대 해양교류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항시(港市)’ 개념이 이론적 정의보다 사례 적용이 앞서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는 입지나 일부 외래계 유물의 존재만으로 항시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기항지-교역장-항시-항시국가로 이어지는 단계 설정과 항시 내부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에 본고는 동남아시아·인도양·일본열도 사례에서 축적된 ‘항시국가론(港市國家論)’을 검토하여 항시의 개념·구조·메커니즘을 재정리했다. 그 핵심 요소는 ①해상·수운·내륙이 결합되는 입지, ②외래계 요소의 집중, ③교역을 주도하는 배후 정치체, ④교역장·항시와 연동된 배후지를 포함한 항시 네트워크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가야권의古墓해만·거제·사천을 비교한 결과,古墓해만은 중심지-외항-배후지가 체계적으로 결합되고 외래계 요소가 집적되어 항시국가의 구조와 가장 부합했다. 거제도 내 아주동유적은 다양한 외래계 요소가 확인되나 정치적 중심성은 미약하여 ‘교역장’ 단계로 파악된다. 사천 일대의 유적은 제한적 교역 활동은 존재하나 외래계 요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항시로 이해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港市國家論’의 개념을 검토하여, 이론과 물질문화를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항시국가론’을 통한 교역 연구의 개념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항진, 기항지, 교역장, 항시, 항시국가론

I . 머리말

2020년을 전후하여 가야권을 중심으로 ‘港市 또는 港市國家’를 근거로 하는 연구 사례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지역적으로는 마한권, 시대적으로는 원삼국시대, 분야적으로는 문헌사까지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가야의 ‘港市’는 古김해만권, 창원(마산) 현동유적, 창원(진해) 석동유적이 제시되었으며, 이 권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외래계 요소는 항시임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거제 아주동유적·창녕 계성리유적,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 여수 둔전유적·죽림리 차동유적도 ‘港市’ 개념 아래의 교역장이다(정선운 2022).

이러한 연구 사례는 가야의 ‘港市’와 함께 교역·교류사적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港市’라는 용어의 분석·활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여, ‘港市’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내재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물질문화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바다 또는 하천에 접한 입지, 단편적인 고고자료나 문헌사적 관점에 근거하여 ‘港市’로 정의하는 경향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港市國家論’에 대한 국내의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港市’에 대한 일본의 연구사를 중심으로 해외의 사례를 검토해보겠다. 이를 통해 정리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삼국시대 김해·거제·사천 등 가야권 내 고고학적 양상을 정리하고, 비교를 통한 이론과 고고학적 물질문화를 토대로 ‘港市’의 정의를 시도해보자 한다.

II . ‘港市國家論’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

1. 연구사 검토(국내)

국내에서 ‘港市’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는 권오영이며, 동남아시아의 諸 국가를 ‘港市’의 개념을 통해 이해했다(2017, 2019, 2023). ‘港市國家’는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자율성이 보장된 새로운 사회집단이 발생하고, 상호 의존성을 통해 교역에 기반한 상호 협동적인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판단

했다. 내부의 정치적 변동과 대외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래품, 조선술, 지형의 변화를 통해 변동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중심지가 변화한다고 보았다. 향시의 발전단계를 ‘교역장-향시-향시국가’로 설정하고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과 개방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희(2018, 2021)는 권오영의 견해를 수용하며 ‘港市’의 개념을 통해 해남반도(지미) 일대나 포상팔국을 향시의 연맹 관계로 이해하며, 변화 주체를 파악했다.

정선운(2022, 2023ab, 2024, 2025)은 권오영의 견해를 수용함과 동시에 향시의 발전단계를 ‘기항지-교역장-향시-향시국가’로 세분하고, 고고학적 분석을 위한 향시의 개념과 구조를 정의했다. 이를 통해 古김해만, 창녕, 거제, 호남 동부 일대를 대상으로 외래계 요소의 분포에 따라 향시의 시기적 변천 양상을 파악했다. 향시의 존재를 근거로 남해안의 연안항로를 제시했으며, 이전 연구성과를 근거로 거제도 내 諸유적을 종합·집성하여 거제도의 단계 발전을 모색하고, ‘港市國家論’을 통해 도서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권옥택(2022)은 해남반도 일대의 유적을 검토하고, 외래계 요소를 집성했으며, 향시국가론을 통해 신미국의 성격을 파악했다.

안홍좌(2023)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향시의 조건 중 특히 자율성과 독립성에 주목하고 『일본서기』의 卓淳國에 비정하며 성격을 파악했다. 특히 탁순국을 개별 향시가 아닌 인근 지역 간 결합된 향시국가임을 주장하며, 창원 內 생산·생활유적과 산성을 근거로 3개의 군으로 구분했다.

윤영석(2025)은 주조·관상철부에 주목하여 사천 늑도와 창원 古대산만 사이의 철부교역망을 향시와 교역장의 연계 형태로 이해했다. 지리적 이점과 위세품 교역을 중심으로 한 두 지역을 교역장과 기항지가 연계된 향시의 시원적 형태로 파악했다.

지역사 관점으로 확대해보면, 해남 군곡리유적을 ‘해양 거점도시’로서 이해하고, ‘향시’로 정의하거나(강귀형 2023)와 사천의 지역사를 규명하기 위해 고고자료로서 ‘향시’를 규명한 학술대회(오재진 2022)가 있다.

그중 최근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2025)의 학술대회 『가야 향시와 일본 열도-창원 석동유적을 중심으로-』가 주목된다. 최경규(2025)는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개념과 틀을 보충하여 금관가야의 외향으로서 창원 석동유적을 이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칼 폴라니(Karl Polanyi 1963)의 개념에 빗대어 단순한 경제적 시장이 아닌 정치·의례·사회 규범이 결합된 ‘교역의 제도적 장’으로 정치권력 혹은 공동체

의 규범에 의해 통제되어 교역의 관리·이익이 단일 세력에 집중되지 않고, 의례적·분배적 방식으로 사회 내 순환되는 구조로 제시했다. 또한 울터스의 만다라형 정치체 모형(O. W. Wolters 1999)를 근거로 금관가야와 석동유적의 관계에 대해 모식화를 시도했으며, 금관가야 중심권력에 종속되면서도 자율성을 보유한 교역거점으로 서 창원 석동유적 및 주변 항시를 이해했다.

더하여 도시지리학적 관점에서 항시를 분석한 견해(정문수 외 2014)를 살펴보면 ‘모든 항구도시가 해항도시’일 수 없으며 특정한 권역과 권역 간 매개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에 대해서만 해항도시로 인정했다.¹⁾

2.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최근 가야사 및 삼국시대 해양교류 연구에서 ‘항시(港市)’와 ‘항시국가(港市國家)’ 개념이 급격히 확산되었으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국내 연구는 대체로 ‘항시’라는 용어 자체의 적용과 사례 제시에 집중된 나머지, 그 개념이 본래 지니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결합된 복합 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부족했다. 즉, 해안·하구라는 지리적 입지나 단편적 외래유물의 존재만으로 항시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존 연구는 물질문화를 통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항지·교역장·항시·항시국가라는 단계적 구분 없이 포괄적인 항시로 해석하는 문제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동남아·인도양 사례에서 확립된 항시국가론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항시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국내 연구에서 제기된 개념의 단순 적용, 입지 중심 정의 등을 넘어 먼저 동남아시아, 인도양, 일본열도 연구에서 정립된 항시·항시국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틀을 가야권에 적용하여 항시 발전단계의 차이를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1) 이는 필자가 제시한 ‘기항지(일반 항구도시)-교역장(이상 해항도시)-항시-항시국가’의 항시의 발전단계에서 기항지와 교역장, 항시를 구분한 것과 상통한다(정선운 2022, 2023b).

Ⅲ.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

1.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검토

필자는 이전 연구(정선운 2022, 2023a)에서 ‘항시의 정의와 구조’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나, 대부분 국내 연구 사례에 집중되어 ‘港市’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港市國家論’에 대한 이론적 틀을 설계 및 정리해보고자 한다.

Karl Polanyi(1963: 30~35)는 고대사회의 항시(덜문,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무역항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항시를 자유경쟁 시장이 아니라 행정적 방식(central administration)에 의해 운영되는 교역 제도로 보았다. 항시는 정가제(담합, price-fixing)와 관습화된 규칙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적대 관계에 있는 집단조차도 비교적 안전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보안과 중립성이 보장된 보호공간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그러한 중립성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항시는 정치권력(중앙, 공동체)의 적극적 개입과 조정에 의해 유지되며, 이를 통해 교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동체 내부에서 재분배되는 구조를 가진다. 정치권력(중앙, 공동체)이 교역을 관리·조절하며, 그 이익은 사회 내 순환되는 구조를 가진다. 단순항만의 입지를 가지는 것이 아닌 수운과 해상, 내륙 교역이 연결되는 유통 결절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폴라니에게 항시는 정치·의례·사회규범이 결합된 하나의 장(field)이며, 수운과 육상의 유통 결절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生田滋(1966: 2, 22~25)는 해상 무역권을 형성하고 있던 항구와 그 부속도시를 함께 ‘港市’로 명명했다. 상인이 왕래하며 교역이 이루어지고, 부가 축적되며 그 부가 다시 내륙과의 교역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역 중심 도시를 항시로 정의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전파되는 거점으로서의 항시를 강조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항시를 단순한 경제 행위의 무대로 한정하지 않고, 문화·종교 교류의 장으로 파악하며, 나아가 항시가 내륙 국가의 단순한 ‘창구’에 머무는 경우와 항시 자체가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항시국가’로 발전하는 경우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항시와 항시국가의 발전단계가 개념적으로 설정되었다.

大林太良(1987: 87~98)는 生田滋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항시를 무역항의 기능을 기반으로 성립한 도시로 규정하고 일반적인 도시 개념과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항시국가의 본질적 경제구조는 외부 교역에 대한 의존성을 통해 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항시국가는 국제 정세와 해상 교역망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는데, 이는 항시국가가 내부 생산 기반보다 외부 교역의 변화에 더 민감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항시는 대외 개방성과 동시에 교역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도시 형태로 보았다.

J. Kathiritamby-Wells, · Villier, John Villiers(1990: 7~31)은 항시를 동남아시아 고유의 국가 형성 구조로 규정했다. 항시는 단순히 하구·해안에 입지한 교역장이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기능을 통합한 복합 도시체이며, 교역·정치·관계를 통해 내륙과 외부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도시(gateway city)’로 정의했다. 중심지와 항구가 분리된 옥에오 같은 국가에서는 정치적 결정은 중심지에서, 경제적 기능은 항구에서 수행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항시가 운용되는 시스템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갖추지 않고도 지배집단이 물자를 재분배하는 정치·경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지역 네트워크와 항로가 교차하는 전략적 장소에 위치하여 외래계 요소를 통해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경제의 중개자(cultural broker)’로 기능했다고 정의했다.

O. W. Wolters(1999: 58~88)는 동남아시아의 말라카, 베트남, 메콩강 하구 등의 사례를 통해 항시를 지역 네트워크의 교환 중심지(exchange hub)로 파악했다. 항시는 단순한 교역 장소가 아니라, 정치·교역·문화의 흐름이 중첩되는 공간이다. 내륙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시는 중세 동남아의 분권적 만다라 정치체(mandala polity)²⁾를 구성하는 핵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으며, 바간, 아유타야, 참파, 앙코르, 스리비자야 등은 이러한 항시·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광역 정치체의 전형으로 보았다. 울터스의 논의는 항시를 단독 도시가 아니라, 다층적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의미를 갖는 교차점(node)로 이해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石井米雄 외(1992: 87~88)는 아유타를 사례로 하여, ‘항시국가’에 대해 항만을 기반으로 한 상업과 정치권력이 결합된 국가로 정의했다. 아유타는 동·서 교역의 중계항으로 기능하는 국제항구이면서, 동시에 왕권과 행정, 의례가 집중되는 정치 중심지로서 항시국가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한다. 특히 그는 아유타 중심지 내·외부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중국인 거류지와 같은 공간적 분절에 주목했다. 즉, 항시는 단일한

2) 중세 동남아시아의 분권화된 정치 체제를 의미(바간, 아유타, 참파, 앙코르, 스리비자야 등)한다.

통합체라기보다, 상인공동체·재지 지배층·외래 집단 등이 서로 다른 규범과 이해 관계를 유지한 채 병존하는 다층적 공간으로 외항을 포함한 복합적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정의할 수 있다.

坂井 隆(2002: 157~179), 菊池誠一·坂井 隆 外(2021)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바텐(Banten)과 말라카 제도 등의 사례를 통해 항시의 구조를 한층 세밀하게 분석했다. 항시를 항시는 반드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만 존재하며, 단독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장거리·이문화 간 해상무역을 전제로 한 도시로 이해했다. 분석에서 항시의 공간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중심지(수도)와 외항(항시)의 관계, 다른 하나는 항시 내부에서의 정치 영역과 무역 영역의 병존구조이다. 중요한 점은 이 병존구조가 정치권력이 일방적으로 상업을 지배하는 위계구조라기보다, 항시의 교역을 통한 부의 생산 기능이 역으로 정치권력의 존립 기반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즉, 정치권력 또한 상업 기능에 구조적으로 의존하며, 상인공동체가 일정 수준의 독자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상호 의존·협력·긴장이 교차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家島彦一(2006: 74~106, 280~360)는 인도-아라비아 교역과 스리랑카, 인도양 연안의 사례들을 통해 항시의 기본 기능에 대해 해외(외래계) 물산을 집산·분배하는 유통 기능으로 규정했다. 그는 항시가 단독으로 자립하기는 어렵고, 대개 내륙의 정치적 영향 아래 존재하면서 해상과 육지 사이의 중계·중간자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항시와 그 주변 항구들이 확대·통합되면 통상국가·연안국가 형태의 '항시국가'로 발전하며, 이때 항시국가는 항시뿐 아니라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포괄하는 해륙 통합형 통상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계무역과 관세, 재수출 이익 등 무역·중계 이익이 국가 재정의 핵심을 이루며, 항시국가의 정치경제 구조를 규정하는 점이 특징이다.

川口洋平·村尾進(2012: 243)는 항시에 대해 해역아시아라는 광역의 공간 내 인간·상품·화폐·정보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이자 장소로 정의했다.

즉, 항시(港市)는 단순히 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를 가리키는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바다와 내륙을 매개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중첩된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다와 내륙 유통망을 연결하여 중계·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교역'의 거점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의례적 장치에 의해 무역 안전을 보장하며 문화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해양 교역 중심 도시인 것이다.

더하여 塚本浩司(日高慎 外 2024: 234~236)는 ‘港津’이라는 개념을 도입·설명했다.³⁾ ‘항진’이란 고훈시대 해상 교통에서 선박이 정기적으로 머물며 휴식·보급·피항을 위해 이용하던 자연 항만 또는 하구·내만의 정박지를 의미한다. 준구조선과 같은 고대 선박은 흘수가 얇고 적재 능력이 제한되어 매일 육지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항진은 항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중간 거점으로 기능했다. 항진은 단순한 정박지가 아니라, 물자보급·숙박·창고·시장(市) 등의 기능을 갖춘 교역·재분배의 중심지였으며, 해상 교역을 조정하는 지배자 또는 ‘津長’이 존재하는 정치·경제 복합 공간이라는 것이다. 특히 내만(内灣), 석호(潟湖), 하구 등 파랑이 약하고 배가 닿기 쉬운 지형에 형성되었고, 멀리서 인지하기 쉬운 산·岬·대형 고분 등 시인성이 높은 지형 요소와 결합하여 장거리 항해의 안전을 보장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즉, ‘항시’와 비교하자면, 항진은 고대 해상 교통에서 선박이 정박하여 휴식·보급·피항을 수행하던 기능적·지리적 정착지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중간 거점이다. 내만·하구·潟湖 등 자연 지형에 의존하는 지점으로 정선운(2022)의 정의에 따르면 ‘기항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항시는 이러한 항진이 교역의 확대와 인구·기술의 집적을 통해 성장한 정치·경제·사회 기능이 복합된 항구도시 거점을 뜻한다. 항시는 단순한 정박지를 넘어, 상인·기술자·이주민 등 다양한 집단이 모여 이루는 개방적·다문화적 교역 공간이며, 외래 물자의 집적과 재분배, 조세·관세 운영, 외교·의례 기능까지 수행하는 거점이다. 요컨대, 항진이 항로를 유지하기 위한 ‘정박의 장소’라면, 항시는 교역과 정치적 권력이 결합하여 형성된 ‘항시국가의 구조’로, 규모·기능·사회적 복잡성에서 ‘항시’는 ‘항진’보다 더 고도화된 단계라 할 수 있다.

2. ‘港市’의 메커니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항시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상호·결합하여 작동하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공간적 구조의 측면에서 항시는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차점이다. Karl Polanyi와 家島彦一가 강조하듯, 항시는 항만 자체의 입지에 그치지 않고, 배후지의

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생산력과 수운·육상 교통망을 포함한 유통 결절점(logistical node)으로 기능한다. 生田滋와 大林太良의 정의에서 보이듯, 항시는 바다를 통한 교역에서 축적된 부가 다시 내륙과의 교역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가지며, 이때 항시는 단순히 통과하는 지점이 아니라 재분배 거점으로 작동한다.

둘째, 항시는 중립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보호공간이지만, 이는 중심 정치체(정치권력)로부터의 탈정치화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Karl Polanyi가 지적한 것처럼 항시는 정치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 행정적 조정을 통해 유지되는 제도적 공간이다. 石井米雄·辛島昇·和田久徳나 坂井隆의 견해와 같이 중심지와 항시 등의 관계 설정은 각 항시국가의 정치구조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항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장(場)을 형성한다.

셋째, 항시는 중계무역 등에 기반한 재정 구조를 가진다. 家島彦一의 사례에서 항시는 해외 물류의 집산·분배를 담당하면서 통상국가·연안국가의 재정 기반을 형성하며, 항시국가의 존립은 이러한 해상교역의 흐름에 구조적으로 의존한다. 大林太良가 지적한 항시국가의 취약성, 즉 번영과 쇠퇴의 급격한 사이클은 바로 이러한 외부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 Wolters가 보여준 동남아 항시의 사례들 역시, 특정 항로·품목·동맹의 변동에 따라 항시의 위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넷째, 사회·문화적으로 항시는 다양한 외래계 요소가 교차하는 접점이다. 生田滋와 石井米雄·辛島昇·和田久徳가 강조했다듯, 이슬람 상인을 비롯한 다양한 외래계 집단은 항시에 거류지를 형성하며, 종교·관습·언어·기술 등이 집산·전파되는 거점이 된다. 이러한 다층적 문화교섭의 장으로서의 항시는, 단순한 교역거점보다 더 나아가 해양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물질문화가 혼합되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항해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례와 신앙은 항시 공간을 일종의 의례적 장소로 만들며, 정치·경제적 기능과 더불어 상징·의례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성역화는 항시가 교역의 위험을 완충하고, 다문화 집단의 신뢰를 조성하며,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의례-정치-경제 복합체로 기능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네트워크 메커니즘 측면에서 항시는 결코 고립된 도시가 아니라, 인접 항시와 배후지, 광역 해상 루트에 의해 구성되는 광역적인 해양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점이다. 坂井隆가 강조한 것처럼 항시는 단독으로 성립하지 않고 항시-배후지-

외항-다른 항시와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家島彦一와 O. W. Wolters의 논의는 항시를 해역 단위(maritime region) 또는 만다라형 정치체 안에서 재배치하며, 항시국가는 복수 항시의 통합과 내륙자원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항시는 단순한 해양 거점도시가 아니라, 해상·수운·내륙 교역망의 결절점에 형성되는 게이트웨이(Gate way, Kathiritamby-WellsJ. · Villier, John, des. 1990)다. 외래계 요소의 집적과 재분배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중층적으로 중첩된 교역·행정의 장으로 작동한다(菊池誠一·坂井隆 外 2021). 항시는 안전·중립이 보장된 교역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규범이 관습화된 행정적 조정 체계(Karl Polanyi 1963) 아래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중심 정치체(정치권력)는 교역의 순환 구조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자로 기능한다. 이어 항시는 해양교역을 담당하는 외래 상인과 내륙자원을 보유한 재지 집단이 만나 물질문화가 교차되는 공간으로서, 상업적 부의 축적이 다시 내륙으로 재유입되어 도시와 배후권을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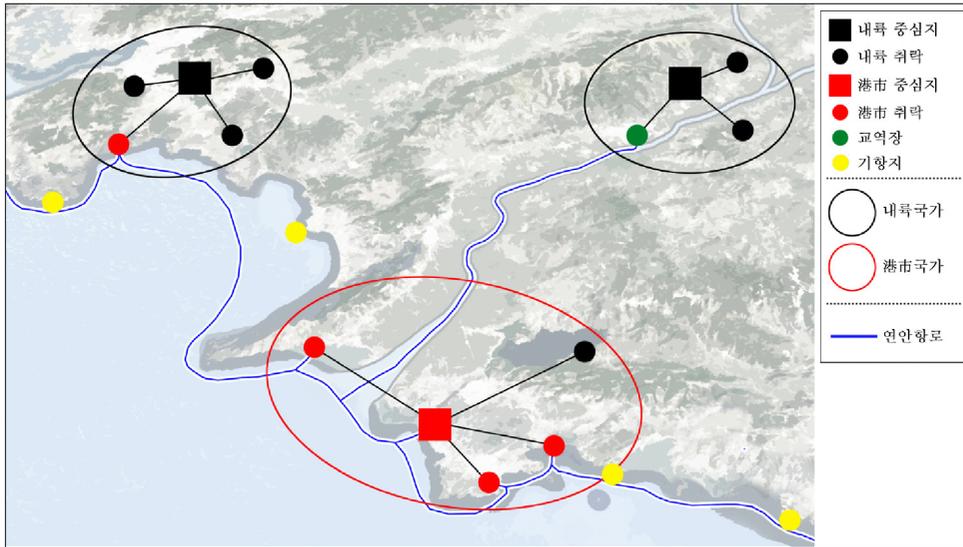
이러한 항시의 성립과 성장 과정에서 도시 내부는 종종 상인 공동체·재지 지배층·외래 집단이 서로 다른 규범을 유지한 채 병존하는 수평적 분절 구조를 보이며, 정치 영역과 상업 영역이 분리되지만 동시에 상호 의존·협력·긴장의 구조가 작동한다. 항시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변 항구·내륙 거점과 네트워크로 묶인 교역 허브로서 기능하며, 이 네트워크 속에서 국제적 이동성을 갖춘 인적·물적·정보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절하는 해역 장치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항시가 확대·통합되면서 그 외항·배후항만·내륙 생산지와 결합하여 해륙 통합형 중계무역국가의 구조, 항시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3. ‘港市’의 구조와 모델

앞 절에서 정리한 ‘항시’의 개념과 메커니즘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시는 ‘교역의 제도화된 공간’으로, 배후지와 결합된 교역의 결절점이다. 이는 복수의 항시 간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된 교역 네트워크의 결절점인 것이다(菊池誠一·坂井隆 外 2021).

자연항만·하구·내만·안전 등 기반(지리적 거점)의 ‘기항지(항진)’에서 재지·



[도면 1] 항시국가 모식도(정선운 2023 수정)

외래 정치체 사이 교역을 통한 외래계 요소가 중첩되며, ‘교역장’으로 발전한다. 이 공간에서 정치체는 교역의 안전이 보장되고, 교역·정치·의례·문화 교섭이 중층적으로 작동하는 상인집단의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해역 네트워크의 교역 중심지인 ‘항시’로 성장한다. 최종적으로 해양 교역 중심인 항시의 교역 집적을 통해 배후지를 통합하고, 때로는 독자적 정치 중심지로 확대되며 해륙 통합적 구조를 갖춘 통합형 중계무역국가인 ‘항시국가’로 확장되는 과정을 아래의 모식도와 같은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IV. 고고학적 분석을 통한 삼국시대 가야의 항시

1. 대상 지역 검토

앞 장에서 검토한 ‘港市國家論’의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가야의 ‘港市’를 정의해 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가야의 港市로 언급된 바 있는 김해와 거제, 사천으로, 양 지역의 삼국시대 양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港市’로 볼 수 있는 속성을 비교·정리하여 경관적 모델을 구성해보겠다.

먼저 古김해만·거제·사천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언급한 세 지역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항시’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권오영 2019; 오재진 2022; 정선운 2022, 2023ab, 2025; 최경규 2025). 하지만 각 지역 내 외래계 요소의 절대적인 수량 차이나 출토된 유적의 빈도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항시 발전단계를 비교·검토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가야권에 분포하고 있는 왜계고분 중 단독분인 김해 율하 B-1호,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을 ‘항시국가론’에 기반하여 성격을 추론해보겠다.

1) 古김해만

現 김해평야가 위치한 김해 일대는 과거 해수면의 수위를 고려할 때(황상일 외 2009) 古김해만이 형성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古김해만은 완전한 바다가 아니라, 간조와 만조의 영향을 받는 간석지일 것이며, 만조에는 해수를 이용할 수 있고 간조에는 현재의 순천만이나 사천만과 같이 갯강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 갯강사례(左 서천 할미섬 부근, 필자촬영)와 김해 대산평야 현재 지형(右 권혁재 2003)

古김해만을 둘러싸고 성장한 금관가야는 중심지(봉황토성-대성동고분군-부원동유적)과 주변(김해 관동리·신문리·율하·여래리, 진해 용원·석동, 부산 복천동·동래패총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중심지에서는 중국 동북·왜를 비롯한 다양한 외래계 요소가 집중되는 반면, 주변부에서는 일부 왜계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소수의 외래계 요소가 분포하고 있어 항시국가 네트워크로서의 ‘중심지-주변’의 차이점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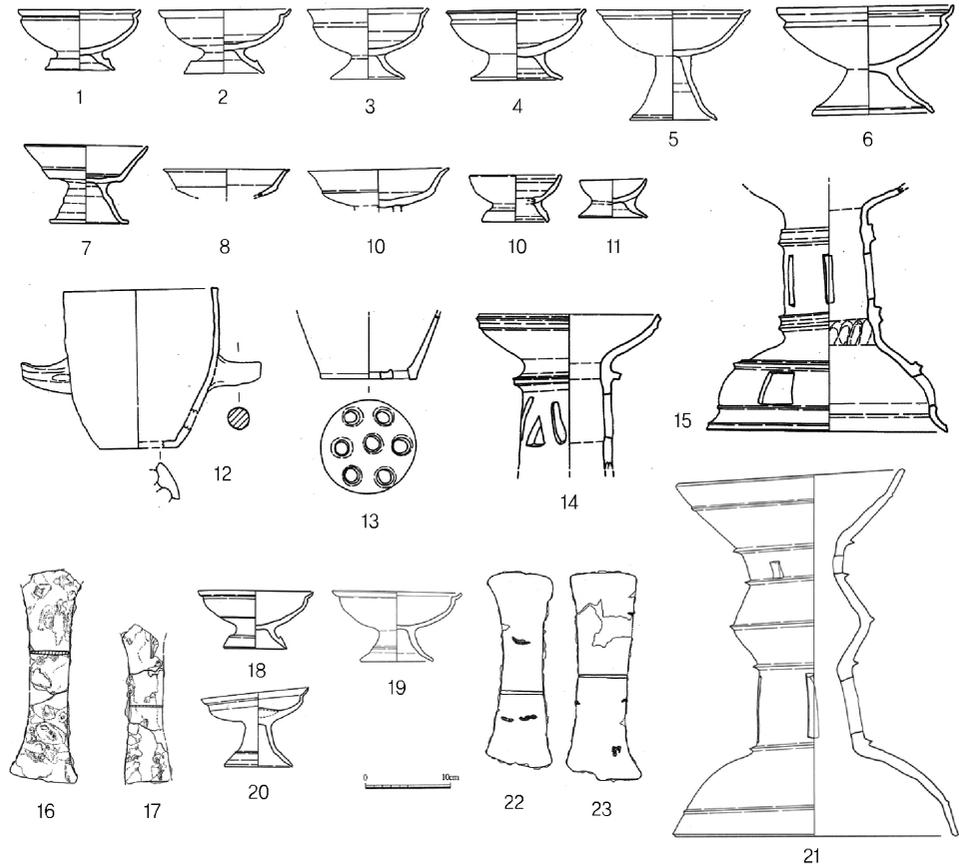
중심지의 생활역인 봉황토성에서는 최근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패각과 점토, 모래, 목탄 등을 이용한 성토, 성토를 위한 여러 공법(토제, 목주, 수평성토, 교호성토 등)이 확인되었다. 그 상층으로 대형의 건물지 여러기가 밀집되어 있는 양상과 4세기 중~5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대지조성층 하층으로 칠기 및 목기가 다수 출토되어 이전 시기부터 공간을 점유하여 중심지로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다(김수민 2025).

더하여 봉황토성과 해반천을 잇는 경계의 가야인 생활체험촌유적에서는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재와 노(동양문화연구원 2014)가 출토되어 선박의 접안을 예측할 수 있으며, 부원동유적(패총)에서는 주거지가 확인되어 생활권역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가야인 생활체험촌·부원동유적 土師器系土器가 출토되었는데, 기형·제작기법 등을 참고할 때 반입·모방품이 혼재하여 왜인의 거주와 영향을 상정할 수 있다(정선운 2022).

중심지의 분묘군인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더욱 다양한 외래계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대성동 29호 출토 동북, 88호 출토 진식 대장식구, 91호 출토 금동제운주나 장식운주·마령·동세 등은 중국 동북지방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고, 대성동 38호 출토 통형동기, 13호 출토 파형동기, 88호 출토 패제운주·파형동기·통형동기 등은 일본열도에서 유



[도면 3] 김해 대성동고분군 출토 외래계 요소
(1. 대성동 13호, 2. 대성동 91호, 3. 대성동 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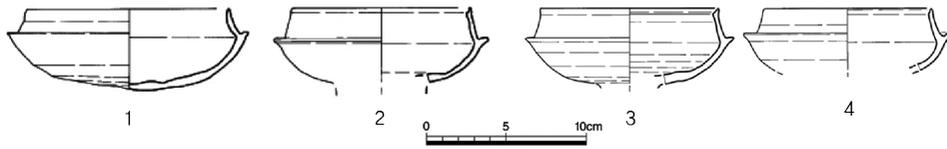
[도면 4] 진해(창원) 용원유적 출토유물 및 비교자료(정선운 2022)

(1, 46호 수혈, 2, 16호 주거지, 3, 5호 주거지, 4, 46호 수혈, 5, 5호 주거지 6, 2호 주거지, 7, 37호 주거지, 8, 23호 주거지, 9, 26호 주거지, 10, 37호 주거지, 11, 37호 주거지, 12, 2호 주거지, 13, 34호 주거지, 14, 37호 주거지, 15, 37호 주거지, 16, 패총 6pit, 17, 훈토패총 제4층, 18, 김해 대성동 2호, 19, 김해 대성동 9호, 20, 김해 대성동 1호, 21, 김해 양동리 9호, 22, 부산 북천동 54호, 23, 부산 북천동 54호)

래를 찾을 수 있는 왜래계 요소이다.

주변부로 넓히게 되면, 먼저 김해 관동리·신문리유적을 주목할 수 있다. 유적은 반룡산 남동사면 율하천 인근에 위치한다. 관동리유적 A~E 지구에서는 100여기의 지상식건물지 즉, 창고군이 확인되었으며, 금관가야 양식 토기와 함께 비화가야 양식 토기, 9·69호 수혈에서 須惠器가 출토되었다. 신문리유적은 관동리유적 동편에 위치한 생활유적으로 같은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정선운 2022). 유물은 금관가야 양식 토기와 함께 비화가야 양식 토기, 土師器系土器 반입·모방품이 다수 출토되었다.

古김해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형성된 진해 용원유적에서는 금관가야 양식 토기·철정과 土師器系土器, 마한양식의 시루와 저부편이 출토되어 부산 동래패총 출



[도면 5] 김해 일대 출토 須惠器

(1. 김해 여래리 25호 수혈(TK10), 2. 김해 여래리 45호 수혈(TK23), 3. 김해 관동리 2지구 9호 수혈(TK47), 4. 김해 관동리 4지구 69호 수혈(TK23))

토 마한양식 토기와 함께 주목할 수 있는 자료이다.

古김해만의 배후에 위치한 여래리·하계리유적에서는 철광석, 철재, 철괴, 송풍관편, 모루, 지석, 탄요 등이 출토되어 자체적인 철생산을 추정할 수 있는 유적이다. 이는 항시의 배후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래리유적 내 철소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 유구가, 퇴래리유적에서는 철제 제련을 위한 단야구가, 화정유적에서는 탄요가 확인되어 개연성을 높여준다. 특히 여래리 25·45호 수혈에서는 須惠器가 출토되었다.

2) 거제⁴⁾

거제도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시기 피난민들이 집중되며, 인구의 비약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이후 1971년 거제-통영을 잇는 거제대교가 건설되며 육지와 이어졌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두 곳의 대형 조선소를 필두로 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9년 신거제대교와 2010년 거가대교의 건설로 육지와 다름없을 만큼의 육화(陸化)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호황기는 200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으나, 2010년대부터 평택·당진 등으로 조선업의 중심이 이동하며 과거에 비해 비교적 쇠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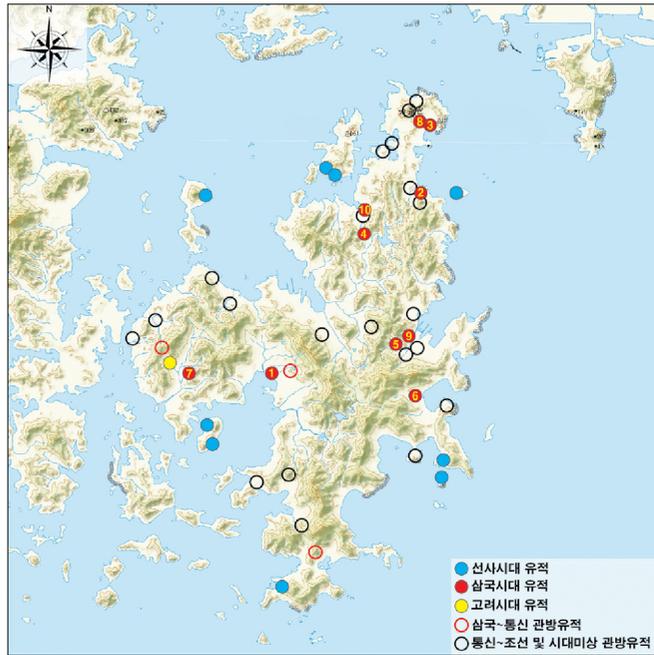
거제도는 2000~2010년을 전후하여 점진적으로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둔덕면의 둔덕기성(폐왕성)과 古군현치소(거림리유적), 방하리고분군, 거제면의 옥산성, 아주동의 아주동고분군, 아주동유적 등⁵⁾이 있다. 특히 최근 둔덕면의 방하리고분군의 발굴조사가 6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거제도 내 삼국시대 유적은 섬 전역에 산재하며 시기별로 성격이 뚜렷하게 달라

4) 본 내용은 필자의 논고(정선운 2025)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5) 현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삼국시대 고분군은 총 13개소이다(문화재청 2018).

진다. 3~4세기대는 거제 동부의 대금리유적에서는 청동기부터 삼국시대 목곽묘 23기·옹관묘 13기 등이 조사되었다. 단경호·과수부호·노형기대·고배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히 79호 목곽묘의 단경호는 전형적인 아라가야 양식으로 편년된다. 인근 농소유적에서는 상·하층의 삼국시대 문화층 속에 수혈·집석·집목·지상식건물지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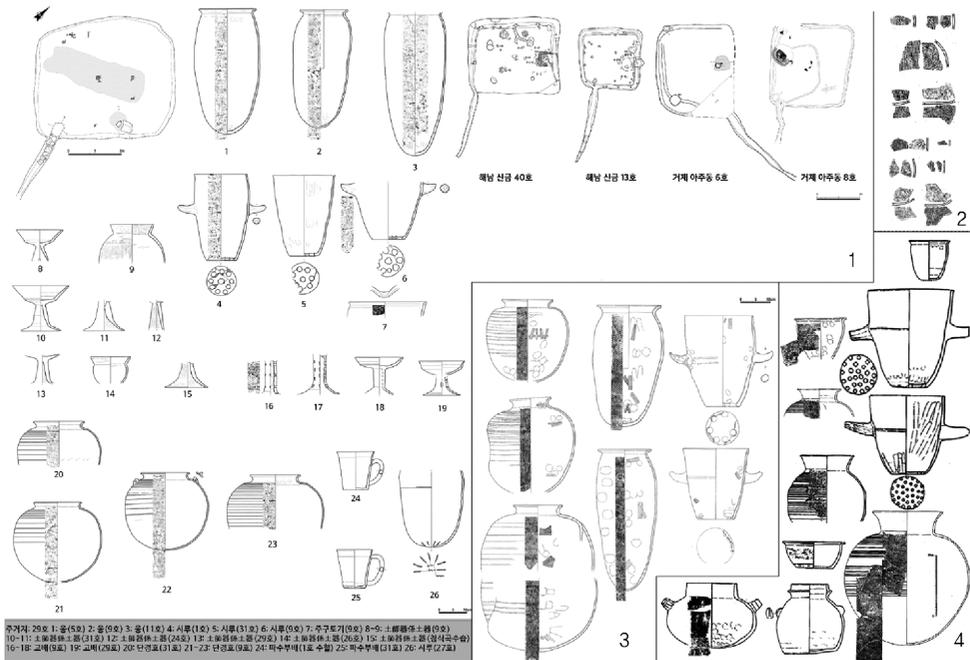


[도면 6] 거제도 유적 분포도(정선운 2025)

또한 연초 고개 일대의 도로공사 중 수습된 장터고개고분군에서는 단경호·고배·과수부배 등이 출토되었는데, 아라가야 양식 고배·단경호 및 소가야 양식의 과수부배가 확인되어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의 분묘군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거제도의 3~4세기 유적 중 가장 특징적인 아주동유적(1485유적, 1540-1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 52기를 비롯한 수혈·지상건물지 등이 확인된다. 주거지 평면이 사주석을 갖춘 마한양식의 방형주거지이며, 아라가야 양식 단경호·고배, 마한 양식 밭·옹·시루, 土師器系土器가 대량 출토되어 재지 집단, 마한계 집단, 왜계 집단이 공존한 다국적 교역장의 성격을 보여준다. 반면, 아주동 남쪽의 소동리유적에서는 30기의 주거지와 수혈이 확인되는데, 단경호·고배·과수부배 등 아라가야 양식 토기가 중심이나, 아주동유적과 달리 土師器系土器를 비롯한 외래계 토기는 출토되지 않아 아주동유적의 상대적인 특수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5세기~6세기 전엽에는 방하리고분군이 대표적이다. 현재 6차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석곽 17기·석실 7기가 우선 보고되었다. 고배·수평구연호·발형기대·컵형토기 등 소가야 중심부인 고성 송학동·통영 남평리·마산 현동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기종이 다량 확인된다. 철부·철촉·철정·환두대도·철검 등 철기류도 출토되는데 특



[도면 7] 거제 아주동 출토유물 및 비교자료(정선운 2022,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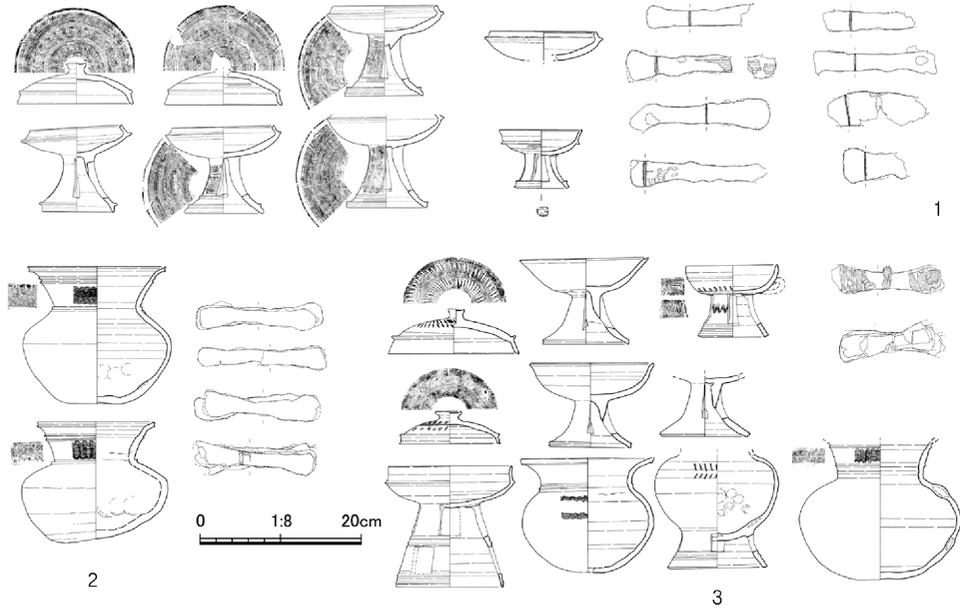
(1. 거제 아주동 유적, 2. 福岡県 三雲遺跡, 3. 해남 신금유적, 4. 福岡県 西新町遺跡)

히 철정의 경우 금관가야형이 아니라 단부와 신부 형태가 비대칭인 신라형 철정이다.

방하리고분군에서는 대호·단경호를 과쇄하여 시상을 조성하는 특징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성·통영·마산·진주 등 소가야 중심부에서 보이지 않는 양상으로 거제도의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다.

6세기를 전후하여 거제 동북부 구릉 정상부에 단독으로 조영된 장목고분은 분구 외연에 하니와를 모방한 원형 토제품을 세우고 내부에는 길이 3.1m의 황혈식 제형석실과 나팔형 연도·현문시설이 설치된 전형적인 기타규슈형 석실이다(김준식 2019). 경갑·찰갑편·대도·삼지창·유리주 등이 출토되어 주목할 수 있다.

6세기 중엽 이후에는 신라의 남진과 함께 거제도 전역에 신라 문물이 집중·유입되며 둔덕기성과 옥산성, 다대산성 등 신라산성이 축조된다. 더불어 아주동고분군과 하청리유적, 그리고 방하리유적 등 고분에서 신라 양식의 황구·황혈식 석실이 조영된다. 하지만 아주동고분군 3·5호석실에서는 신라식 유개고배·대부완과 함께 대가야·소가야 양식의 개가 함께 매납되고 있어 신라양식 분묘 내에서 가야계 전통이 잔존하고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인다.



[도면 8] 거제 방하리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철정 출토 분묘 공반유물(정선운 2025)
 (1. 거제 방하리 16호 석곽묘, 2. 통영 남평리 8호 목곽묘, 3. 통영 남평리 10호 목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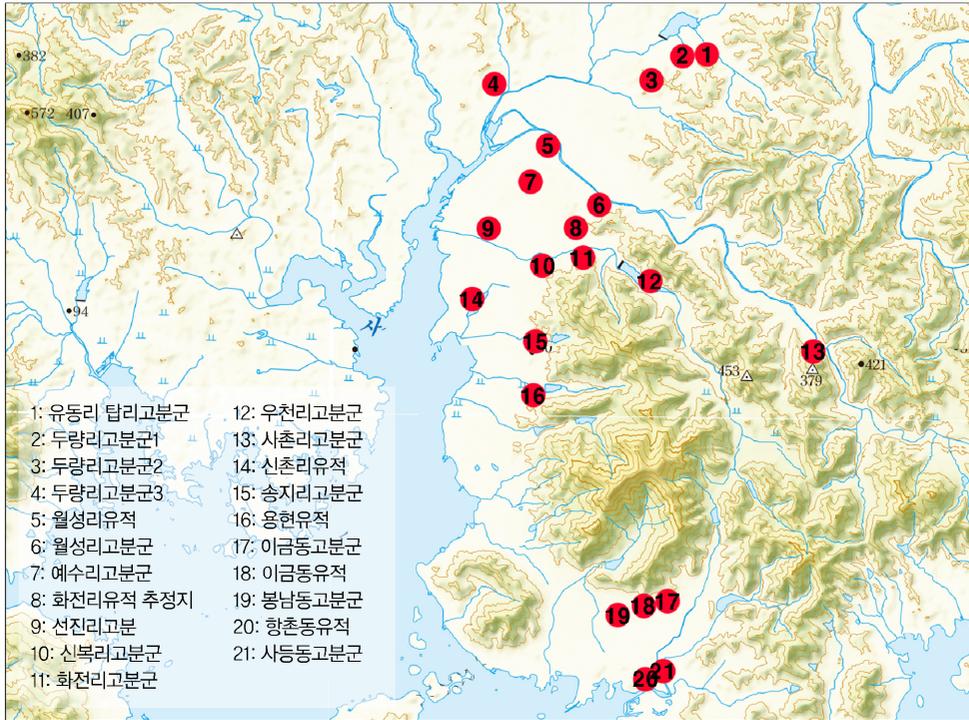
3) 사천

사천은 ‘史勿國’의 ‘故地’로 비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천 늑도의 사례를 빼면 학술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늑도는 사천을 대표하는 유적이지만, 과거 사천지역의 중심 또는 ‘사물’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기보다는 늑도를 중심으로 한 교역·교류·정체성에 대해 집중되고 있어 지역적 관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하기엔 거리가 멀다.

다만 최근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경남연구원 2022)가 개최되는 등 사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천지역을 ‘항시’의 개념에 대입한 견해(오재진 2022)가 있어 본 글을 통해 사천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을 정리하고, 그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천의 삼국시대 고분은 사천 선진리고분과 향촌동유적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송지리고분군, 예수리유적·고분군, 월성리유적·고분군, 이금동유적·고분군, 용현유적, 신촌리유적, 화전리유적, 봉계리유적 등이 있다.

생활유적으로는 월성리유적(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봉계리유적(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예수리유적(삼도문화재연구원 2019) 등이 있으며, 유적 내 양상을 종합



[도면 9] 사천지역 삼국시대 유적 분포도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유적은 대부분 구릉과 그 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주거지 평면형태는 원형·방형, 내부시설은 벽구·주혈·노지 등이 확인되어 서부 경남의 보편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출토유물의 수량은 많지 않으나 고배, 단경호, 파수부배(컵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소위 서부 경남 양식의 고배, 발, 시루 등을 중심으로 아라가야 양식의 단경호, 고배, 파수부배가 출토되었다. 연대는 3~4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고분유적은 금성리고분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부분 사천만의 동안 구릉 사면이나, 사천 중심부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선진리고분(김규운·김준식 2009), 월성리고분군(경상대학교 박물관 1998), 향촌동고분군(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송지리(정영호 1968; 경남문화재연구원 2024)·예수리(삼도문화재연구원 2019)·이금동고분군(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등 중·소형분묘군이 분포하고 있다.

목곽묘는 월성리고분군·월성리유적 등에서 조사되었지만, 수량이 많지 않다.

석곽묘는 예수리고분군·송지리고분군·용현유적을 포함한 다수의 분묘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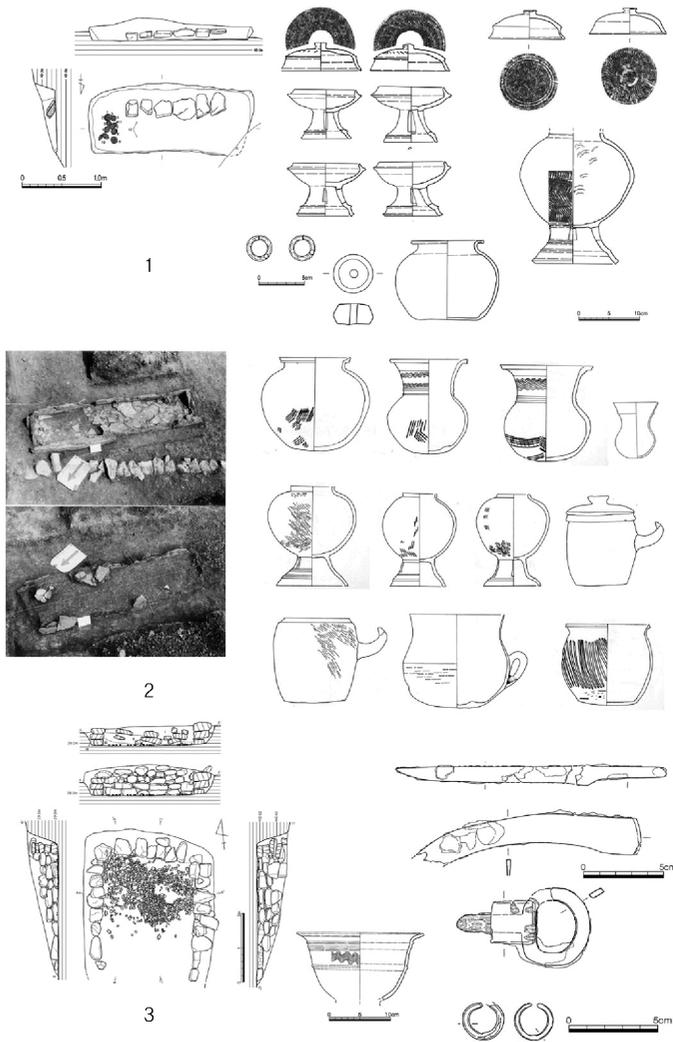
확인되고 있어 일괄적으로 통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 평면형태 세장방형의 판석·할석을 조립한 형태이다. 유물은 수평구연장경호, 고배, 개, 단경호 등이 출토되는 양상이다.

석실은 월성리·이금동고분군에서 횡구식석실이, 이를 제외하면 모두 횡혈식석실이다. 평면형태는 장방형과 방형이며 유물은 고배, 개, 단경호, 수평구연호 등이 출토되었다. 횡혈식석실은 선진리·향촌동·월성리고분군 등에 분포하고 있다. 선진리고분은 단독으로 축조되어 있는 점이 특징으로 현문시설을 갖추고 있고, 석

실은 대형의 벽석으로 축조되어 있다. 향촌동고분군에서는 II-1호분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현문시설을 갖추고 ‘ㄷ’자로 배치된 석장형 석관이 설치되어 있다. 월성리고분군은 평면형태 방형의 석실으로, 호석이 둘러진 점이 특징이다.

4) 왜계고분

김해 율하 B-1호,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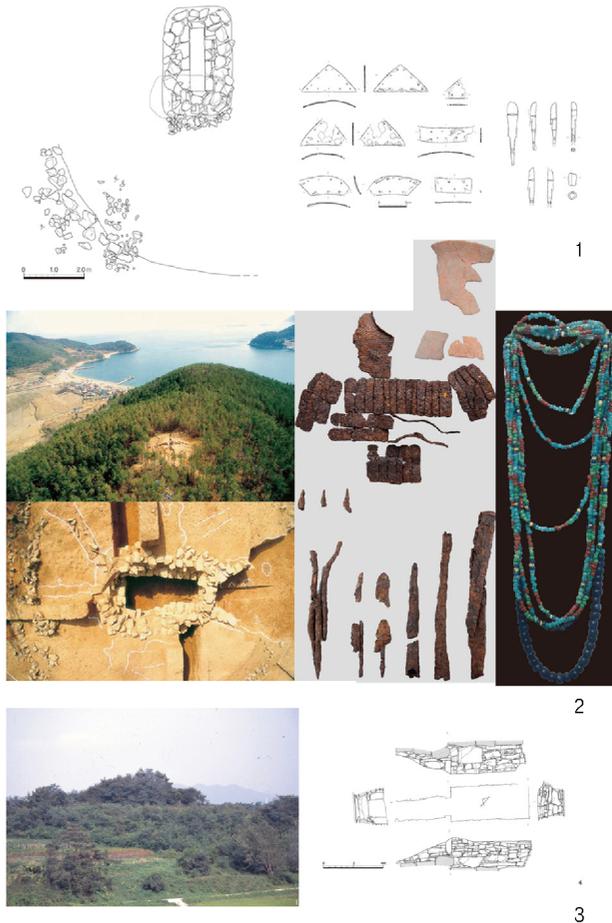


[도면 10] 사천지역 분묘 및 출토유물

(1. 사천 예수리 1호 석곽(삼도문화재연구원 2019), 2. 사천 송지리 10(上)·11(下) 석곽(단국대 석주선박물관 1999), 3. 사천 용현유적 1호 석실(上)(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1))

김해 율하 B-1호는 관동리·신문리유적에서 남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해발 약 15m의 구릉 정상부에 배장묘로 판단되는 2호와 함께 축조되어 있다. 5세기대에는 구릉에서 관동리·신문리유적이 육안으로 관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매장주체부는 대성동고분군에서 확인되는 수혈식석곽과 축조기법과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매장주체부의 형태는 석관계수혈식석실이며, 유물은 삼각판혁철관갑편·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유적의 연대는 5세기 전반이며, 피장자는 日本九州와 관련 있는 왜인으로 생각된다(정선운 2022). 5세기 전·중엽 남해안에 축조된 전남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야막고분, 해남 외도고분, 신안 배널리 고분, 천안 구도리 고분 등 서남해안 일대에 축조된 왜계 고분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김낙중 2013).

거제 장목고분(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은 거제도 북·동부 해발 약 83m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현재 농소터널이 개통되어 있는 바로 위이다. 분구는 직경 약 18m, 높이 약 3m이며 분구 외면에는 층석이 확인된다. 분구 가장자리에는 하니와를 본뜬 토제품이 수립되어 있다. 매장주체부는 길이 3.1m, 폭 1.8m, 높이 2.12m의 양수식의 횡혈식석실이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경갑, 유리주, 대도, 삼지창 등이 출토되었고, 현문부 주위에서 찰갑편이 흩어진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매장주체부의 평



[도면 11] 가야권 남해안 왜계고분

(1. 김해 율하 B-1호(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2. 거제 장목고분(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3. 사천 선진리고분(김규운·김준식 2010))

면형태는 제형이고, 후벽 하단에 대형 석재를 사용한 요석,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연도, 현문시설의 존재 등이 특징이다.

사천 선진리고분은 정식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표 및 석실내부 조사 자료가 보고되었다(朴天秀 2003; 김규운·김준식 2010). 사천만에서 약 400m 떨어져 있는 구릉 정상부에 단독으로 입지한다. 분구는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없으나 직경 30m, 높이 5m이며, 연도는 양수식으로 현문시설이 구비된 횡혈식석실이다.

2. ‘港市國家論’의 적용

1) 古김해만

古김해만의 금관가야는 고대 남해안 해역체계에서 단순한 교역항을 넘어선 항시국가(港市國家)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집약적이고 구체적인 고고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로 생각된다. 김해의 중심지와 주변부는 자연지리·교역·배후지·외래계 요소 등과 위계성 등이 중첩된 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 구조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서부에서 논의된 항시국가의 특징과 완전히 대응하고 있다.

먼저 김해평야는 과거 현재보다 훨씬 넓은 내만을 이루었던 古김해만을 배경으로 성장했는데, 간조 시에는 갯벌과 갯강이 형성되어 내륙과 만 입구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해상-갯강-하천-고지대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즉, 해상 접근과 내륙 교통로의 복합성(生田滋 1966)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古김해만의 중심지인 봉황토성·대성동고분군·부원동유적·가야인 생활체험촌유적은 생활·분묘·교역유적이 한 곳에서 결절되는 결합형 중심지(combined capital)로 이해할 수 있다. 봉황토성에서는 패각·모래·점토·목탄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성토 공법, 목주열·수평성토·교호성토 등 다양한 토목기술이 확인되었는데(김수민 2025), 성토층 하부에서 확인된 목기·칠기, 상층에서의 대형 건물지 밀집은 이 공간이 장기간에 걸쳐 권력 중심지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해반천과 봉황토성 사이에서 출토된 선재 및 노는 이곳이 선박의 정박·접안을 가능하게 하는 하천 결합형 항만 구조임을 보여준다(동양문화연구원 2014). 이러한 ‘수로 결합형 내륙 항만’은 인도양 항시국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도시-수로(해운) 연결 구조’와 동일하다(家島彦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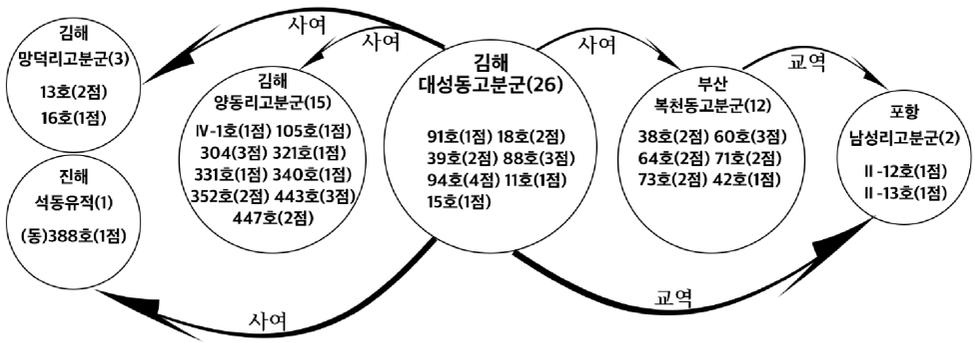
특히 대성동고분군은 김해가 단순한 교역의 이동지점을 넘어 정치·의례·경제

기능이 맞물린 항시국가적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중국 동북·일본열도를 비롯한 諸 가야 정치체들과의 교역 관계를 의미한다. 앞 장에서 전술한 다양한 외래계 요소의 집중은 경제적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의례·사회규범이 결합된 제도적 교역의 장(institutionalized port of trade)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Karl Polanyi 1963).

특히 대성동고분군 집단이 교역의 통제나 재분배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지표의 대표적인 사례는 금관가야권 내 통형동기의 분포에서 찾을 수 있다. 통형동기는 금관가야와 일본열도의 관계를 내포하는 고고자료이다. 제작 주체에 대한 견해는 나뉘고 있으나, 한반도 내 분포 수량으로 보았을 때 금관가야의 중앙을 통해 주변으로 사여·교역된 물품임이 분명하다. 즉, 통형동기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중심 집단의 교역 또는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정치권력 개입의 일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도면 12).

김해 주변부의 성격 또한 항시국가론적 구조를 입증한다. 관동리·신문리유적에서 대규모 지상식건물군(창고군)의 존재는 교역 물품 집산·저장 기능의 제도화 가능성을 내포한다(坂井隆 2002). 더불어 土師器系土器나 須惠器의 반입·모방 사례는 일본열도 제 집단의 왕래와 장기 거주를 보여준다. 용원유적은 古김해만 입구에 위치하여 외해-내해를 연결하는 외항으로, ‘동심형 항만권력 구조Concentric port polity’(Kathirithamby-Wells & Villiers 1990; 최경규 2025)가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배후지 또한 항시국가 구조를 뚜렷하게 형성했다. 여래리·하계리 등지의 배후지는 자원 생산과 내륙 연결로를 담당함으로써(家島彦一 2006) 배후지-외항-중심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Mandala polity의 핵심 개념인 복수 중심성(multi-centric



[도면 12] 금관가야권 통형동기 분포 모식도(정선운 2022)

domain)을 참고할 때 다중 권역이 상호 연결된 연성 정치체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O. W. Wolters 1999).

결론적으로 김해 지역은 다수의 항시 구조가 결합된 복합체로서 단순한 해양도시가 아니라 낙동강과 남해안을 통해 내륙과 바다 그리고 일본열도를 잇는 교역체계를 중재하는 고대 항시국가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2) 거제

거제도도 고대 남해안 해역체계 속에서 독자적인 정치권력을 형성하거나 외항(外港)을 구축한 항시국가 구조를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도서 내 아주동유적은 다양한 외래계 집단이 공존하고 다문화적 물질문화가 축적되는 양상을 통해 중계적 교역장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아주동유적의 성격은 ‘교역장’의 특징과 정확히 대응한다. 유적은 아라가야·마한·왜계 등 다양한 외래계 요소와 함께 재지계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 항시의 발전을 ‘교역장 → 항시 → 항시국가’로 설정했는데, 이 중 교역장 단계의 특성, 즉 다문화상인집단의 접촉·왕래가 집중되며 정치권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단계에 부합한다(生田滋 1966).

특히 항시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 ‘거점적 취락’이 출현하며, 여기에는 외래 집단의 상주·혼주·수공업의 재맥락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러한 ‘교역거점’의 속성을 매우 잘 보여준다(家島彦一 2006).

또한 거제의 지리적 입지는 남해안과 일본열도를 잇는 연안항로의 결절점에 해당한다(정선운 2024, 2025). 남해안에서 일본열도로 향하는 항로의 중심지에 위치한 거제는 교역장으로 기능하기에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즉, ‘항로의 결절점’ 개념과 일치하며, 동남아 항로 인식에서도 중간 정박지의 역할이 강조된 구조와 흡사하다(生田滋 1966).

즉, 거제도도 항시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중심성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아주동유적은 연안항로의 교역체계에서 교역장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바텐(Banten)의 사례에서 정치 중심(수도)과 외항(항시), 그리고 그 주변의 부속 교역거점들이 네트워크 관계로 존재하며, 이러한 중계적 결절점이 없으면 항시국가 전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坂井隆 2002). 이는 단순히 지리적 중간지대가 아니라, 중심 항시의 교역량·상품 순환·물자 집산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구성요

소로 아주동유적의 성격은 동남아시아 ‘교역 전초지’와 유사한 성격일 것으로 생각된다.

3) 사천

사천은 고대 남해안 해역체계 속에서 일정한 교역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나, 김해·거제와는 달리 항시 혹은 항시국가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구성단위로 보기 어려운 고고학적·지리적 특징을 보인다. 특히 다양한 외래계 요소는 선진리·향촌동Ⅱ-1호 고분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천은 항시국가론적 틀보다는 지역적 생활권과 재지 집단 중심의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학계에서는 사천을 항시 개념에 적용하여(오재진 2022), 사천·사물국의 정체성을 더욱 능동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외래계 요소의 집중이나 이주집단의 흔적이 현저하지 않다. 특히 5세기 중엽을 전후하여 남해안 일대에는 소가야 양식 토기가 광역망을 이루고 있기(박천수 2018) 때문에, 소가야 양식 토기와 분묘가 확인되는 양상은 재지계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왜계고분을 통해 볼 때 남해안 교역체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항시국가론 속에서의 교역장·항시·항시국가와 같은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4) 왜계고분

왜계고분을 검토하기에 앞서 기술한 ‘항진(港津)’이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항진이라는 개념은 ‘아라타메조리유적(荒田目条里遺跡)’에서 출토된 목간에 기록되어 있는 ‘진장(津長)’의 성격을 파악하며 제기되었다(日高慎外 2024).

목간은 일본열도 동북지방 후쿠시마현 남동부에 위치한 이와키시(いわき市) 구하도 조사에서 발견되었



[도면 13] 荒田目条里遺跡유적 출토 목간

다. 유적의 연대는 헤이안시대 9~10세기로 추정된다. 총 6점이 목간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한점에서 「郡符立屋津長伴→福磨可○召○右為客料充遣召如件長宣承○」이라는 구절이 확인되었다. 내용은 郡符立屋의 항구 책임자인 '伴部'의 '福磨'에게 객료를 충당하기 위한 사람의 소환을 명령한 것이다(いわき市教育文化事業団 2001).

이를 근거로 '津(나루)'의 개념을 고고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港'이라는 요소가 결합되어 일본열도의 고대 해상 교통 구조를 설명할 수 있었다. 나루(津)·포구(浦)·정박지(碇泊地) 등 기존 용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해상 교통 구조의 다양성과 기능적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日高慎外 2024).

'港津'의 개념을 더 살펴보자면, 항진은 해상 교역망을 구성하는 소규모 해양 거점으로서, 장거리 항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박이 정박하고 보급하며 항로를 정비하기 위해 선택된 자연적 포구이다. 이는 항시 또는 교역장과 같은 외래계 요소의 집적보다, 항해 기술·지형 조건·해류·풍향 등 해상 환경적 요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교역적 목적보다 항해 유지 자체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항진'을 고대 일본열도의 도서·내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항로 운영의 실질적 단위'로 규정하며, 항해 집단이 장·단기적으로 정박하고 물자를 보급하며 기초적 교환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었다고 설명한다(日高慎外 2024). 따라서 항진은 교역보다는 항로 운영을 위한 기능적 거점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며,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항로 연속성을 담보하는 기초적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또한 항진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항시의 전 단계 혹은 하위 단계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교역장의 발생 조건 중 일부를 공유하나(生田滋 1966; 정선운 2022), 다양한 외래계 요소의 집적을 수반하는 교역장·항시와는 구별된다. 항진에서는 소규모의 문화 접촉이나 교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항시에서 나타나는 문화 집적이나 정치권력의 개입과는 다른 성격의 '비제도적·비시장적 교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항진은 중심 항시와 배후지, 그리고 교역장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하위 구성요소로 기능하며, 항시국가의 구조(배후지, 교역장, 항시)가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작은 결절점'을 형성한다(家島彦一 2006). 항진은 이 구조 속에서 선박이 장거리 항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시국가 전체의 교역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결국 항진은 항시국가의 경제·정치 구조에 직접 편입되지는 않지만, 그 교역망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실질적 운영 기반이라

는 점에서 교역장·항시·항시국가를 연결하는 필수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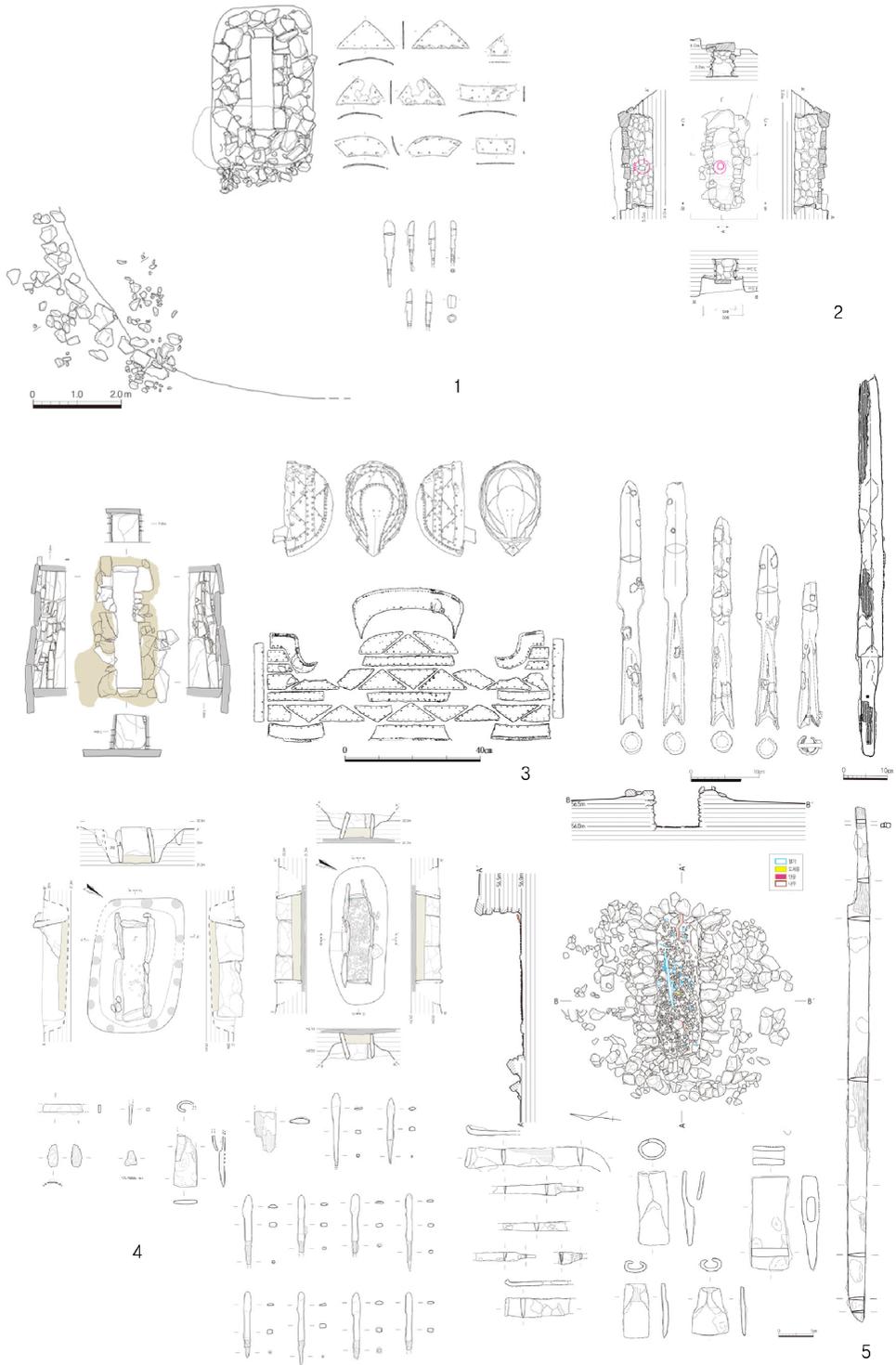
즉, 항진은 고훈시대 해상 교통에서 배가 정기적으로 머물며 휴식·보급·피항을 위해 이용하던 자연 항만 또는 하구·내만의 기항지이며, 이를 관리하는 ‘津長’의 존재가 추정할 수 있다. 즉, 내만, 석호, 하구 등 파랑이 약하고 배가 닿기 쉬운 지형에 형성되거나, 멀리서 인지하기 쉬운 산·고층 등 시인성이 높은 지형 요소와 결합한 항해의 안전을 보장한 공간인 것이다. 즉, 이는 ‘항시’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할 때 ‘기항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정선운 2022, 2023ab, 2024)

이를 근거로 왜계고분의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방후원분을 중심으로 다룬 선행연구(김낙중 2013; 김준식 2019; 조영제 2004; 박천수 2007; 박상언 2010; 이주현 2020; 홍보식 2011 등)를 참고하자면, 피장자의 출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으나, 그 목적으로는 대부분 ‘교역·교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필자 또한 이에 수긍하나, 앞서 살펴본 ‘항진’이라는 개념에 적용하여 해석해보고자 한다.

5세기 전엽의 김해 읍하 B-1호와 같은 석관계수혈식석곽은 동일 시기의 대성동 73호 수혈식석곽과 비교할 때, 매장주체부의 축조 방식, 출토 유물의 조합, 단독 입지와 묘제 등 거의 모든 요소에서 차이가 있다(정선운 2022). 이러한 특수성이 김해 읍하 일대의 제지계 전통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에서, 인근 교역·해양 활동과 연계된 외래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고분이 김해뿐 아니라 해남 외도고분, 신안 배널리 3호, 무안 신기고분, 고흥 안동·야막고분, 그리고 최근 조사된 청산도 당리고분 등 반도·도서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반복적으로 단독 출현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고분들이 단순한 지역적 이동이 아니라 항로를 따라 형성된 거점에서의 기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임을 보여준다.

항진(港津)은 본래 장거리 항해 과정에서 선박이 정박하고 보급하며 항로를 재조정하기 위해 선택된 자연적 포구 혹은 중간 기항지를 의미함을 확인했다. 이 공간에는 항해 집단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시적으로 거주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교역·정치·의례 기능이 복합된 항시와 달리 이동·정박·보급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과도기적 공간으로 평가된다(生田滋 1966; 家島彦一 2006; 日高慎外 2024). 이러한 항진의 기능을 고려하면, 도서 해안 일대에서 확인되는 왜계고분들은 정박·기항 활동을 전개하던 외래 집단이 일정 기간 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집단의 흔적, 혹은 기항지의 군사·교역 담당 집단의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목되는 것은 이 고분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 조합이다. 도굴로 인해



[도면 14] 5세기 전엽 왜계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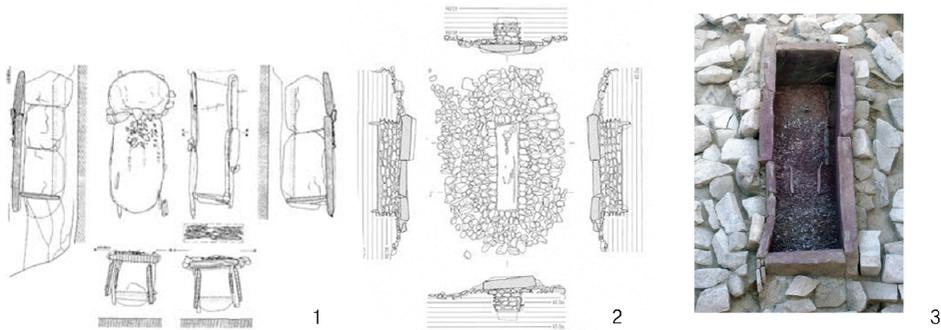
(1. 김해 율하 B-1호(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8), 2. 무안 신기고분(목포대학교 박물관 2011), 3. 신안 배널리 3호(동신대학교 박물관 2015), 4. 청산도 당리고분(호남문화재연구원 2025), 5. 해남 외도고분(마한문화연구원 2025))

대부분이 유실된 해남 외도고분⁶⁾과 무안 신기고분을 제외하고는 대도·철축 등 무기류를 중점적으로 삼각관혁철관갑·장방형관혁철관갑 등 북부 규슈계 갑주가 출토되기도 한다. 이는 해당 고분을 축조한 피장자(또는 집단)가 음식물을 봉헌과 함께 토기를 매납하던 재지계 매장례와 다른 관념을 지녔음을 보여주며, 피장자와 그 집단의 군사적 성격을 내포하는 자료이다.

이와 함께 문헌사료를 살펴보자면 『日本書紀』응신16년(405)조 기사에서는 직지왕(전지왕)이 왜에 9년 동안 파견·체류된 사실과 『三國史記』백제본기 전지왕 원년(405) 기록에서는 아신왕이 사망하지 전지의 환국을 호위하는 왜군의 존재가 확인·가능하다. 또한 『日本書紀』응신16년(405)조 ‘平群木菟宿禰.的戶田宿禰를 가라에 파견하여 신라를 치고 습진언과 궁월군의 인부를 데리고 오도록한다’는 기사를 참고할 때 이 시기를 전후하여 왜군이 가야·백제권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北部九州 福岡県 奴山正園古墳·七夕池古墳·川津古墳 등에서 확인되는 석곽의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부 규슈와 가야·백제 연안을 잇는 거점에 배치된 군사 집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항진의 기능상, 장거리 향해 집단은 주요 기항지에서 항해자·교역자·무사 집단이 함께 이동하거나 혼합된 형태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데(日高慎外 2024), 전술한 5세기 전~중엽 왜계고분의 성격은 바로 그러한 구조와 일치한다.

6세기를 전후하여 축조된 거제 장목고분과 사천 선진리고분 역시 동일한 틀로 해석할 수 있다. 장목고분은 ‘八’자형 연도, 요석 배치, 현문시설, 철모·삼지창, 분구 외



[도면 15] 5세기 전반 왜계고분 비교자료

(1. 福岡県 奴山正園古墳, 2. 福岡県 七夕池古墳 1号墳, 3. 飯塚市 川津 1号墳)

6) 해남 외도고분에서는 과거 지표조사 당시 철제편, 동경편이 수습되었다는 주민들의 진언이 있었으나 현재 확인할 수 없다(목포대학교 박물관 1986)

연의 하니와 토제품 등 北部九州 番塚古墳·關行丸古墳과 동일 계통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사천 선진리고분 또한 현문시설과 요석의 구성에 있어 北部九州 계열의 묘제 양식을 갖추고 있다(김준식 2019). 이는 양 고분이 위치한 거제 농소만·사천만 일대가 장거리 항해 집단의 중간 교역·정박의 기능을 수행했던 지점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분의 존재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5세기 말~6세기 초 거제·사천지역이 항시 단계의 교역·정치적 집중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장목고분·선진리고분을 중심으로 한 항진 즉 기항지로 기능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해안 일대에 산재하는 왜계고분들은 기존의 재지계 매장의례로 설명되지 않는 외래 집단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들의 분포는 곧 항진(기항지)의 분포 즉, 연안항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을 기항지가 물질자료로써 확인되는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최근 가야 연구에서 확산되고 있는 ‘항시(港市)’와 ‘항시국가(港市國家)’ 개념의 사용이 개념적 정의보다 사례 적용이 앞서는 경향을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했다.

국내 연구사에서 항시는 해안에 위치한다는 입지나 일부 외래계 요소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항지-교역장-항시-항시국가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된 항시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항시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해상·수운·육로가 교차하는 ‘교역의 결절점’으로서 기능한다. 둘째, 교역의 안전성과 중립성은 정치체의 개입을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 항시는 정치·경제·의례가 결합된 제도적 교역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외래계 요소의 집중과 상호작용은 항시가 단순한 시장을 넘어 ‘교의 장’임을 의미한다. 넷째, 항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지-교역장-외항-중심 항시가 네트워크를 이루며, 그 통합적 구조 속에서 항시국가가 성립한다.

이론적 틀을 가야권에 적용한 결과,古김해만·거제·사천은 동일한 ‘항시’ 범주에 넣기 어려운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보였다.古김해만의 경우 중심지-외항-배후

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교역체계가 확인되며 다양한 외래계 요소가 집중되어 있어 항시국가론이 제시하는 조건과 가장 부합했다. 다시 말해, 古김해만은 내륙-남해안-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중계 거점이자 정치·의례·경제 기능이 집약된 항시국가의 전형적 구조를 갖춘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거제는 도내 諸유적과 달리 아주동유적에 외래계 요소가 집중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론적 틀에 근거한 ‘교역장’으로서의 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항시국가 내부의 중간 거점, 곧 교역장의 성격과 정확히 대응한다.

사천의 경우 선진리·향촌동 II-1호분을 제외하면 외래계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선진리·향촌동 고분에 제한적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현재로써는 항시로 이해하기엔 자료가 미흡하다.

김해 율하 B-1호,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은 ‘항진’의 개념과 문헌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피장자는 ‘교역’과 관련된 인물일 것이나 ‘교역장’이나 ‘항시’ 단계엔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왜계고분을 중심으로 ‘기항지(항진)’의 개념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어느 지역을 ‘港市’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정합성을 충족하는 조건, 즉 입지와 외래계 요소의 집중, 교역을 관리하는 정치체, 그리고 배후지·외항과 연동된 네트워크 구조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12. 31 | 심사완료일 2026. 1. 26 | 게재확정일 2026. 2. 2

참고문헌

- 강귀형, 2023, 「해남 군곡리 유적의 조사 내용과 의미」, 『해남 군곡리 유적으로 본 고대 향시와 신미국』, 목포대학교박물관.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2, 『사천 봉계리 삼국시대 취락』.
- _____, 2003, 『사천 이금동유적』.
- 경남문화재연구원, 2024, 『사천 송지리유적』.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06, 『거제 장목고분』.
- _____, 2008 『김해 율하리유적 I』.
- 경남연구원, 2022,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 경상대학교 박물관, 1998, 『사천 월성리고분군』.
- 권오영, 2017, 「랑야수국(狼牙脩國)과 해남제국(海南諸國)의 세계」, 『백제학보』20, 백제학회.
- _____, 2019, 『해양 실크로드와 동아시아 고대국가』, 세창출판사.
- _____, 2023, 「고대 동아시아의 향시와 향시국가」, 『해양과 메가아시아』, 진인진.
- 권옥택, 2022, 「마한 신미국의 경제사: 외래유물을 통해 본 해상교역과 향시」, 『해남 현산에 깃든 마한 소국』, 대한문화재연구원.
- 권혁재, 2003, 『한국지리』, 범문사.
- 김규운·김준식, 2010, 「사천 선진리 석실분」, 『영남고고학보』48, 영남고고학회.
- 김낙중, 2013, 「5-6세기 남해안 지역 왜계고분의 특성과 의미」, 『호남고고학보』45, 호남고고학회.
- 김수민, 2025, 「2024년 영남지역 분묘 의 발굴성과」, 『2024년도 조사연구사례발표 학술대회』, 가야사학회.
- 김준식, 2019, 「가야 황혈석실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2011, 『사천 용현유적』.
- _____, 2025, 『가야 향시와 일본 열도-창원 석동유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專修大學 학술교류협정체결 10주년 기념 합동 학술심포지엄.
- 동양문화연구원, 2014, 『김해 봉황동유적』.
- 村松 伸, 2003, 「아시아 도시의 씩없는 변천」, 『바다의 아시아1-바다의 페러다임』, 다리미디어.
-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6, 『해남군의 문화유적』.
- _____, 2023, 『해남 군곡리 유적으로 본 고대 향시와 신미국』.
- 문화재청, 2018, 『2018년도 전국 비지정 고분군 실태조사 보고서』4.
- 박상언, 2010, 「가야 지역 왜계고분의 연구 현황과 과제」, 『경남의 가야고분과 동아시아』,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 _____, 2018, 『加耶文明史』, 진인진.
- 삼도문화재연구원, 2019, 『사천 예수리 산 64번지 유적』.
- 안홍좌, 2023, 「탁순국의 성격」, 『한국학연구』8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오재진, 2022, 「삼국시대 사천의 고고학적 상상」, 『사천과 사물국 역사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경남연구원.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0, 『사천 월성리유적』.
- _____, 2011, 『사천 향촌동 유적』.
- 윤영석, 2025, 「교역장과 기항지로 본 남해안~영남권역 초기 향시의 철부유통망 연구」, 『야외고고학』52, 한국문화유산협회.
- 이동희, 2018, 「해남반도와 가야 신라의 교류 그리고 향시국가 지미」, 『백제학보』26, 백제학회.
- _____, 2021, 「고성 내산리 집단의 성격과 포상팔국」, 『영남고고학』91, 영남고고학회.

- 이주현, 2020, 「나주 정촌고분 1호 피장자의 성격 재검토」, 『중앙고고연구』32,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정문수 외, 2014, 『해항도시 문화교섭 연구 방법론』, 선인.
- 정선운, 2022, 「加耶 港市の 成立과 展開」,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23a, 「가야지역 외래계 거주집단 연구」, 『가야사연구』2, 가야사학회.
- _____, 2023b, 「고고자료를 통해 본 가耶의 港市國家論」, 『한국고고학보』129,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4, 「고고자료를 통해 본 가야의 연안항로-항시국가론을 중심으로-」, 『도서문화』64, 목포대학교 도서관학연구원.
- _____, 2025, 「삼국시대 거제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한국상고사학보』130, 한국상고사학회.
- 정영호, 1968, 「사천 송지리 석상식고분군 발굴조사개요」, 『미술사학연구』98, 한국미술사학회.
- 조영제, 2004, 「古家墳 築造에서 보이는 왜계고분의 要素」, 『제10회 가야사국제학술대회』, 김해시.
- 川口洋平·村尾進, 2013, 「항시사회론-나가사키의 광주-」, 『해역아시아사연구』입문, 민속원.
- 최경규, 2025, 「加耶의 港市와 昌原 石洞遺蹟-金官加耶의 港市國家 體制와 昌原 石洞遺蹟의 外港的 位相」,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專修大學 학술교류협정체결 10주년 기념 합동 학술심포지엄』,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 황상일 외, 2009, 「고김해만 북서지역의 Holocene 후기 환경변화와 지형발달」, 『한국지형학회지』16, 4, 한국지형학회.
- 홍보식, 2011,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 일문 -

- 菊池誠一·坂井隆 外, 2021, 『港市·交流·陶磁器-東南アジア考古学研究』, 菊池誠一先生·坂井隆先生退職記念論文集, 株式会社雄山閣.
- 高田貴太, 2018, 「5, 6世紀朝鮮半島西南部における「倭系古墳」の造営背景」,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11,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_____, 2019, 「5世紀の朝鮮半島西南部における竪穴式石室・竪穴系横口式石室の構造」,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17,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大林太良, 1987, 『海をこえての交流』, 中央公論社.
- 朴天秀, 2003, 「榮山江流域と加耶における倭系古墳の出現過程とその背景」, 『熊本古墳研究』1.
- 生田滋, 1966, 『東方諸国記』大航海時代叢書5.
- 石井米雄·辛島昇·和田久徳, 1992, 『東南アジア世界の歴史的位相』, 東京大学出版会.
- 坂井隆, 2002, 『港市国家・バンテンと陶磁貿易』, 同成社.
- 家島彦一, 2006, 『海域から見た歴史-インド洋と地中海を結ぶ交流史-』, 名古屋大学出版会.
- 日高慎 外, 2024, 『古墳時代の交通と流通』,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いわき市教育文化事業団, 2001, 『荒田目条里遺跡』いわき市埋蔵文化財調査報告75, いわき市教育委員会.

- 영문 -

- Karl Polanyi, 1963, Ports of Trade in Early Societie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23.
- Kathiritamby-Wells, J. · Villier, John, des. 1990, *The Southeast Asian Port and Polity: Rise and Demise*. Kuala Lumpur OUP.
- O. W. Wolters, 1999,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Cornell University Press, Southeast Asia Program Publications at Cornell University.

A Theoretical Review of Port City Theory and Port Markets in Gaya

Jeong, Seon-Woon(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observation that, in recent research on Gaya history and maritime exchang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concept of port market (港市) has been widely applied in advance of a clear theoretical definition.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define port markets primarily on the basis of locational conditions or the presence of a limited range of foreign-origin artifacts, while lacking systematic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al stages—from anchorage to trading place, port market, and port-polity—as well as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port markets themselves.

In response, this paper reviews the accumulated discussions of Port-Polity Theory (港市國家論) derived from case studies in Southeast Asia, the Indian Ocean,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reorganizes the concept, structure,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the port market. The core ele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 nodal location linking maritime routes, waterways, and inland regions; (2) the concentration of foreign-origin materials and multidirectional cultural interactions; (3) a political authority that organizes and controls exchange; and (4) a port network structure integrating trading places, port markets, and their hinterlands.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leo-Gimhae Bay, Geoje Island, and Sacheon within the Gaya region demonstrates clear differentiation. The Paleo-Gimhae Bay exhibits a systematic integration of central

place, outer port, and hinterland, alongside a dense accumulation of foreign elements, closely corresponding to the structure of a port polity. In contrast, the Ajou-dong site on Geoje Island shows diverse foreign influences but lacks political centrality, and is therefore best understood as a trading place. The Sacheon area reveals evidence of limited exchange activities, yet the scarcity of foreign elements makes it insufficient, at present, to be interpreted as a port market.

By reexamining the concept of Port-Polity Theory and presenting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tegrates theory with material cultu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irmer conceptual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maritime exchange through the lens of port-polity studies.

Key words : Port Node, Port of Call, Trading Place, Port City, Port City Theory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과 등장 배경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Emergence Background of Koguryo(style) Pottery
Excavated from Baekje Sites of the Hanseong-
Ungjin Period

이명헌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II.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III.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

IV.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 검토

V. 맺음말

국문 요약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각축을 시작하였다. 양국은 오랜 기간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졌고, 본고에서는 그 사례 중 하나로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에 주목하였다. 다만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계) 토기의 해석 및 편년 문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의 구분 시도하는 한편 그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그 등장 배경을 검토하여 한성~웅진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한성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전라북도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었고, 한성기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주거지와 수혈에서 재지계 토기와 함께 출토되어 현지인이 실생활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재지계 토기에 중호문·파상문·점열문·암문 등과 같은 고구려 토기 문양 요소를 차용하여 제작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한편으로는 고구려 토기 태토에서 확인되는 산화철 성분이 확인되는 등 제작기법과 형태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한 토기들도 확인되고 있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모든 토기가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광개토왕의 남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대체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엽 이후로 편년되는데 이 시기가 광개토왕의 남진기와 겹치며, 출토 지역도 광개토왕의 남진 경로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광개토왕의 한성 공격이 백제 내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 여파로 한성기에 고구려(계)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웅진기에는 양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되어 고구려(계) 토기의 수가 매우 적게 확인되며, 부여지역과 그 외 지역인 서천·고창 등에서 출토되었다. 부여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체로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되는 반면 그 외 지역, 특히 서천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제작기법과 형태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하여 고구려 도공이 제작한 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부여 출토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당시 사비도성 개발을 위해 투입된 고구려 포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반면 부여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는 옹관으로 사용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동시기 한강 이남의 舊백제 지역에서 조성된 고구려 옹관의 사례를 볼 때 당시 인접했던 고구려 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옹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 고구려, 백제, 고구려 토기, 고구려계 토기

I . 머리말

다들 잘 알다시피 고구려와 백제는 오랜 기간 각축을 벌여왔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세력을 이끌고 남하하여 비류는 미추홀에, 온조는 위례성에 자리를 잡고 십제를 건국한다. 또한 고구려 미천왕이 4세기 초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313~314)하면서 국경을 맞대었고, 이후 369년 고국원왕이 백제의 치양을 공격하면서 양국의 각축이 시작된다. 양국의 각축은 점차 심화되어 371년에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사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진다.

백제에게 커다란 치욕을 받은 고구려는 광개토왕 때 반격을 시작하는데,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낸다. 이후 장수왕 때 백제에 대한 공세가 절정에 이르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장수왕은 475년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개로왕을 아단성 아래에서 살해한다. 이로 인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다. 장수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대전 지역까지 남하하며 백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

이렇듯 고구려와 백제의 적대 관계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대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교류는 이루어졌고, 백제 한성기에 조성되는 적석총이나 사비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 등은 고구려-백제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예다(이명현 2025b: 103). 특히 사비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라 불릴 만큼 다종다양한 토기들이 등장하고 있다(이명현 2021, 2022).

그러나 최근 백제 한성기와 웅진기에도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기 자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비기와 마찬가지로 한성기와 웅진기에 이루어졌던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교류의 일면을 추론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보고서에 ‘고구려계 토기’로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 중 뚜렷한 해석이 되지 않는 토기들은 ‘고구려의 남진과 관련 있는 자료’로 여겨지며 5세기 중 후반이라는 대략적인 연대로 편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백제 내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의 성격 규명에 대한 연구는 미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 구분의 어려움은 관련 자료의 애매함을 부추겨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의 구분을 시도하는 한편, 한성~웅

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는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 등장 배경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편적이지만 각 시기별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교류 양상 복원에 미약하나마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Ⅱ. 한성 ~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1. 고구려계 토기에 대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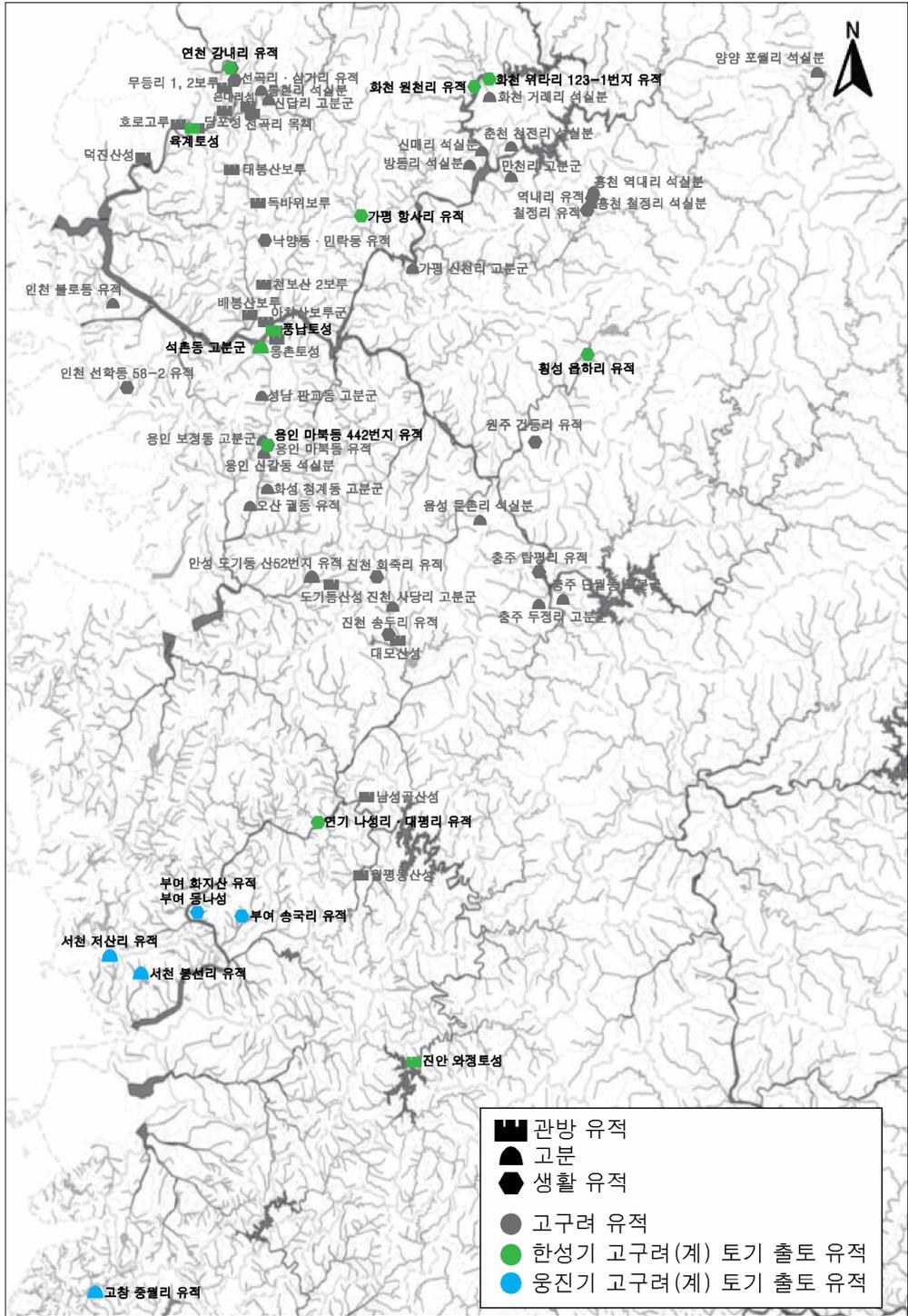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고구려계 토기’가 무엇인지, 고구려 토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구려 토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고구려 토기는 ‘고구려의 영역 안에서 제작·사용된 토기’를 말한다(최종택 1998: 10). 해당 정의는 고구려 토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위의 정의를 엄격하게 따르면 ‘고구려 영역 안에서 고구려 도공이 제작한 토기’ 자체는 고구려 토기라 부를 수 없고, 여기에 ‘고구려 영역 안에서 사용까지 한 토기’라는 조건이 더해져야 고구려 토기라 부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고구려 영역 안에서 고구려 도공이 제작한 토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토기를 고구려 토기라 부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제 주거지에서 백제 토기와 함께 사용되었고, 형태·제작기법·문양 등이 고구려 토기와 일치하는 토기는 어떠한 명칭을 부여해야 할까? 고구려 토기?, 고구려계 토기? 그렇다고 수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기에 대해 ‘고구려계 토기’라 칭하기에는 후술할 고구려계 토기의 개념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외에도 형태·제작기법·문양 등이 고구려 토기와 일치하지만 출토 정황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토기의 명칭이 애매해진다.

위의 정의를 ‘제작 and 사용’이 아니라 ‘제작 or 사용’으로 해석하더라도 혼란은 발생한다. 이 경우 고구려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타국의 토기들이 모두 고구려 토기가 되고, 위에서 예로 들었던 백제에서 수입한 고구려 토기는 백제 토기가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기존 고구려 토기 정의에서 ‘사용’을 제거하고, ‘고구려 영역 안에서 고구려 사람이 제작한 토기’를 고구려 토기라 정의하고자 한다.



[도면 1] 백제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 출토 유적 분포도(이명현 2025: 104, 그림 1 수정 후 인용)

타국에서 고구려 토기를 수입하여 사용했다라도 그 토기는 고구려 토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결론적으로 토기의 사용처와는 상관없이 제작지와 제작자가 모두 고구려라는 국가에 속해 있을 때 ‘고구려 토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개념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고구려계 토기’란 무엇일까? 양시은(2011)은 고구려계 토기에 대해 ‘고구려가 아닌 백제나 신라와 같은 다른 나라의 장인에 의해 모방 제작된 토기’로 판단하였다. 즉 고구려 소속이 아닌 도공이 고구려 토기의 형태나 문양 요소, 제작기법 등을 모방하여 제작한 토기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도공이 고구려 토기를 모방하여 제작하였다면 토기의 형태·제작기법·문양 등이 고구려 토기와 차이를 보일 것이며, 연구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제작자가 고구려인인지 아닌지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 토기의 정의를 고려하여 두 가지 요소(제작자·제작지)가 모두 고구려 토기라 부르기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제 자료를 보고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백제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원형 혹은 기형 파악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토기가 출토되어야 하며, 출토 정황 역시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출토된 토기에 대상파수·중호문·점열문·파상문·암문 등의 고구려적인 요소가 확인되어야 ‘고구려계’라는 논의가 가능하다. 고구려 토기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인 평저·니질 태토 등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야 고구려계로 논의가 가능하며, 편으로 출토되었다면 사실상 제작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를 구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고구려적 요소를 가진 토기에 대해서는 고구려 토기 혹은 고구려계 토기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단어가 혼용되는 상황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작 주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형태·제작기법·출토 정황 등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나마 양자를 구분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토기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본 논문의 목적이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 모두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고구려(계) 토기’라는 이중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서술하는 과정

에서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에 대한 구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백제 한성기에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파주 육계토성, 연천 강내리, 가평 향사리, 용인 마북동 442번지,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군, 연기 나성리·대평리, 화천 원천리·위라리 123-1번지, 횡성 읍하리, 진안 와정토성 등이 있다.

[표 1] 백제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 출토 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출토 유구	유구 성격	수량	기종
1	파주 육계토성	96-7호 주거지, 한양-1호 주거지, 한양-2호 주거지	생활	10	사이옹, 양이부호, 구형호, 동이, 옹, 호 등
2	연천 강내리	36호·39호·56호·59호·70호 주거지, 55호 수혈유구, 8호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	생활·분묘	10	구형호, 동이, 시루, 옹, 호, 단경호 등
3	가평 향사리	가-11호 주거지	생활	1	호
4	용인 마북동 442	55호 수혈	생활	1	대합
5	풍납토성	다-18호 구상유구, 라-그리드, 나-142호 수혈, 라-105호 수혈, 라-15호 주거지, 라-42-2호 수혈, 마-그리드, 나-2호 주거지, 다-그리드, 다-11호 수혈, 다-6호·18호 구상유구, 다-그리드, 마-1호 건물지	생활	21	동이, 옹, 호, 직구호, 대상파수부 뚜껑, 대상파수편 등
6	석촌동 고분군	5호분 남쪽, 좁석봉토분, 목관묘	분묘	3	단경호
7	연기 나성리	수혈유구(KK-030)	생활	1	구형호
8	연기 대평리	B지점-수혈주거지(KC-082), D지점-굴립주 건물지(KJ-002), 수혈유구(KK-204·339)	생활	4	직구호, 대상파수부편
9	화천 원천리	33호 주거지	생활	2	대상파수부 뚜껑
10	화천 위라리 123-1	삼국시대 1호, 5호, 13호 주거지	생활	6	양이부호, 동이, 대상파수부편
11	횡성 읍하리	삼국시대 4호 주거지	생활	1	단경호
12	진안 와정토성	5호 주거지	생활	1	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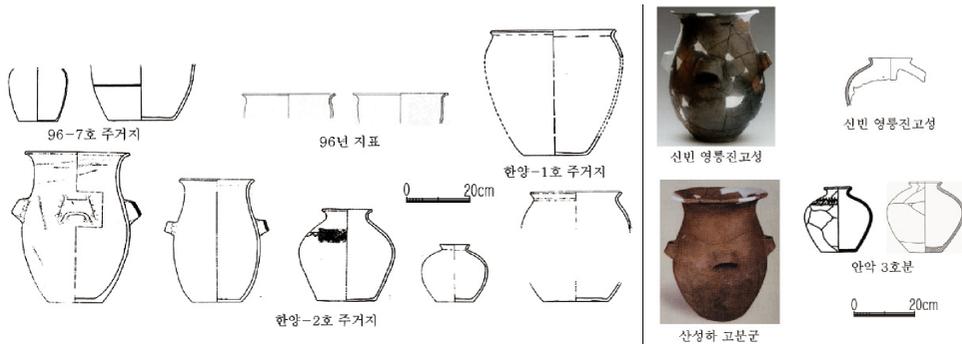
1) 파주 육계토성

파주 육계토성에서는 1996년 경기도박물관과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이루어진 긴급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및 지표에서 고구려 토기들이 출토되었다(경기도박물관

관·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해당 토기들은 모두 고구려 토기와 형태 및 제작기법이 동일하여 교류에 의해 유입된 고구려 토기로 판단되며, 주거지 내에서 재지계 토기들과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현지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계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 중 사이옹과 양이부호의 경우 4세기대 유적인 신빈 영릉진고성과 집안 산성하교분군 등에서 동일한 형태의 토기가 확인되었고, 구형호의 경우 무덤 내부의 묵서명을 통해 357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안악 3호분 출토품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들 토기는 4세기 중·후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이명현 2024: 164~165).



[도면 2] 파주 육계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 및 비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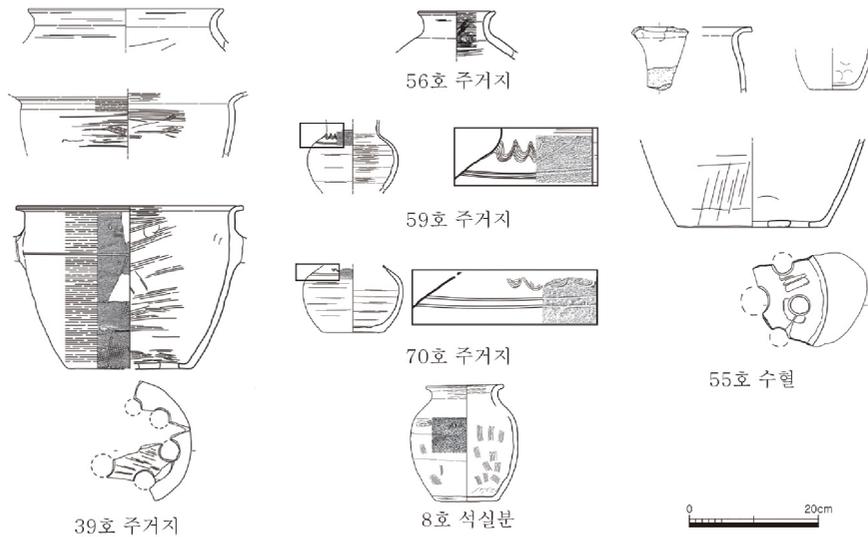
2) 연천 강내리 유적

연천 강내리 유적(고려문화재연구원 2012)에서는 36호·39호·56호·59호·70호 주거지, 55호 수혈유구, 8호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59호·70호 주거지 출토품의 경우 기형은 고구려 토기는 아니지만 고구려 문양요소를 차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9호 주거지 출토 시루의 경우 기면에 타날흔이 관찰되어 일반적인 고구려 토기와 제작기법에 차이가 있다.

위의 토기들은 대체로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문양이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토기에는 타날흔이 확인되어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¹⁾ 경질무문토기나

1) 보통 고구려 토기에서 확인되는 타날흔은 고구려가 남진 시 토기 제작에 흙백제 도공을 참여시킨 결과로 해석된다(양시은 2023: 23). 다만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강내리 유적을 비롯한 몇몇 백제 한성기 유적은 고구려 영토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논란이 있고, 출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흙백제 도공을 토기 제작에 참여시킨 결과로 해



[도면 3] 연천 강내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이명현 2025: 106, 그림 3)

타날문토기 등과 함께 출토되어 현지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고자는 주거지의 연대를 주거지의 중복 관계 및 평면 형태, 외반구연옹의 동최대경 위치, 단경호의 형태, 외래계 유물,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 등을 종합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1단계는 2세기 후반, 2단계는 2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반, 3단계는 4세기 중후반, 4단계는 4세기 후반 이후로 편년되며,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각각 2단계(56호·59호·70호), 4단계(39호 주거지)에 해당된다.

강내리 유적 주거지에 대한 편년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하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주목 되는 것은 강내리 유적 옆에 조성된 고구려 횡혈식 석실분이다. 주거지 내에서 고구려계 토기도 확인되는 만큼 석실분들은 분명 취락유적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연대가 상이하어 문제가 있다.²⁾ 다만 역사적 맥락상 강내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적 요소들은 최소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을 멸망(313~31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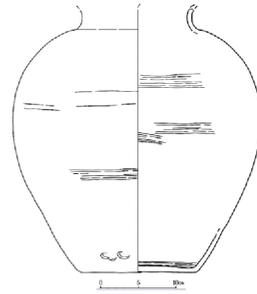
석하기에도 어색함이 있다. 따라서 해당 토기들이 고구려의 남진에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현지 도공이 고구려 토기 요소를 차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8호 석실분에서 출토된 구형호의 경우 타날흔과 A형 구연을 기준으로 5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고 있다(양시은 2014: 72). 부연 설명을 하자면 고구려 토기는 구연부 형태를 통해 대략적인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A형은 구연부가 거의 직선으로 외반하며 구단부를 등글게 처리한 것, B형은 직선으로 외반한 구연부의 말단이 각지게 처리된 것(이 경우 구단부 바깥쪽으로 침선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C형은 B형과 유사하지만 구단부 하단이 들리고 홈이 파진 것, D형은 구연부를 밖으로 말아서 접는 것이다(최종택 2020: 11). 이중 D형 구연이 6세기대 제작기법으로 판단되어 A·B형 구연보다는 늦은 시기의 형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킨 4세기 초 이후에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김준규 2013: 72)이므로 본고에서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의 시기를 백제 한성기로 판단하고자 한다.

3) 가평 향사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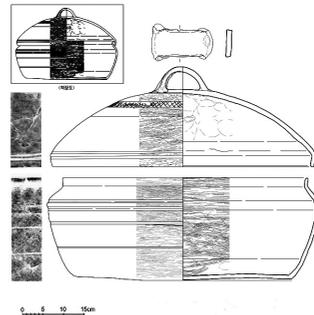
가평 향사리 유적에서는 가지점 11호 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와 함께 고구려계로 추정되는 니질 태토의 평저호 1점이 출토되었다(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이 토기는 완전한 평저를 이루는 고구려 토기와는 평저화 정도에 차이가 있어 백제 공인이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된다(양시은 2011: 118).



[도면 4] 가평 향사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4) 용인 마북동 442번지 유적

용인 마북동 442번지 유적에서는 55호 수혈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이 토기의 기종은 대합으로, 기종 자체는 고구려계라 보기 어렵지만 대상과수가 부착된 뚜껑도 함께 출토되어 고구려 토기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토기로 추정된다.³⁾ 또한 경질의 옹과 공반되었는데 해당 옹은 몽촌토성에서 많이 확인되는 기형으로 대략 5세기대로 판단된다(양시은 2011: 119). 다만 바닥에 타날흔이 확인되어 고구려 토기와는 제작기법에서 차이가 있다.



[도면 5] 용인 마북동 442번지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5) 풍납토성·석촌동 고분군

백제 한성기의 도성인 풍납토성과 백제 왕실의 묘역인 석촌동 고분군에서도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풍납토성(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2012b, 2013)의 경우 건물지 및 수혈 등에서 호·동이·대상과수편과 같은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된다.

3) 대상과수가 부착된 뚜껑 이외에도 해당 대합의 바닥이 일반적인 백제 토기와는 달리 완전한 평저를 이루고 있어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하기도 한다(양시은 2011: 119).

자세히 살펴보면 다-18호 구상유구와 라-그리드·나-142호 수혈에서는 형태나 제작기법에서 고구려 토기와 차이가 없는 동이·호가 출토되었고,⁴⁾ 라-105호 수혈 출토 용은 동체에 1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그 위아래로 한 쌍의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라-1호 구상유구 출토 단경호 구연부편과 라-2호 수혈 출토 동체부편에는 점열문+횡침선+중호문으로 조합된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 문양이 시문되었다. 다만 토기의 형태나 태토의 정선도가 높지 않은 점, 문양의 시문기법 수준이 영성한 점 등은 고구려 토기와 차이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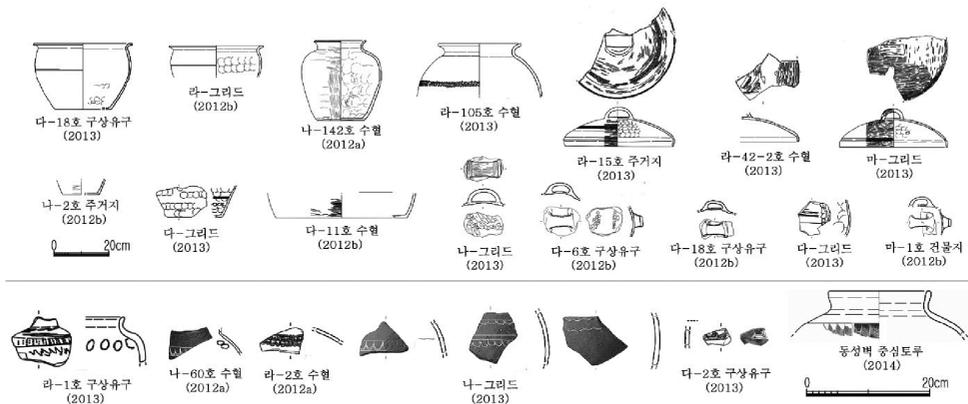
이외에도 라-15호 주거지·라-42-2호 수혈·마-그리드에서 대상파수부 뚜껑이 확인되었고, 나-60호 수혈 및 그리드·다-2호 구상유구에서는 파상문·중호문 등이 시문된 니질태토의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⁵⁾ 또한 나-2호 주거지·다-그리드⁶⁾·다-11호 수혈에서 저부편, 나-그리드·다-6호 및 18호 구상유구·다-그리드·마-1호 건물지에서 대상파수편이 출토되었다.



[사진 1] 풍납토성 동성벽 중심토루 출토 토기에 시문된 중호문 세부 모습(©필자 촬영)

그리고 성벽에서도 중호문이 시문된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14). 해당 토기는 호의 구연부편으로 동성벽 중심토루 내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문양의 시문 방법이다. 해당 토기에 시문된 중호문은 도구를 이용해 긁어내듯 시문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문 방법은 고구려 토기에서 주로 4세기대에 확인된다(이명현 2025a: 15). 특히 영릉진고성 출토 직구호(4기 후기, H 14호)와 국내성 출토(양식국숙사 지점-2000GLT2 4층) 직구호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양을 시문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그 시기를 어렵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

4) 해당 토기들을 포함한 풍납토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 도면에는 박자흔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건한 결과 내외면의 정면이 비교적 꼼꼼하게 이루어져 박자흔은 관찰하지 못하였다.
 5) 나-그리드에서 출토된 동체부편(1351번)은 암문이 있는 고구려계 토기로 보고되었지만 토기의 태토나 색조, 정면흔을 살펴보았을 때 고구려(계) 토기라 확신할 수 없어 본문에서는 제외하였다.
 6) 다-그리드 출토 저부편(1443)은 보고서에 고구려계 토기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태토, 소성도, 제작기법 등을 토대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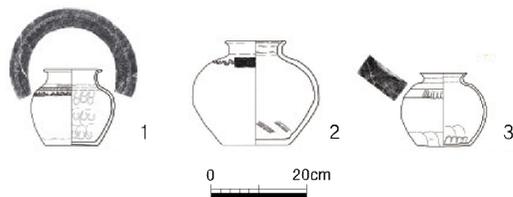
[도면 6] 풍납토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

라 생각된다.⁷⁾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풍납토성에서는 고구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고구려 토기의 문양이나 대상파수 등의 요소를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계 토기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 다만 편으로 출토된 것들은 정확한 제작 주체를 추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판단을 보류하고자 한다.

한편 석촌동 고분군에서도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해당 토기들은 한성백제 박물관(2019)에서 조사한 3호 목관묘와 1970~80년대에 발굴조사한 증석봉토분과 증석봉토분과 5호분 남쪽에서 수습되었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14, 2015).

해당 토기들은 일반적인 고구려 토기의 형태는 아니며, 각각 견부에 파상문, 중호문, 점열문+횡침선+중호문이 시문되어 있으므로, 고구려 토기의 문양 요소를 차용하여 백제 도공이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된다.



[도면 7] 석촌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계 토기
(1. 3호 목관묘, 2. 증석봉토분, 3. 5호분 남쪽 수습)

7) 해당 토기에 대해 '낙랑 출토 물결무늬 토기'를 근거로 중국 군현계 토기일 가능성이 거론(박순발 2013: 128~131)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언급하였듯 '낙랑 출토 물결무늬 토기'는 현재 도면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토기가 군현계 토기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도면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옛 중국 군현 지역에 중호문이 시문된 토기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현시점에서 풍납토성 동성벽 중심토루 출토 중호문 토기는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6) 연기 나성리·대평리 유적

연기 나성리 유적(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서는 백제 한성기에 해당되는 대규모 생활유적이 확인되었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5). 고구려계 토기는 수혈유구(KK-030)에서 타날문토기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B형 구연이나 타날흔을 물손질로 지운 것 등의 제작기법적 특징이 관찰된다.

연기 대평리 유적에서는 B지점(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04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혈주거지(KC-082) 동쪽 벽면에서 타날문토기와 함께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해당 토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구려 토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형이지만 니질 태토 및 검은색 색조, 기면에서 타날흔이 보이지 않는 것 등이 고구려 토기의 제작기법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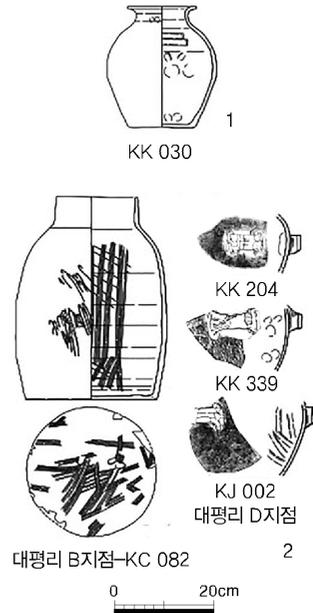
대평리 유적 D지점(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92-1번지 일원)에서는 굴립주 건물지(KJ-002)와 수혈유구(KK-204·339)에서 대상과수가 부착된 동체부편 3점이 출토되었는데, 동체부에 타날흔이 그대로 남아 있다.

위 토기들은 형태·제작기법·출토 정황으로 볼 때 백제 한성기에 현지 도공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7) 화천 원천리·위라리 유적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는 33호 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흑색마연토기와 함께 대상과수부 뚜껑 2점이 출토되었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다만 고구려 뚜껑과 달리 과수의 폭이 얇으며 부착 방식에 차이가 있고, 비교적 크기도 작아 백제 공인이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보인다(양시은 2011: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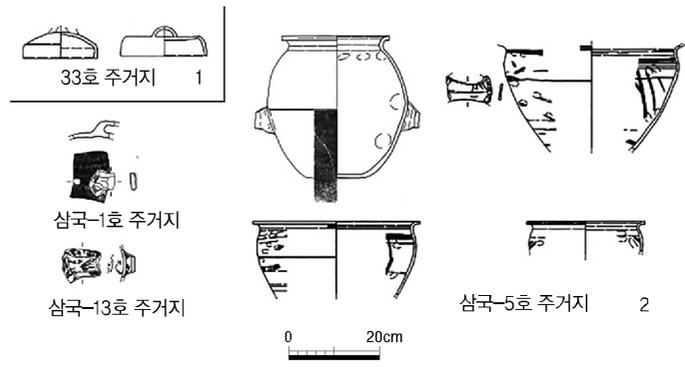
주거지의 연대와 관련해서 보고자는 노시설, 주축방향의 변화, 중복관계, 공반유물 등을 기준으로 삼아 I, II-1, II-2, III 단계로 구분하였다.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33호 주거지는 II-2단계에 해당되며, 기존 한성양식 백제 토기의 편년안과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와 고고지자기연대측정치 등의 절대연대 자료를 고려했을 때 4세



[도면 8] 연기 나성리·대평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1. 연기 나성리, 2. 연기 대평리)

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파악하였다.

33호 주거지(묘자형)와 같은 중도 유형 주거지의 경우 연구자간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시간에 따라 평면 형태가 방형·오각형 → 오각형·육각형 → 육각형 → 원



[도면 9] 화천 원천리·위라리 123-1번지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1. 화천 원천리 유적, 2. 화천 위라리 유적)

형·방형 순으로 변화하고, 부뚜막은 노지 → ‘ㄱ’자형 쪽구들+노지 → ‘一’자형 부뚜막+노지 → ‘一’자형 부뚜막 순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의 면적이 점차 장단비 1:1에 가까워지고, 주혈의 간격이 벽을 따라 촘촘하게 배치되며, ‘一’자형 구들의 경우 후벽 중앙에서 우후벽 쪽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다(송만영 1999, 2024 ; 김준규 2013 ; 한지선 2013 ; 이성주 2015; 박경신 2019). 이를 고려한다면 33호 주거지의 평면 형태가 육각형에 장단비 1.15:1로 정육각형에 가까운 점, 우후벽에 ‘一’자형 부뚜막이 위치하는 점, 주혈이 촘촘하게 배치된 점 등 대부분의 요소가 중도 유형 주거지 중에서도 비교적 늦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보고자가 제시한 주거지의 연대를 수용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화천 위라리 123-1번지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1호 주거지에서 대상과수가 부착된 동체부편 1점, 5호 주거지에서 양이부호 1점·동이 3점,⁸⁾ 13호 주거지에서 대상과수 1점이 출토되었다(한국문화재단 2017).

1호 주거지 출토 동체부편에는 3줄의 파상문-횡침선-1줄의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고구려 토기에서 파상문이 시문된 경우는 있지만 해당 토기와 같은 구성으로 시문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된다.

5호 주거지 출토 양이부호의 경우 고구려 토기에서는 드문 난형의 동체에 대상과수가 부착되어 있으며, 저부는 원저에 가까운 말각평저로 외면에 격자 타날흔이 확인되어 특징적이다. 양이부호의 동체 형태나 타날흔으로 보아 재지계 토기에 대상과수

8) 동이 3점 중 2점은 시무(267, 268)로 보고되었지만 저부가 결실되어 증기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이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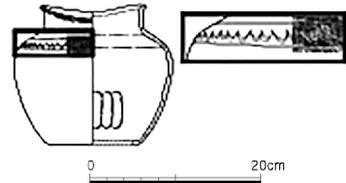
를 부착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된다. 5호 주거지 출토 동이의 경우 3점 모두 B형 구연에 타날흔은 확인되지 않으며, 대상파수가 부착된 개체도 있다. 이들 동이는 기형과 제작기법 모두 고구려 토기와 차이가 없으므로 고구려 토기로 잠정하고자 한다.

한편 보고자는 주거지의 연대에 대해 평면 형태 및 취사·난방시설과 유물 조합상을 기준으로 주거지를 3단계로 구분하였고, I기는 4세기 후반~5세기 초반, II기는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반, III기는 6세기 중반 이후로 파악하였다. 이에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1호 주거지는 III기, 5호 주거지는 II기, 13호 주거지는 I기로 편년된다.

그러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층서적으로 주거지의 선후관계를 정하기에는 주거지 간 중복관계가 거의 없고, 주거지별 출토 유물의 양상도 유의미한 시기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유적의 주거지 연대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출토 양상으로 보아 현지인들이 고구려계 토기를 사용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2·4·5·7호 주거지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의 최외곽 연대가 5세기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본다면 화천 위라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는 웅진기 이전에 고구려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8) 황성 읍하리 유적

황성 읍하리 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4)에서는 삼국시대 4호 주거지에서 단경호가 출토되었다. 해당 토기는 일반적인 고구려 토기의 형태가 아니고 견부에 중호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 문양 요소를 차용하여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된다.



[도면 10] 황성 읍하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4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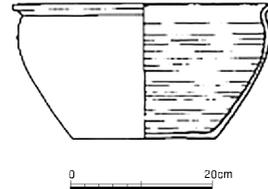
4호 주거지의 연대에 대해서 보고자는 주거지의 중복양상, 평면 형태, 노시설의 변화, 등자와 절축의 편년, 출토 토기의 양상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이 4세기를 상회할 수 없을 것이라 파악하였고,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의 최외곽 연대를 고려하여 그 하한은 5세기 전엽으로 잠정하였다. 4호 주거지의 평면 형태가 정육각형에 가깝고, ‘一’자형 부뚜막이 결합된 점, 출토 유물군(타날문 심발, 장란형 토기, 타날문 취사용기, 단경호 등)의 양상이 앞서 언급한 화천 원천리 유적의 33호 주거지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고자의 편년안을 수용하고자 한다.

9) 진안 와정토성

진안 와정토성(군산대학교박물관·전북대학교박물관 2001)에서는 5호 주거지에서 동이 1점이 출토되었다. 와정토성은 백제가 지방통치를 위해 교통의 요지에 축조한 성으로(곽장근 2011: 87) 한성기에 초축되어 7세기 무렵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이다.

이혁희(2014)는 와정토성 내 출토된 토기와 유구들 간의 중복관계를 검토하여 성의 운영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I기는 4세기 말~5세기 초에서 5세기 중엽 이전, II기는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1/4분기, III기는 6세기 2/4~7세기 초로 편년하였다. 특히 성의 기초성토부에 해당하는 ‘불탄흙’이 나-10Pit 선행 구들유구를 덮고 있는 양상으로 보아 5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성이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였고,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된 5호 주거지는 성벽 축조 이전인 I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와정토성 출토 동이는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고구려 토기 제작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굽은 사립과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태토를 사용했다는 보고서의 서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고구려계 토기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판단은 보류하고자 한다.



[도면 11] 진안 와정토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5호 주거지)

3.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고구려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며 백제

[표 2] 백제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 출토 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출토 유구	유구 성격	수량	기종
1	부여 화지산	I기 문화층	미상	1	동이
2	부여 송국리	75-59지구	미상	1	장동호
3	부여 동나성	2Tr. 성벽 아래 선행유구층	미상	1	동이
4	서천 저산리	6-1지점 3호 옹관묘, 6-1지점 2호 소형 구덩이, 6-1지점 A호 봉토분 4호 석곽묘 배장 옹관, 6-3지점 4호 저장구덩이 상부	분묘	4	양이부호, 장동호, 옹 등
5	서천 봉선리	3-1구역 8호 석곽묘	분묘	1	양이부호
6	고창 중월리	석관묘	분묘	1	직구호

를 압박하였다. 양국의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웅진기에는 고구려(계) 토기의 출토량이 많지는 않으며 관련 유적으로는 부여 화지산·송국리·동나성, 서천 저산리·봉선리, 고창 중월리 유적 등이 있다.

1) 부여 화지산·송국리 유적

부여 화지산 유적에서는 1기 문화층에서 동이 1점이 확인되었다(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형태나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고구려 토기의 요소이지만 고구려 토기에서는 드문 회청색의 색조와 석립이 혼입된 태토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하고자 한다.

해당 유적에서는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1기는 사비기 이전 문화층으로 파악되었고, 2기 문화층은 굴립주 건물지에 잔존하는 목주를 위글매칭한 결과 최외곽 연대가 515년~550년으로 확인되어 그 연대가 6세기 2/4~6세기 3/4분기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르면 1기 문화층 출토 동이는 늦어도 웅진기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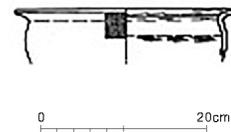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는 75-59지구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권오영 1991). 해당 토기는 외면에 타날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장동호를 모방해서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되며, 고구려 토기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2] 부여 화지산·송국리 유적 출토 고구려계 토기
(1. 부여 화지산 유적 1기 문화층, 2. 부여 송국리 유적 75-59지구)

2) 부여 동나성

부여 동나성에서는 성벽 하부 문화층(2Tr. 성벽 아래 선행유구층)에서 동이 구연부편 1점이 확인되었다(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해당 동이는 니질 태토로 제작된 점,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 고구려 토기 제작기법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며, 기형 역시 고구려 동이와 동일하여 고구려 토기로 판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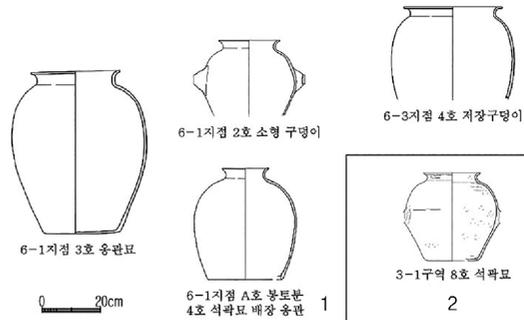


[도면 13] 부여 동나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 (2Tr. 성벽 아래 선행유구층)

한편 해당 동이는 성벽보다 선행하는 유구에서 출토되어 성벽의 축조 상한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부여 나성은 일반적으로 백제가 사비로 천도(538)하기 이전에 이미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성현화 2021)되기 때문에 해당 동이 구연부편은 늦게 보아도 6세기 전엽이 하한일 것으로 보인다.

3) 서천 저산리·봉선리 유적

서천 저산리 유적에서는 6-1지점 3호 옹관묘에서 옹 1점, 6-1지점 2호 소형 구덩이에서 양이부호 1점, 6-1지점 A호 봉토분 4호 석곽묘 배장 옹관에서 장동호 1점, 6-3지점 4호 저장구덩이 상부에서 옹 1점이 확인되었다(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해당 토기들은 고구려 토기와 형태 및 제작기법이 동일하여 유입된 고구려 토기로 추정된다.



[도면 14] 서천 저산리·봉선리 출토 고구려 토기
(1, 서천 저산리 유적, 2, 서천 봉선리 유적)

해당 토기들이 출토된 유구에 대해 보고자는 유적의 분기 중 제Ⅱ-③단계(5세기 4/4분기)에 6-1지점 3호 옹관묘, 6-1지점 A호 봉토분 4호 석곽묘 배장 옹관이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호 소형 구덩이와 6-3지점 4호 저장구덩이는 대전 월평동 유적과 부여 진변리 유적의 저장 구덩이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6세기 중엽~7세기 중엽으로 판단하였다.

3호 옹관묘 출토 옹과 4호 석곽묘 배장 옹관 출토 장동호의 경우 5세기대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 제작기법⁹⁾이 사용되었고 전체적인 기형이 고구려 토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고자의 편년 안을 수용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호 소형 구덩이 출토 양이부호와 6-3지점 4호 저장구덩이 출토 옹의 경우 앞서 언급한 옹·장동호와 제작기법이 동일하고, 기형 또한 5세기대 고구려 토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고자의 견해와는 달리 옹진기로 편년할 수 있다.

서천 봉선리 유적에서는 3-1구역 8호 석곽묘에서 양이부호 1점이 확인되었다(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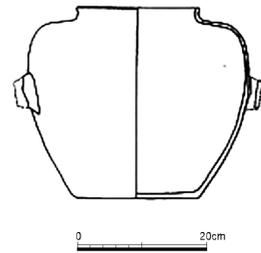
9) 5세기대 남한지역 고구려 토기는 앞서 언급하였던 A·B형의 구연부 형태를 비롯하여 경부의 형성 정도가 미약하고, 점열문·파상문·중호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며, 타날흔이 확인되는 등의 제작기법적 특징이 있다.

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5). 해당 토기는 기형과 A형의 구연, 동체 표면에 타날흔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제작기법이 5세기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하여 유입된 고구려 토기로 판단된다.

양이부호가 출토된 석곽묘에 대해 보고자는 봉선리 유적의 주요 묘제인 토광묘와 한동안 공존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석곽묘들의 연대를 5세기 이른 시기에서 6세기 초반으로 추정하였다. 고구려 양이부호의 경우 점차 최대경비가 커지고 편구화 되는데(이형호 2015; 이성욱 2020), 봉선리 유적 출토 양이부호는 6세기대 고구려 양이부호와 같이 완전한 편구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근 저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과 동시기로 추정된다.

4) 고창 중월리 유적

고창 중월리 유적에서는 석관묘에서 옹관으로 사용된 양이부호¹⁰⁾ 1점이 확인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4). 해당 토기는 일반적인 고구려 양이부호에 비해 건부가 발달해 있고, 구연의 외반도가 낮은 특징이 관찰된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직구호에 가까운 모습으로, 고구려 토기를 모방해 제작한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된다.



[도면 15] 고창 중월리 출토 고구려계 토기

한편 석곽묘 주변 유구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장관형토기나 직구과수부소호, 경부에 거치문이 시문된 옹관 등이 대부분이라 양이부호의 시기는 비교적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직구과수부소호의 과수형태가 한성~웅진기에 주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부호는 늦어도 웅진기에는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이명현 2021: 31).

Ⅲ. 한성 ~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

이상에서 백제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성기

10) 필자의 기존 논문(이명현 2021, 2022)에는 해당 토기를 직구호로 분류하였지만 해당 토기의 구연이 약하게 외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이부호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왕성이었던 풍납토성에서 출토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고구려와의 접경지역인 육계토성·연천 강내리 유적에서 10점 가량의 고구려(계) 토기가 각각 출토되었다. 이외의 유적에서는 소수(6점 이하)의 토기만 출토되었다. 또한 북으로는 연천 강내리에서 남으로는 진안 와정토성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서천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고, 이외에는 부여와 고창에서 소량의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본 장에서는 현황이 파악된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를 검토하여 각 시기별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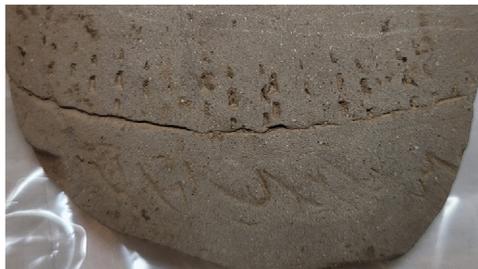
백제 한성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는 대체로 주거지나 수혈 등과 같은 생활 유구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고구려(계) 토기는 현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토기와 함께 실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분에서 출토된 것은 연천 강내리 유적의 8호 석실분 출토 구형호가 유일하며, 이 구형호의 경우 고구려 석실분에서 출토되었지만 제작지와 제작자가 모두 고구려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계 토기로 판단하였다.

제작기법의 경우 고구려 토기와 동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고구려계 토기는 고구려 토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 재지계 토기에 중호문·파상문·점열문·암문 등의 고구려 토기의 문양 요소를 차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구려 토기와 비교하여 시문기법의 수준에서 차이가 감지되며



고구려 토기 문양 세부(©강원고고문화재연구원)



고구려계 토기 문양 세부(©필자 촬영)

[사진 2]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 문양 비교

(사진 2), 화천 위라리-1호 주거지와 풍납토성-나-그리드 출토 토기편처럼 고구려 토기에서 흔하지 않은 구성으로 문양이 시문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한편으로는 용인 마북동 442번지·풍납토성·화천 원천리 유적 출토품처럼 뚜껑에 대상과수를 부착시켜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화천 위라리-5호 주거지 출토 양이부호처럼 재지계 토기에 대상과수를 부착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태토는 고구려 토기와 고구려계 토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되며, 특히 다-11호 수혈 출토 저부편과 나-그리드 동체부편의 경우 고구려 토기 태토에서 확인되는 붉은색의 산화철(Fe_2O_3) 성분(최종택 1995)이 관찰되기도 하여 고구려 토기와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3).

일부 토기에는 타날흔이 확인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구려 토기에서 확인되는 타날흔은 고구려가 남진 시 토기 제작에 현지 도공을 참여시킨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유적들이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구려 도공의 감독하에 제작된 토기가 아니라 고구려의 남진에 영향을 받아 현지 도공이 고구려 토기 요소를 차용하여 토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11호 수혈 출토 저부편(©필자 촬영)

나-그리드 출토 동체부편(©필자 촬영)

[사진 3] 풍납토성 출토 고구려(계) 토기에서 확인되는 산화철(Fe_2O_3) 성분

2.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특징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는 한성기와 비교하여 수량이 많지 않아 간략하게만 살펴 보자면 우선 부여 출토품과 그 외 지역 출토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여 출토품의 경우 대체로 화지산 유적·동나성과 같은 백제 사비기의 주요 시설 하부에서 확인되고, 송국리 유적 출토품과 같이 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출토 정황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여 이외 지역 출토품의 경우 대체로 웅관으로 사용되어 용도에 차이가 있다.

제작기법의 경우 부여 출토품의 기형은 고구려 토기와 유사하지만 타날흔이 확인되거나 태토가 니질이 아닌 사례가 있어 현지 도공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여 이외 지역 출토품은 고구려 토기와 기형과 제작기법이 동일하여 교류에 의해 유입된 고구려 토기로 추정된다.



석촌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 토기(©서울대학교박물관)

서천 저산리 출토 고구려 토기(©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사진 4] 고구려 토기와 백제유적 출토 고구려 토기 비교

한편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는 대체로 고구려 토기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후에 등장하는 사비기 고구려계 토기(이하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와는 차이가 확인된다. 물론 시기 차이도 있겠지만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의 경우 주로 생활에 사용되었고(이명현 2022: 47), 제작자가 백제 도공이기 때문에 표면에 타날흔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형 및 색조도 고구려 토기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문양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에서는 다양한 암문이 시문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¹¹⁾ 이러한 차이점은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와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의 성격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진 5]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에서 확인되는 타날흔과 암문(©필자 촬영)

11)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출토 수량이 적어 아직까지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발굴성과를 기대해본다.

Ⅳ.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 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성기에는 고구려(계) 토기가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출토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 북부-강원도-전라북도까지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 혹은 주변 수혈에서 백제(혹은 재지계) 토기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이 토기들 중에는 고구려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과 백제 토기에 중호문·과상문과 같은 고구려 토기 문양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가 확인된다. 후자의 사례를 통해 백제 한성기에 고구려 토기의 영향이 반영되어 토기가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웅진기에도 확인되지만 토기의 출토 수량이 훨씬 적고, 고구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는 부여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여 지역의 경우 화지산 유적·송국리 유적·동나성에서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출토되었고, 이외에는 서천과 고창에서 옹관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백제 도공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작된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 토기와는 용도·기형·색조·문양 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성격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위와 같이 파악한 한성~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현황 및 특징을 기반으로 한성~웅진기에 고구려(계) 토기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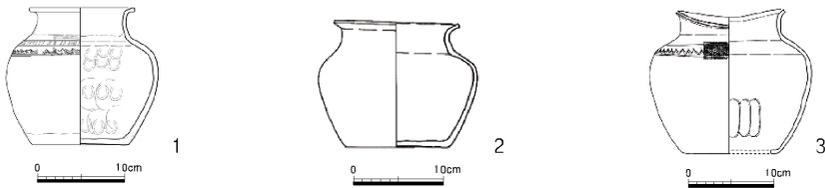
1.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기와 비율 그리고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가장 이른 시기(4세기 중후엽)로 추정되는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과주 육계토성 출토품이다. 육계토성 출토품은 제작 기법 및 형태 등을 통해 고구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출토 수량이나 범위 등으로 볼 때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4세기 무렵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교류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 및 확산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석촌동 고분군, 황성 읍하리 출토 토기가 주목된다.

현재 석촌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의 중심연대는 공반된 중국 자기가 4세기 중

후반에서 5세기 초엽으로 편년되어 4세기 후엽경으로 추정되고 있다(한성백제박물관 2019: 324). 특정 토기군의 중심연대를 개별 기종 편년에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석촌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계 토기(2호분 남쪽, 증석 봉토분, 3호 목관묘) 역시 이와 비슷한 연대로 추정된다. 이는 각 유적 출토 단경호의 형태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석촌동 고분군 3호 목관묘 출토 단경호의 경우 화천 원천리 유적(33호 주거지), 횡성 읍하리 유적(4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경호를 비교해 보면 그 형태적 유사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도면 16). 앞서 화천 원천리 유적에서 고구려계 토기(대상과 수부 뚜껑)가 출토된 주거지가 33호 주거지였고, 해당 주거지의 연대는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횡성 읍하리 유적의 4호 주거지 역시 4세기에서 5세기 전엽으로 편년되고 있다.



[도면 16] 각 유적별 출토 단경호의 형태 비교(이명헌 2025: 140, 그림 24)

(1. 석촌동 고분군, 2. 화천 원천리 유적, 3. 횡성 읍하리 유적)

결과적으로 세 유적에서 출토된 단경호는 비슷한 시간대에 제작되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이르면 4세기 후엽에서 늦으면 5세기 전엽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정확한 기종은 알 수 없지만 석촌동 고분군 1호분 주변에서 출토된 저부편과 동일한 기종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은대리성 북쪽 외벽 16구간에서 수습되어 주목된다. 은대리성 출토 고구려 토기의 경우 기존에는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양시은 2014)되었지만 최근 필자는 은대리성 출토 양이부호와 5세기 중후반으로 편년되는 다른 고구려 유적 출토 양이부호의 형태적 상이성에 의문점을 느껴 4세기 말~5세기 초라는 새로운 편년 안을 제시한 바 있다(이명헌 2024). 비교자료가 빈약하고, 해당 저부편이 고구려(계)토기인지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논리의 비약이 될 수 있겠지만 은대리성과 석촌동 고분군 출토 토기의 유사성 역시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 고구려계 토기의 본격적인 등장을 암시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도면 17] 은대리성·석촌동 고분군 출토 저부편 비교
(1. 은대리성 북쪽 외벽 16구간, 2. 석촌동 고분군-1호분 주변)

이처럼 석촌동 고분군 출토 고구려계 토기가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으로 비정된다면 접경지역 교류의 일환으로 유입된 과주 육계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를 제외하고,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연대를 가지거나 혹은 그 이후로 편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대체로 5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¹²⁾ 그 이남에 위치한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 역시 동일한 양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시기상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고구려의 세력 확장과 관련되어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후엽에서 5세기 전엽은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남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삼국사기』와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즉위 후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의 석현성 등 10성을 함락시켰고, 같은 해 10월에는 백제 관미성을 함락시켰다.¹³⁾ 또한 396년에는 백제의 58성 700촌을 공취하고 한성을 포위하여 백제 아신왕에게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는 항복을 받아낸다.¹⁴⁾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통해 당시 광개토왕의 세력 확장을 백제가 완벽히 막지 못

12) 나-60호 수혈은 삼국기·대부환·대부집시·진달린 집시·이배·기대·합·세 등과 같은 다양한 기종이 일시에 폐기된 정황이 포착되어 의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594), 공반된 상협하광형기대·세·이배 등은 5세기 전중반에 출현하는 기종으로 추정(한지선 2013)되어 나-60호 수혈 출토 고구려계 토기는 5세기로 편년될 수 있다. 또한 대상과수부 뚜껑이 출토된 라-15호 주거지의 경우 보고지는 한성 3기(4세기 말~5세기 전반)로 파악하였고, 중호문이 시문된 동체부편이 출토된 다-2호 구상유구가 층위상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해당 동체부편은 한성 2기(4세기 전반~후반)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과상문이 시문된 용이 출토된 라-105호 수혈의 경우 한성 최말기 유구로 편년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3)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광개토왕 2년(392).

14) 「광개토왕릉비」영락 6년(396), ‘……侵註 穴註 便註 圍註 城而註 殘主註 困逼註 獻註 男女生註 口註 一千人 細布千匹註 跪註 王自誓 從今以後永爲奴客太註 王恩教註 先 迷之愆註 錄其後順之誠於是得註 五十八城村七百將註 殘主註 弟註 并大臣十人旋師還都……’.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시 백제가 고구려의 영향권¹⁵⁾에 속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백제 내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고고자료 중 하나가 백제 한성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된다.

물론 광개토왕 남진의 흔적이 본문에서 언급한 유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광개토왕의 남진과 관련된 유적으로 파주 육계토성·연천 은대리성·원주 건동리 유적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명현 2024). 이러한 유적들과 함께 본문에서 소개한 화천 원천리·위라리 123-1번지·횡성 읍하리 유적 등도 광개토왕대에 이루어진 경자대 원정(400)의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유적들이 광개토왕의 남진과 관련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정리해보자면 광개토왕의 한성 공격은 백제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며, 이후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증가했음은 분명하다. 특히 4세기 후엽~5세기 전엽경 증가하기 시작하는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이러한 당시 정황을 반영하는 고고자료로 이해된다.

2.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는 한성기와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475년에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살해하자,¹⁶⁾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였고, 고구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전까지 남진하며 백제를 압박한다. 따라서 당시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적개심은 절정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양국의 관계로 인해 웅진기에는 소수의 고구려(계) 토기들만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그 수량이 적지만 크게 부여 지역 출토품과 그 외

15) 본문에서 언급하는 '영향권'이란 아래와 같은 장창은(2010)의 개념을 따랐다.

내용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개념	영역(영토)[직접지배]		세력권[간접지배]	영향권[지배×]
지배 형태	면지배 (지방관을 통한 행정지배)	선·점지배 (교통로를 통한 군사적 거점지배)	'타국'에 군사단 주둔 또는 공납 수취를 통한 지배	1~2단계로 인해 발생 · 파생된 문화적 범위
특징	독점적·배타적 공간. 타국세력 접근 방어		타국의 영역에서 정치·경제 · 군사적 의무관계 형성	정치·경제·군사적인 의무관계 형성×

16)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63년(475).

지역 출토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부여 지역 출토품을 보면 실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체로 사비도성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할 당시 이미 웅진기에 나성을 비롯한 도시의 제반 시설을 조성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순발(2005)은 웅진기에 저습지였던 사비 지역을 개발하고자 고구려 치하에 있었던 舊백제인들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로 동나성 하부 문화층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토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필자 역시 공감하는 바이며, 화지산 1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동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부여 궁남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출토(구상유구 4) 동이 등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당시 고구려와 백제는 각축을 지속하며 서로 포로를 잡아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⁷⁾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백제가 사비도성을 조성하기 위해 포로들을 활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포로들과 고구려계 토기를 직결시키기에는 그 연결고리가 미약하지만 소수의 고구려인 혹은 고구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소수 사비도성 내에서 활동한 결과가 부여에서 확인되는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일 것으로 잠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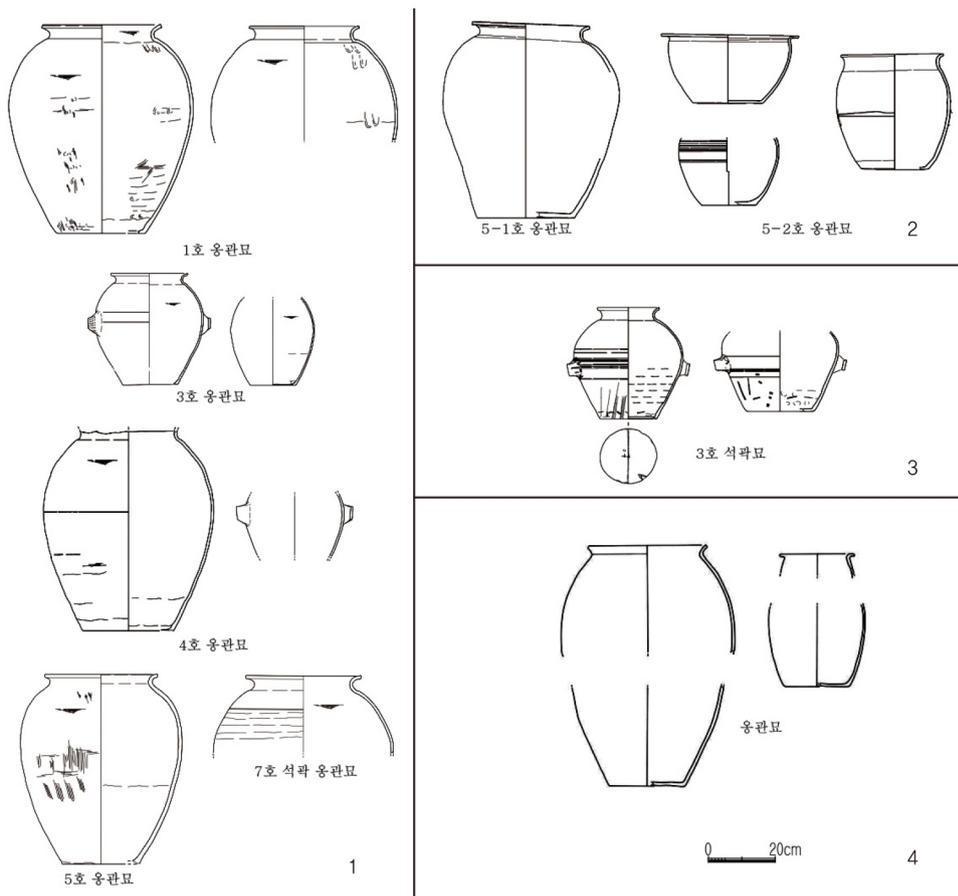
한편 부여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의 경우 옹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여 지역 출토품과는 기능상에 차이가 확인된다. 고구려(계) 토기가 옹관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475년 이후 한강 이남 舊백제 지역에서 고구려 토기로 옹관묘를 조성하는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한강 이남 지역인 석촌동 고분군 · 인천 불로동 유적 · 오산 궐동 유적¹⁸⁾ · 안성 동기동 산52번지 유적 등에서는 고구려 토기를 이용하여 조성된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17)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4년(482) · 무령왕6년(506),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21년(512) 등의 기사를 보면 고구려 · 말갈이 백제를 공격하여 포로들을 사로 잡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제는 고구려에게 대항하여 승리하였다는 기사만 확인되나, 이 과정에서 백제 역시 고구려인들을 포로로 확보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이명현 2022: 66).

18) 인천 불로동 유적 · 오산 궐동 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 옹관의 경우 통일신라~고려 석곽묘로 보고된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토기가 고구려 토기라는 주장(김진영 2023)이 제기되었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석곽묘들이 외따로 분포하고 있고, 출토 토기들이 제작기법(바닥면에 돌대흔 등) 및 형태적으로 고구려 토기와 동일하여 필자 역시 이들 토기를 고구려 토기로 판단하였다. 다만 김진영(2023)은 인천 검단지구 유적(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II-1지점 A구역 2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양이부호 역시 고구려 토기로 보았으나 위 두 유적과는 달리 석곽묘가 주변 통일신라 석곽묘군과 동일 선상에 조성되어 있어, 삼국통일 이후 고구려계 주민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옹관묘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인이 조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백제 한성이 함락된 이후 백제의 토기 유통체계가 붕괴되자 입수가 용이한 고구려 토기를 이용해 舊백제인들이 조성한 것으로 이해된다(양시은 2011: 111, 2014: 72). 이러한 해석은 옹진기에 백제 지역에서 고구려(계) 토기로 조성된 옹관묘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인접했던 고구려 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옹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도면 18] 한강 이남 고구려 옹관

(1. 석촌동 고분군, 2. 오산 결동 유적, 3. 인천 불로동 유적, 4.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유적)

19)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영세한 소규모 교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명헌 2022: 66).

V. 맺음말

이상으로 한성~웅진기 백제유적에서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성기에 확인되는 고구려(계) 토기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전라북도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었고, 한성기 백제의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구려(계) 토기가 확인되었다. 대부분 주거지와 수혈에서 재지계 토기와 함께 출토되어 현지인이 실생활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재지계 토기에 중호문·파상문·점열문·암문 등과 같은 고구려 토기 문양 요소를 차용하여 제작하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한편으로는 고구려 토기 태토에서 확인되는 산화철 성분이 확인되는 등 제작기법과 형태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한 토기들도 출토되고 있어 교류에 의해 유입된 개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광개토왕의 남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성기 고구려(계) 토기는 대체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이후로 편년되는데 이 시기가 광개토왕의 남진기와 겹치며, 출토 지역도 광개토왕의 남진 경로와 일치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광개토왕의 한성 공격이 백제 내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쳤고, 그 여파로 한성기에 고구려(계) 토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확산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웅진기에는 양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되어 고구려(계) 토기의 수가 매우 적게 확인되며, 부여지역과 그 외 지역인 서천, 고창 등에서 출토되었다. 부여에서 출토된 토기는 대체로 고구려계 토기로 추정되는 반면 그 외 지역, 특히 서천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제작기법과 형태가 고구려 토기와 동일하여 고구려 도공이 제작한 토기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웅진기 고구려(계) 토기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부여 출토 고구려(계) 토기의 경우 각 유적 문화층의 하층에서 출토되는 점과 실생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사비도성 개발을 위해 투입된 고구려 포로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반면 부여 이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는 옹관으로 사용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동시기 한강 이남의 옛백제 지역에서 조성된 고구려 옹관의 사례를 볼 때 당시 인접했던 고구려 지역에서 유입된 토기를 옹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투고일 2025. 12. 26 | 심사완료일 2026. 1. 26 | 게재확정일 2026. 2. 2

참고문헌

- 「광개토왕릉비」.
『삼국사기』.
- 경기도박물관·한양대학교박물관, 1999, 『과주 주월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2010, 『가평 향사리 유적』.
_____, 2012, 『연천 강내리 유적』.
- 곽장근,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63, 한국고대사학회.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a, 『풍납토성 X III』.
_____, 2012b, 『풍납토성 X IV』.
_____, 2013, 『풍납토성 X V』.
- 국립문화재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2014, 『풍납토성 X VII-성벽의 축조공법 및 연대 규명을 위한 학제간 융합 연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7, 『宮南池 III -南便一帶 發掘調査報告書』.
- 군산대학교박물관·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와정유적』.
- 권오영, 1991, 『松菊里 IV』, 국립중앙박물관.
- 김준규, 2013, 「중도식무문토기 상대편년 연구-경기 북부·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23, 「한강 수계 이남지역 고구려 수혈식묘제의 다양성과 특징」, 『승실사학』51, 승실사학회.
- 대동문화재연구원, 2019, 『仁川 黔丹地區 遺蹟 II』.
- 박경신, 2019, 「원삼국시대 중도유형 취락의 편년과 전개」, 승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발, 2005, 「高句麗와 百濟-泗水樣式 百濟土器의 形成 背景을 中心으로」,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박물관·고려사학회.
_____, 2013, 「백제, 언제 세웠나-고고학적 측면」, 『백제학연구총서 쟁점백제사 1-백제, 누가 언제 세웠나』, 한성백제박물관.
- 백제고도문화재단, 2018, 『부여 화지산 유적-2015~2016년도 2·3차 발굴조사』.
- 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서천 저산리, 수성리 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 2014, 『석촌동고분군 II』.
_____, 2015, 『석촌동고분군 III』.
- 성현화, 2021, 「백제 사비성벽의 축조양상과 의의」,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세종대학교박물관, 2016, 『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 송만영, 1999, 「中部地方 原三國 文化의 編年的 基礎」, 『한국고고학보』41, 한국고고학회.
_____, 2024, 「중도식 주거지의 취사 시설과 취사 용기의 변화」, 『승실사학』53, 승실사학회.
- 양시은, 2011,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10-2호, 중부고고학회.
_____,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46, 호남고고학회.
_____, 2023,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과 경영」, 『제23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백제의 한강 유역 회복과 고구려·신라』, 한성백제박물관.
- 예맥문화재연구원, 2013, 『화천 원천리 유적』.
_____, 2014, 『횡성 읍하리 유적』.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4, 『高敞 中月里 文化遺蹟調査報告書』.

- 이명현, 2021.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토기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22. 「고구려계 사비양식 백제토기의 형성 과정과 그 배경」, 『백제학보』39, 백제학회.
- _____, 2024. 「고구려 토기를 통해 본 연천 은대리성의 활용 연대」, 『상고사학보』123,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25a. 「토기를 통해 본 고구려의 신빈 영릉진고성 운영 기간」, 『한국고고학보』134,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5b. 「고구려계 토기의 전개 양상 및 특징」, 『백제 사비기 토기 문화와 고구려-백제학연구총서 쟁점 백제사 26』, 한성백제박물관.
- 이성욱, 2020. 「伍女山城의 年代와 性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주, 2015. 「風納土城 土器遺物群의 年代와 百濟土器 漢城樣式의 成立」, 『호남고고학보』49, 호남고고학회.
- 이희희, 2014. 「鎭安 臥亭土城의 構造와 性格 再檢討」, 『호서고고학』31, 호서고고학회.
- 이형호, 2015.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창은, 2010. 「『三國史記』 地理志 ‘高句麗故地’의 이해방향」, 『한국학논총』33.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3. 『烏山 關洞遺蹟』.
- 최종택, 1995. 「漢江流域 高句麗土器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8. 「高句麗土器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0.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유물」, 『고구려와 한강』, 한성백제박물관.
-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백제사비나성 II』.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5. 『서천 봉선리 유적』.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연기 대평리유적 B지점』.
- _____, 2015. 『연기 나성리 유적』.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용인 마북동 442번지 유적』.
- 한국문화재단, 2017. 『화천 위라리 123-1번지 외 1필지 유적』.
- 한성백제박물관, 2019. 『서울 석촌동 고분군 I』.
- _____, 2025. 『백제 사비기 토기 문화와 고구려』, 제26회 쟁점백제사 학술회의자료집.
- 한지선, 2013. 「漢城百濟期 聚落과 土器遺物群의 變遷樣相 -서울·경기권 편년수립을 위하여-」, 『중앙고고연구』12, 중앙문화재연구원.
- 호남문화재연구원, 2020. 『仁川 黔丹 麻田洞·元堂洞·不老洞유적 -不老洞 I』.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Emergence Background of Koguryo(style) Pottery Excavated from Baekje Sites of the Hanseong–Ungjin Period

Lee, Myeong-Heon(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Koguryo(style) pottery identified within Baekje territory from the Hanseong to the Ungjin periods. During the Hanseong period, Koguryo(style) Pottery was found across a relatively wide area, including northern Gyeonggi, Gangwon, and Jeollabuk-do, with the largest quantity recovered from Pungnap-toseong (風納土城), the royal capital of Hanseong-period Baekje. Most examples are presumed to have been used locally in daily life. In some cases, Baekje pottery was produced by adopting decorative elements from Koguryo Pottery, while other vessels exhibit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forms identical to Koguryo Pottery—such as clay bodies containing iron oxide—suggesting that certain pieces were introduced through interregional contact. The appearance of Koguryo(style) Pottery during the Hanseong period is interpreted as being related to King Gwanggaeto's southern expansion.

In the Ungjin period,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intensified, resulting in a very limited presence of Koguryo(style) Pottery. These finds occur mainly in the Buyeo area, as well as in regions such as Seocheon and Gochang. Pottery from Buyeo is generally considered to represent Koguryo(style) Pottery, whereas specimens from other regions—particularly Seocheon—display manufacturing techniques and forms identical to Koguryo Pottery, suggesting that actual Koguryo Pottery was introduced. The background for the appearance of Koguryo(style) Pottery in the Ungjin period can

be divided into Buyeo and non-Buyeo contexts. In Buyeo, it is likely associated with Koguryo captives mob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abi capital. In contrast, pottery recovered outside Buyeo is interpreted—based on contemporaneous examples of Koguryo jar-coffins constructed in former Baekje territories south of the Hangang—as Koguryo Pottery introduced from adjacent Koguryo regions and subsequently used as jar coffins.

Key words : Koguryo, Baekje, Koguryo Pottery, Koguryo-style Pottery



얽힘 이론(Entanglement Theory)으로 이해하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

: 신라하층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Human-Thing Entanglement : A Case Study of the Lower Xinle Culture

전정민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I. 머리말

II. 이안 호더의 얽힘 이론

III. 신라하층문화의 탱글그램 설계

IV. 신라하층문화의 얽힘 구조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안 호더(Ian Hodder)의 '얽힘 이론(Entanglement)'을 통해 신라하층문화 물질 문화 체계를 관계론적 관점으로 재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현지 가용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원거리 석재에 대한 의존이 지속적으로 구조화되는 '자원 운용의 비대칭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인간이 사물의 물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기술과 사회적 관행이 인간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위치한 신락 유적 고고학 데이터를 활용하여 얽힘 과정을 탱글그램(Tanglegram)으로 시각화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술의 효율성과 사회적 상징성이 요구되는 특정 영역에서 원거리 자원에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해당 현상은 석재의 물성이 지닌 '어포던스(affordance)'와 집단의 결속 및 사회적 위계를 표상하려는 '상징적 욕망'이 교차하며 빚어낸 구조적 산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이 강화됨에 따라 집단 전체가 원거리 자원 획득이라는 경로에 고착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과 속박(entrapment)상태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신라하층문화는 환경에 대한 수동적 적응을 넘어 기술의 실천과 사회적 관행이 상호 침투하여 구성된 얽힘의 결과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물질자료 이면에 잠재된 인간과 사물의 역동적 관계와 그 속에 내재된 사회적 구속의 작동원리를 입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얽힘 이론, 탱글그램, 신라하층문화, 어포던스

I . 머리말

요하(遼河) 유역은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사회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정주양상이 확인되며 다양한 생계활동과 물질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복합사회(complex society)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요녕성(遼寧省) 심양시(瀋陽市)에 위치한 신락유적(新樂遺跡)은 연해주와 한국을 비롯한 인접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와 연결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Chang 1986: 176). 특히 중기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신락하층문화(新樂下層文化, c. 5500~4500 BCE)는 약 11,000㎡에 이르는 발굴면적에서 주거지 30여 기와 3,000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취락 패턴과 생활양상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발굴간보와 보고서가 출간된 이래 신락유적 문화상을 이해하기 위해 유물의 형식학적 속성에 주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편년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沈阳市文物管理办公室 1978; 沈阳市文物管理办公室·沈阳故宫博物馆 1985; 李晓忠 1990; 沈阳新乐遗址博物馆·沈阳市文物管理办公室 1990; 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 2018). 이러한 선행 연구는 유물군의 성격과 시공간적 위치를 밝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자료 확보와 연구관점의 다각화는 기존 편년체계에 대한 비판적 재고와 수정을 가능케 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신락하층문화의 기본적인 문화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赵宾福·杜战伟 2011; 李志伟·王强 2022; 陈醉·朱永刚 2025). 특히 생계경제와 제작기술, 그리고 예술활동이 당시 생활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제고한 점은 중요한 학술적 성과라 할 수 있다(周阳生 2004, 2009; 복기대 2019: 257~267).

그러나 신락하층문화는 문화층 층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층서학적 편년작업에 근본적인 제약이 따르며 유물 속성에 기반한 분류와 비교만으로는 취락 내부에서 발생한 역동적인 행위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령 신락하층문화 주민들은 삶의 터전 인근에서 일상용 석기 제작에 적합한 석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잔석기와 위세품·장신구만큼은 고비용이 요구되는 원거리 석재를 선택하였다. 이는 단순히 특정 자원을 선호하는 취향의 차이를 넘어 기술적 필요와 사회적 욕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구조적 제약의 문제로 귀착될 수 있다. 따라서 취락을

구성하는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과 구속기제를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인간이 사물의 유용성에 의존(dependence)하고, 사물이 다시 인간의 관리에 종속(dependency)되는 인간과 사물의 상호의존성에 주목한다. 특히 호더(Hodder 2012)가 제시한 얽힘 이론(Entanglement Theory)을 통해 얽힘의 구조를 추론하여 신라하층문화 자원운용 방식에 대한 해석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얽힘 이론은 물질의 구속력이 인간사회를 특정한 경로로 이끄는 변화의 방향성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고고학 자료가 보여주는 물질문화의 누적관계를 이해하기에 유용하다. 최근 중국에서도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고고문화를 해석하는 틀로 얽힘 이론을 도입하는 등(刘岩 2020; Liu 2022)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이다. 반면 한국 학계의 논의는 얽힘 이론의 원론적 배경을 소개하거나(김종일 2022: 29~33, 2025: 11) 서양의 사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Mueller 2024). 이에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증적 차원으로의 논의 확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제Ⅱ장에서는 이론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차탈회위크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개념을 정리하여 탱글그램(Tanglegram) 구축원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제Ⅲ장과 IV장에서는 이를 신라하층문화에 적용하여 당시 인간과 사물을 결속하고 있던 사회적 구속의 실체와 그 고고학적 함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 이안 호더의 얽힘 이론

1. 얽힘 이론의 등장과 발전

‘얽힘’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Thomas 2009; Edensor 2011). 고고학 내에서도 식민지점촉, 물질의 혼종성, 사회복합도 등 여러 맥락에서 혼용되어 왔다(Dietler 1998, 2010; Stahl 2002). 고고학에서 ‘얽힘’은 1990년대 이후 직면한 이론문제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모색과정에서 대두되었다. 얽힘 이론의 등장과 전개에는 영국 고고학자 이안 호더(Ian Hodder)의 역할이 크다. 호더는 1980년대 초반 문화사고고학과 과정고고학이

간과한 상징과 구조문제를 제기하면서 후기과정고고학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Hodder 1982: 1~16, 1985: 1~26). 이후 그는 구조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실천이론 등 다양한 사회이론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물질문화가 단순한 수동적 산물이 아니라 의미를 생산하고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능동적 매개체임을 논증하였다(Hodder 1986). 그러나 이 시기 연구는 여전히 물질의 의미와 상징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물질 자체의 물성과 그것이 인간에게 가하는 제약(constraint)에는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질성(materiality)에 대한 논의는 호더에게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빌 브라운(Bill Brown)은 인간의 통제 하에 놓인 수동적 객체(object)와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물(thing)을 엄밀히 구분하면서, 사물이 인간의 의도를 벗어나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Brown 2001: 1~22, 2003).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역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를 대칭적으로 다루며 사물이 관계망 내에서 행위성(agency)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Latour 1993, 2005). 호더는 이들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물을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사물(Ding)에 대한 어원적 해석에 따라 이질적인 요소들을 한데 불러모으는 능동적인 행위체로 재규정하였다. 관계론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과 신물질론(New Materialism)의 흐름은 2010년대 이후 고고학 이론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Olsen 2010; Knappett 2011). 일각에서는 후기과정고고학이 문화인류학에서 너무 많은 것을 차용하여 문화인류학의 빈약한 아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호더의 얽힘 이론은 물질성 논의를 고고학으로 체화하여 고유의 분석틀을 구축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론적 모색이 구체적인 실증연구와 결합하여 체계화된 계기는 1993년부터 시작된 차탈회위크(Çatalhöyük) 재발굴 프로젝트였다(Hodder 1996). 연구진은 신석기 시대 주거지 내부의 다양한 사물들이 인간의 일상생활 및 의례행위와 맺는 관계를 장기간에 걸쳐 추적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상적 실천이 사회적 기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논증하였다(Hodder and Cessford 2004). 이러한 통찰은 2009년 영국 왕립인류학회(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의 헉슬리 기념강연(Huxley Memorial Lecture)에서 「Human – Thing Entanglement: Towards an Integrated Archaeological Perspective」라는 주제로 발표되었고 그간의 연구성과가 보다 정

교화되었다. 이후 해당 내용은 2011년 동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이듬해 『Entangled: An Archaeolog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Things』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면서 얽힘 이론의 구체적인 학문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¹⁾

얽힘 이론은 사물의 행위성을 인정하고 인간과 사물 사이의 복잡한 상호의존관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속박을 포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틀을 제공한다. 호더는 얽힘의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 이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에 접목하기도 했으며(Hodder and Mol 2016), 2016년에는 새로운 저서 『Studies in Human Thing Entanglement』를 온라인으로 발간하여²⁾ 이론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어 2018년에는 『Where Are We Heading? The Evolution of Humans and Things』를 출간하여 얽힘의 논의를 인류 진화의 거시적 차원으로 심화시키고 인간과 사물의 상호의존성을 장기적인 역사변동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설명했다. 이의 연장선에서 린지 데르(Lindsay Der)와 프란체스카 페르난디니(Francesca Fernandini)가 편집한 『Archaeology of Entanglement』를 통해 얽힘 이론을 활용한 10여 편의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제시되었고 그 분석적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2. 얽힘의 구조: 의존, 종속, 속박³⁾

호더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의존’이라는 개념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의존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에 달려 있다(it

1) 2023년에 출간된 『Entangled: A New Archaeolog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Things』 제2판에서는 중국과 중동의 신석기시대 사례를 새롭게 보강하여 가축화와 정착생활에 대한 논의를 한층 확장하였다.

2) 본서는 호더의 개인 홈페이지(<http://www.ian-hodder.com>)에 전문이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3) II 장 2절과 3절에서 기술한 얽힘 이론과 관련된 용어의 번역과 개념 설명은 호더가 저술한 대표적인 개설서(Hodder 2012; 2016)와 논문(Hodder and Mol 2016: 1066~1094)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개별적 인용표기는 생략한다. 번역의 경우 핵심용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dependence’는 기댐을 통한 잠재력(potential through reliance)으로 정의한 바와 같이 사물을 통해 인간의 행위능력이 확장되는 생산적 차원을 의미하므로 ‘의존’으로 번역하였다. 반면 ‘dependency’의 경우 이베 뉴얼 월러스틴(Wallerstein 1976)의 세계체제론(World-System Theory)이나 중독의 기제와 같이 의존이 심화되어 사물의 유지 및 보수에 얽매이는 제약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종속’이라 칭하였다. ‘Entrapment’는 덫(trap)에 걸리거나 자기가 관 함정(digging ourselves into a hole)에 빠진 이중구속(double bind)적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것이 내포한 구조적 강제성과 되돌릴 수 없는 고착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속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depends)’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의존이란 사물의 가변적인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유연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사물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부족해질 수 있는 불안정성(instability)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사물에 의존함으로써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사물의 변화나 부재라는 불확실한 조건에 우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걸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존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자, 향후 제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존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종속’이라는 구속적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의존과 달리 종속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제약과 한계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개인적 차원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특정 사물이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행동의 범위가 제한되는 종속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사물에 대한 신뢰로 시작된 의존은 상황에 따라 강박적이거나 불균형적인 종속으로 심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권력 관계와 불평등이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얽힘(entanglement)’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얽힘이란 인간이 사물에 의존하고 그 사물이 다시 인간의 관리에 의존하는 관계들이 중첩되면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의존관계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된다. ①인간이 사물에 의존하는 관계(humans depend on things, HT), ②사물이 작동하기 위해 다른 사물에 의존하는 관계(things depend on other things, TT), ③사물이 인간의 관리에 의존하는 관계(things depend on humans, TH), 그리고 ④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의존하는 관계(humans depend on humans, HH)이다. 네 가지 유형은 차탈회위크 주거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차탈회위크 주민들은 아나톨리아 고원의 혹한과 맹수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진흙벽돌 주거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HT). 주거지를 만들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점토 채취를 위한 도구, 갈대를 자르기 위한 흑요석 날 등 또 다른 사물들이 요구되었다(TT). 한편 발굴된 주거지 벽체분석에서 드러나듯 가마에 굽지 않고 햇볕에 말린 벽돌은 습기와 풍화에 극도로 취약했다. 인간이 끊임 없이 개입하여 흙을 덧바르고 미장하지 않으면 사물이 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다(TH). 나아가 무거운 점토를 나르고 반죽하는 고된 노동, 그리고 벽체를 공유하는 별집 형태의 주거 구조는 개별 가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에 공동체 단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HH).

주목할 점은 의존관계가 누적될수록 인간이 이중으로 구속되는 속박(entrapment)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물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간의 노동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인간이 사물에 깊이 의존하고 그 사물이 다시 다른 사물에 의존하는 관계가 중첩되면서 더욱 증폭된다. 결국 얽힘이란 의존이 종속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자 빠져나올 수 없는 속박으로 심화되는 고리에서 그 덩을 풀기 위해 더 많은 사물에 의존하게 되는 변증법적 순환구조로 정의될 수 있다.

얽힘 이론은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만 그 내적 복잡성으로 인해 서술만으로는 관계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의존과 종속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요소를 중심으로 중첩되고 있는지는 개념적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얽힘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얽힘을 해석하기 이전에 그 구조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적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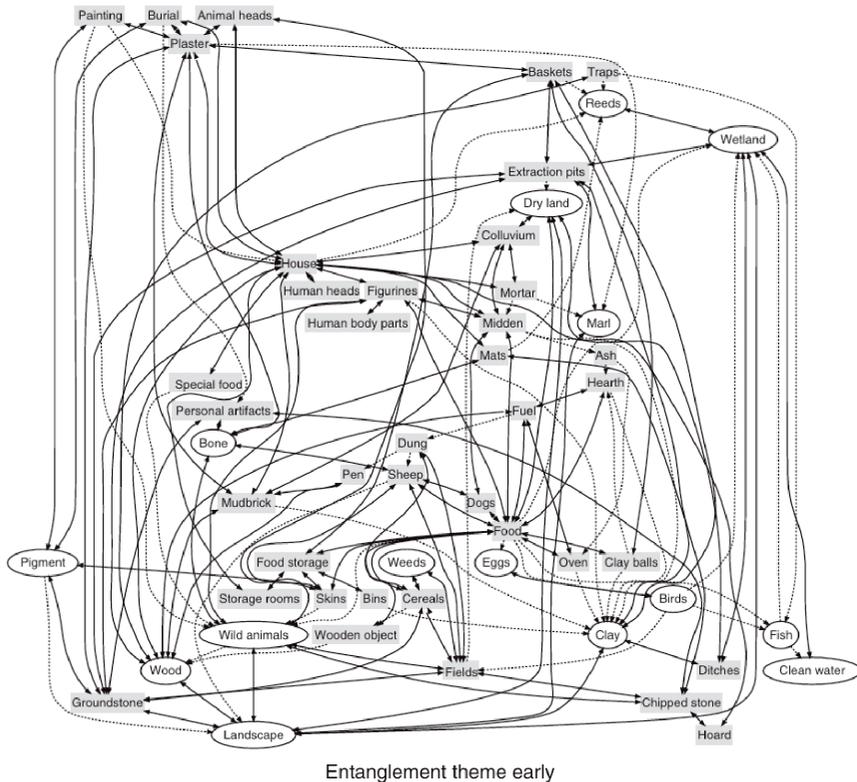
3. 인간-사물 관계의 확장과 시각화

호더는 이러한 서술적 난제를 타개하고 얽힘의 구조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이른바 ‘탱글그램(Tanglegram)’ 혹은 ‘얽힘의 다이어그램(Entanglement diagram)’이라 불리는 시각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탱글그램은 인간과 사물 사이에 형성된 의존의 실타래를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재구성한 도식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탱글그램이 수리적 분석을 전제로 한 그래프라기보다는 의존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발견적 도구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대상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얽힘 과정과 방향성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사고의 보조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탱글그램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증거와 그에 대한 해석을 전제로 하며 구성요소(elements)와 이들 사이의 의존성을 기본단위로 한다. 구성요소란 인간이 신뢰하고 의존하며 지속적인 돌봄과 투자를 요구받는 항목들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원재료나 도구와 같은 물질적 범주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 그리고 반복적 실천이나 관념과 같은 비물질적 영역까지 포괄된다.

각 구성요소는 노드(node)로 표현되며 노드의 형태는 인간과의 의존관계 여부를

나타낸다. 노드의 추출은 사물의 고고학적 출토 맥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예컨대 차탈회위크의 경우 유적지 전체가 거대한 진흙언덕을 이룬다는 점에서 점토(clay)가 가장 기초적인 핵심노드로 설정되었다. 석재를 구하기 힘든 환경 탓에 점토가 취사용 점토공(clay balls)이나 상징적 행위를 위한 토우(figurines)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원료에서 파생된 사물을 개별노드로 구분하고 이를 관통하는 상위범주로 점토를 배치하여 다이어그램의 골격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호더와 크리스 도허티(Chris Doherty)는 다이어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별도의 노드로 설정하려 했지만 거의 모든 요소가 인간과 의존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그들은 인간과 의존관계에 연루된 모든 노드를 색칠한 사각형으로, 그렇지 않은 노드를 빈 원으로 표시하는 관례를 채택하였다. 채워진 사각형은 인간에 의해 제작되고 관리되는 인공물(artifacts)을, 빈 원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자기재생산이 가능한 자연물이나 환경적 요소를 의미한다. 단,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의존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차탈회위크 유적 토제품의 얽힘 과정(Hodder 2012: 181)

구성요소 간 관계는 연결선(linkage)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인과율의 표시라기보다는 얽힘의 구조적 배치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자가 설정한 전제로 간주된다. 연결선은 신뢰와 제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특정요소가 다른 요소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의존관계의 방향성은 얽힘의 구조를 그리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단방향 의존(→)이 행위가능성을 열어주는 관계라면 양방향 의존(↔)은 상호제약적인 종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성의 비대칭성은 왜 얽힘이 강화되고 해체되기 어려운 고착상태가 되는지 해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예컨대 차탈회위크 점토 사용 맥락에서 진흙벽돌은 점토에 의존하지만(A→B), 점토는 진흙벽돌에 의존하지 않는 단방향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화살표는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정의에 기반한 구조적 제약 조건을 의미하며 양방향 화살표의 경우 얽힘이 강화되는 구조적 원인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림 1]에서 확인되는 사각형 노드의 압도적 우세는 차탈회위크 유적에서 인간이 생산과 재생산의 전 영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적의 초기 점유 단계에서 점토와 관련된 사물과 행위를 추적하여 점토가 단순히 벽돌을 만드는 재료에 그치지 않고 가옥 건축, 화덕, 조리, 의례와 매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계 속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탱글그램이 개별 사물의 기능을 넘어 물질이 놓인 거시적 관계망을 포착하는 도구임을 잘 보여준다. 다만, 이 사례는 점토의 작업연쇄(Chaîne opératoire)(Lemonnier 1992)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했기에 관념이나 사회적 기억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은 배제되었다. 이는 연구 질문에 따른 의도적인 범위 설정의 결과이며 탱글그램은 이러한 선택과 집중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유연한 틀로 이해되어야 한다.

탱글그램 작성에는 고정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 동북지역 신석기시대 합민망합(哈民忙哈) 유적 분석에 얽힘 이론이 적극 활용되었다(Liu 2022: 76). 이 연구에서는 차탈회위크 사례와 달리 주변으로 밀려나 있던 비물질적 요소들을 얽힘의 중심부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옥기와 같은 특정 물질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억, 그리고 반복적인 도구 사용의 실천 속에서 형성된 아비투스(habitus)(Bourdieu 1977)야말로 인간을 사물에 묶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탱글그램에도 수정이 이루어져 한 노드에 연결선이 7개 이상 집중된 지점을 핵심 노드로 정의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

는 얽힘 이론이 경직된 규칙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데 해석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Ⅲ. 신라하층문화의 탱글그램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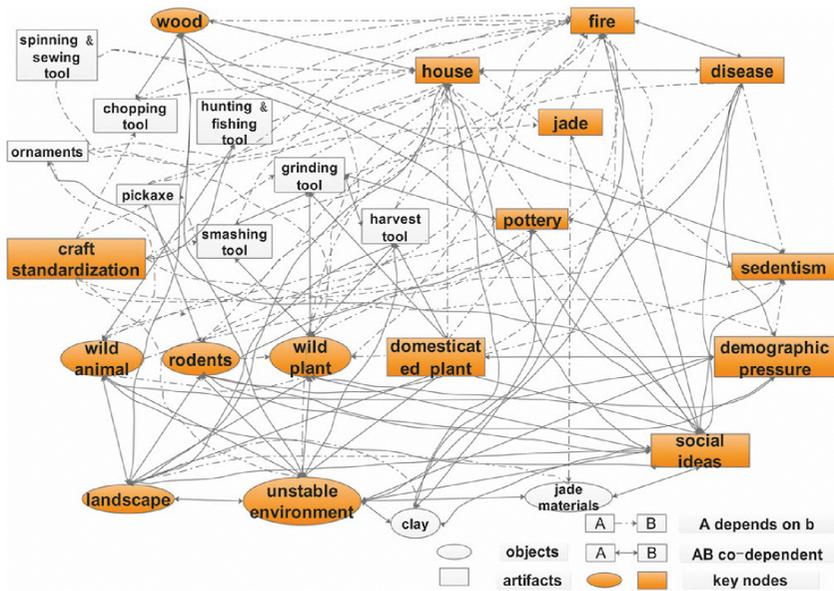
1. 데이터 추출과 활용⁴⁾

신라하층문화에 내재된 얽힘 구조를 추적하기 위해 신라유적 발굴보고서 상권과 하권(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에 수록된 고고학 데이터를 1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에 기재된 유물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 형성된 역동적인 관계망을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얽힘 이론이 전제하는 의존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물의 제작에서 폐기에 이르는 행위의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사슬과 행위의 연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고해상도 자료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예컨대 사용흔 분석을 통해 기능적 연관성이 검증된 석기나 생계활동과 소비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탄화된 식물유체와 동물 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분석단위 설정에는 유적의 층위를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신라하층문화 유적은 개별 주거지를 시기에 따른 군집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시기를 세분화하기보다는 문화층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상도를 조정하였다(고일홍 2022: 71). 비록 얽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지만 신라하층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인간과 사물 간의 구조적 의존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유효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탱글그램에서 노드는 인간과 사물의 복잡한 의존망에 포섭된 개별요소를 말한다. 노드설정은 고고학적 증거와 그에 관한 해석에 기초해야 하므로(Hodder 2012: 182) 사물에 내재된 속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했다. 노드는 성격에 따라 자연환경,

4) 본고에서 사용된 유물 명칭과 관련하여 석기류는 한국 고고학계에서 통용되는 우리말 용어(예: 편석기, 간석기, 잔석기, 갈판 등)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단,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왜곡이나 해석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원문을 병기하였다(간체자는 번체자로 변환하였다). 이외의 명칭은 한자 원어의 우리말 독음을 따랐다.



[그림 2] 합민망합 유적의 얽힘 과정(출처: Liu 2022: 83)

자연자원(동물/식물/기타), 인공물, 가공산물, 비물질적 요소로 범주화되었다. 다만 여기서 취한 범주화 방식은 뚜렷한 경계를 가진 엄격한 분류와는 구별된다. 경계의 유연함을 허용하여(고일홍 2023: 9~11) 각 노드가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가변적인 위상과 연결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한편 관계설정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의존과 제약의 역학을 시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더(Hodder 2012)와 류(Liu 2022)의 논의를 종합하여 관계의 성격을 두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첫째, 단방향 점선 화살표(A→B)는 일방적 변환 혹은 단순의존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상태의 원재료가 가공을 거쳐 인공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둘째, 양방향 실선 화살표(A↔B)는 상호의존 또는 상호제약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도구사용과 자원 획득의 관계처럼 양자가 서로의 존재를 전제로 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은 비물질적 요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정주성↔주거지’는 양방향 실선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주거지가 정주생활을 위한 물질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주생활이 다시 주거지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를 요구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출된 노드와 연결선 목록을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한 뒤 네트워크 시각화 소프트웨어(Gephi, version 0.10.1)를 활용하여 탱글그램으로 도식화하였다. 노드 배

치에는 ForceAtlas2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이어그램 일부를 수작업으로 조정하였다.

2. 노드 설정과 연결선 도출

유적의 입지와 환경은 노드설정(設定)의 기본전제(前提)가 된다. 신라(新羅)유적은 옛 혼하(渾河) 강(江) 기슭(基) 북쪽(北) 평탄(平坦)한 대지(大地)에 위치(位)하며 지표(地) 아래(下)는 대부분(大) 하천(河) 퇴적(堆)물(物)인 모래(沙)층(層)으로 이루어(組)져 있다. 신라(新羅)하층(下)문화(文化) 시기(時) 비옥(肥)하고 습윤(濕潤)한 이 지대(地)에는 버드(鳥)나무(木)와 느릅(栗)나무(木)가 균락(均)을 이루(具)고 강(江)변(邊)에는 갈대(藎)가 무성(茂)했던 것으로 확인(查)되었다(劉牧靈 1988: 847). 이러한 복합(複)적인 생태(生)경관(景)을 반영(映)하여 자연(自)환경(境) 노드(節)를 ‘하천(河)’, ‘습지(濕)’, ‘삼림(林)’ 세 가지(三)로 구분(分)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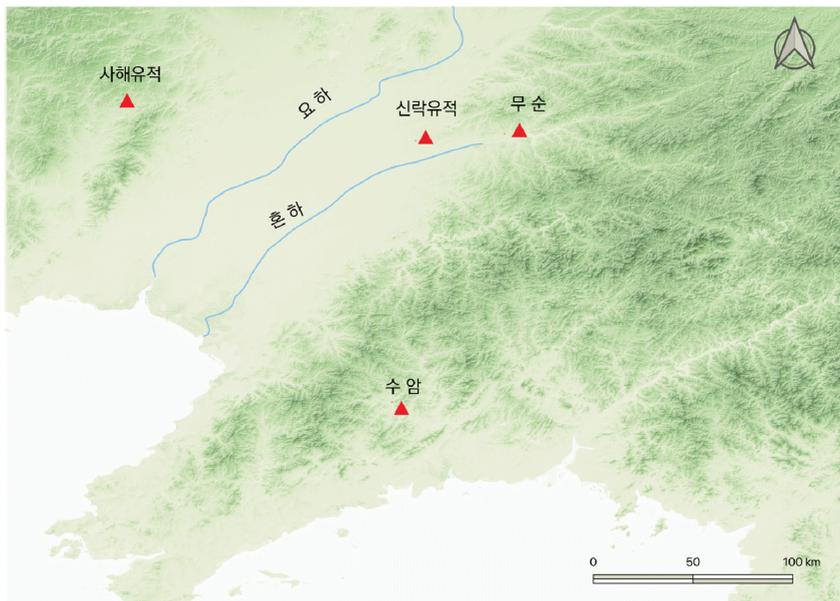
신라(新羅)하층(下)문화(文化)의 자연(自)자원(資源) 노드(節)는 인간(人)의 생계(生)와 생산(生)활동(動)의 기반(基)이 되는 대상(對)들로 성격(性)에 따라 동물(動), 식물(植), 그리고 기타(其) 자원(資)으로 세분(細)하였다. 우선(先) 유적(遺) 내부(內)에서는 불(火)에 탄(炭) 흔적(痕)이 확인(查)되는 돼지(猪)와 양(羊), 조류(鳥) 등 동물(動) 뼈(骨)가 다수(多) 출토(出)되었다. 이 동물(動)들이 가축(家)인지 수렵(狩)의 산물(山)인지는 명확(明)히 판별(判)되지 않았(無)으나 당시(當)시 주민(民)들이 육류(肉)를 적극(積)적으로 소비(消)했음은 분명(明)하다. 어로(漁) 활동(動)과 관련(關)된 그물(網)추도(頭) 다수(多) 확인(查)되었다. 그물(網)추의 결구(結) 형태(形)를 분석(分)한 결과(結) 결박(結) 끈(끈)의 직경(直)이 0.3~0.5cm로 추정(推)되었다. 이는 대형(大)어류(魚)를 포획(捕)하기 위한 끌그물(拉網) 혹은 후릿그물(圍網)에 사용(使)되었을 가능성(能)을 시사(示)한다(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新樂遺址博物館 2018: 708). 아울러(又) 2호(號) 주거(住)지에서 집(集)중(中)적으로 확인(查)된 골각(骨)기는 동물(動)의 가죽(革)과 뼈(骨), 뿔(角) 등이 도구(具)제작(作)을 위한 2차(次) 자원(資)으로 활용(活)되었음을 보여(示)준다. 이를 토대(土)로 ‘가죽(革)’ 및 ‘뼈(骨)/뿔(角)’을 별도(別)의 노드(節)로 설정(設)하였다.

이와 함께(同) 3호(號) 및 8호(號) 주거(住)지의 퇴적(堆)층(層)에서 채취(採)한 포자(孢)·화분(粉) 분석(分)결과(果)는 당시(當)시 식생(生)과 식물(植)성 자(資)원 이용(用) 패턴(圖)을 추적(追)하는 단서(單)를 제공(供)한다. 이 지역(地)에는

느릅(栗)나무(木)와 상수리(橡)나무(木)를 주종(主)으로 하는 낙엽(落) 활엽(活)수 삼림(林)이 분포(分)했으며 침엽(針)수는 거의 없(無)었다. 유적(遺) 주변(邊)의 비탈(壁)면(面)에는 상수리(橡)나무(木) 균락(均), 숲(林) 가장(最)자리(子)에는 개암(蓋)나무(木), 대추(棗)나무(木), 산살(山)구(구)나무(木), 산사(山)나무(木), 산딸(山)기(기)나무(木), 호두(胡)나무(木) 등 야생(野) 과(果)실(實)수가 분포(分)하였다(劉牧靈 1988: 846~848). 이 같은(同) 식생(生)조건(件)을 고려(考)하여 ‘견과(堅)류(類)’와 ‘야생(野)과(果)일(日)’을 노드(節)로 설정(設)하였다. 한편(同) 2호(號) 주거(住)지에서 탄화(炭)된 조(草)·기장(藎)류(類)가 출토(出)되었는데 입자(粒)의 크기(尺)와 형태(形)에서 야생(野) 원종(原) 특(特)징(征)이 강(強)하게 나타(顯)나(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新樂遺址博物館 2018: 708) 이를 ‘야생(野)곡(穀)물(物)’ 노드(節)로 설정(設)하였다. 이 밖에(外) 습지(濕)지에서

자생하는 ‘갈대’와 그물제작 원료인 ‘식물섬유’도 생계 기술을 지탱하는 자원으로 보아 노드로 포함하였다.

석기제작 등에 활용된 기타 자원은 획득거리와 용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뎀석기와 간석기의 주재료인 안산암, 화강암, 역암, 사암 등은 유적 인근 혼하 강변 자갈밭에서 쉽게 획득 가능한 자원이다(常永 2015). 이에 반해 잔석기 제작에 자주 사용되는 수석(燧石), 마노, 그리고 그 외 옥, 석묵(石墨), 적철광(赤鐵鑛) 등의 특정 광물은 유적 주변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원거리 교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新樂遺址博物館 2018: 709). 이러한 자원 획득 전략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거리 자원(생활)’과 ‘원거리 자원(생활)’을 별도 노드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위세품인 옥기, 장신구로 추정되는 매정(煤精)제품, 안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적철광석은 ‘원거리 자원(상징)’ 노드로 설정하였다. 특히 옥기의 원재료는 신락유적에서 서남쪽으로 직선거리 150km 이상 떨어진 수암(岫岩)일대의 옥일 가능성이 제기된다(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新樂遺址博物館 2018: 709). 매정제품의 원산지는 신락유적에서 동쪽으로 약 40~50km 거리에 위치한 무순(撫順) 탄전으로 확인되었다. 유적 인근에 무순보다 가까운 심북 탄전이 있었음에도 무순에서 나는 매정의 물성 때문에 굳이 먼 거리의 자원 획득을 시도했다는 점은 당시 주



[그림 3] 신락유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민들의 자원 선별 능력을 보여준다(辽宁省煤田地质勘探公司科学技术研究所 1979: 80~81).

인공물 노드는 인간의 기술지식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유지와 보수가 필요하며 반복사용이 가능한 것들로 구성된다. 석기분류는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고안해야 하기 때문에(성춘택 2017: 125) 석재 가공 기술을 기준으로 ‘뎨석기’, ‘간석기’, ‘잔석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토기’, ‘골기’, ‘목기’ 등 유적 내부에서 직접 출토된 유물도 노드로 설정하였다. 정주생활의 물질적 기반인 ‘주거지’, ‘화덕’, 그리고 직접적인 출토 사례는 없으나 채집활동에 필수라는 점에서(Hodder 2012) ‘바구니’와 ‘가죽제품’도 포함하였다. 그물줄 제작에 식물섬유가 사용된 사실은 바구니류 제작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가죽제품 또한 다량의 동물 유존체와 겨울철 한랭한 기후를 고려할 때 존재의 개연성이 충분하다. 다만 실물 자료가 부재한 가설적 노드이므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공산물 노드는 인공물 노드와 구분된다. 인공물 노드로 설정한 도구들은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기술지식과 양방향 의존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가공산물은 소비와 함께 사라지는 소모성 자원이다.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갈돌과 갈판 5쌍 및 탄화곡물이 식물 가공 활동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특히 유물 표면에서 미세한 톱니 모양의 줄무늬 마모흔적은 가공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음을 시사한다(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105~107). 이에 ‘가공된 식물’, ‘가공된 고기’, ‘저장 식량’, ‘연료’를 노드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사물과 인간을 강력하게 결속시키고 인간 행위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비물질적 요소를 노드로 추가하였다(Liu 2022: 76, Hodder 2012). 그 가운데 당시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요소로 ‘정주성’과 ‘이동성’을 고려할 수 있다. 주거지와 화덕은 정주생활이 정착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어로, 수렵, 채집이 혼합된 경제형태는 자원획득을 위한 유동적인 이동성이 병존했음을 시사한다. 즉, ‘정주성’과 ‘이동성’ 두 요소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전략 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한편 ‘기술지식’은 물질의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비물질적 요소이다. 예컨대 잔석기 제작에는 정교한 떼기기술이, 옥기 및 매정제품 가공에는 고난도 공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작 기술은 숙련된 장인의 신체에 체화되어 세대 간 전승되는 것이다. 이 밖에 집단 외연을 확장하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사회적 기제로 포괄적 의미의 ‘교류’와 ‘사회적 관

념'을 포함하였다. 원거리 자원의 유입은 지역을 잇는 교류 네트워크가 존재함을 방증한다. 특히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목조 새 형상 조각품(F2:530)과 옥기는 특정 사물이 집단 내 지위와 정체성을 표상하고 사회적 위계를 재생산하는 관념적 매개체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707).

[표 1] 신라하층문화 범주에 따른 주요 노드

범주	주요 노드	노드 수
자연환경	하천, 습지, 삼림	3
자연자원(동물)	육류, 어류, 가죽, 뼈/뿔	4
자연자원(식물)	견과류, 야생과일, 덩이줄기류, 야생곡물, 야생콩, 나무/목재, 갈대, 식물섬유	8
자연자원(기타)	점토, 근거리 자원(생활), 원거리 자원(생활), 원거리 자원(상징), 안료	5
인공물	뎨석기, 간석기, 잔석기, 주거지, 화덕, 토기, 바구니, 그물, 옥기, 매장제품, 골기, 목기, 가죽제품	13
가공산물	가공된 식물, 가공된 고기, 저장식량, 연료	4
비물질적 요소	정주성, 이동성, 사회적 관념, 교류, 기술지식, 계절성	6
합계		43

[표 2] 신라하층문화 관계 유형 예시

범주	주요 노드	연결선 수
자연환경	하천 ↔ 어류, 삼림 ↔ 견과류, 나무/목재	14
자연자원	육류 ↔ 가죽, 갈대 ↔ 식물섬유	4
자연자원과 인공물	점토 ↔ 토기, 원거리 자원(상징) ↔ 옥기	17
인공물	뎨석기 ↔ 간석기, 주거지 ↔ 화덕	10
인공물과 가공산물	간석기 ↔ 가공된 식물, 토기 ↔ 저장식량	13
자연자원과 가공산물	견과류 ↔ 가공된 식물, 육류 ↔ 가공된 고기	7
인공물과 자연자원	잔석기 ↔ 육류, 그물 ↔ 어류	12
비물질 관계	주거지 ↔ 정주성, 기술지식 ↔ 잔석기	46
합계		123

IV. 신라하층문화의 얽힘 구조

제Ⅲ장 2절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신라하층문화의 얽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총 43개의 노드와 123개의 연결선이 도출되었다. 이 가운데 단방향 의존관계는 73

근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안산암, 화강암으로 제작한 뿔석기와 간석기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원거리 교류의 산물인 옥기나 수석제 잔석기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당시 사회의 자립적 생계구조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적 경제구조가 곧 고립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석광(火石廣) 유적과의 관계나 신락하층문화의 주거지 규모로 확인할 수 있는 위계(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703)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회 복잡도를 보여준다. 특히 주거지는 가구단위의 적응전략이 작동하는 영역으로 구성원들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간이다(김범철 2018: 164). 이는 원거리 교류가 활발하지 않더라도 인근 씨족과의 연합이나 내부적인 역할 분화를 통해 사회적 역동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한 선별적인 원거리 자원획득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핵심노드 가운데 연결선 수가 많은 ‘간석기’, ‘기술지식’, ‘계절성’을 중심으로 신락하층문화의 얽힘 구조를 상세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1. 간석기: 생계-생산 통합과 구조적 결속

‘간석기’는 신락하층문화 탱글그램에서 가장 많은 연결선을 보유한 노드로 전체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매개하는 위치에 있다. 간석기가 연결된 노드의 범주를 살펴보면 식량획득(육류·견과류·덩이줄기류·야생곡물·야생콩), 가공(가공된 식물), 위세품·장신구 생산(옥기·매정제품·골기), 기술체계(기술지식·뿔석기), 생활양식(이동성)에 이르기까지 물질문화 거의 전 영역을 포괄한다. 단일 도구군이 생계와 생산, 기술과 관념의 다중적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노드로 기능하는 점은 신락하층문화 탱글그램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발굴자료는 이러한 얽힘의 구조가 단순한 추론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간석기는 돌도끼, 돌칼, 돌송곳, 돌끌, 돌보습, 갈판, 갈돌 등 용도별로 세분화된 기종으로 구성되어 있다(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이 가운데 돌도끼와 돌끌은 가공을 위한 절단 및 친공 도구로, 돌보습은 덩이줄기류를 캐는 굴취도구로 사용된 흔적이 확인된다. 한편 갈판과 갈돌에서는 전분립(澱粉粒)이 검출되어 식물성 식량 가공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간석기가 채집-가공-생산이라는 생계활동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물질적



[그림 5] 신락하층문화 출토 간석기

1~3. 돌도끼, 4. 돌삽, 5. 그물추, 6. 돌끌
(출처: 신라유지박물관·요녕성박물관, 필자촬영)



[그림 6] 신락하층문화 출토 갈판·갈돌

(출처: 요녕성박물관, 필자촬영)

토대였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갈판·갈돌 세트처럼 무게가 나가는 도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식량 껍질을 벗기는 기술적 기능을 넘어 인간 집단이 특정 장소에 머무르며 획득한 자원을 장기간 보존 가능한 형태로 바꾸고, 이를 위해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투입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간석기는 정주생활과 저장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Wright 1994).

간석기에 대한 인간의 의존은 다방면에서 구조적 종속성을 드러낸다. 식량가공과 도구제작 시스템이 간석기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만큼 적합한 석재의 안정적 확보와 산지 접근성 유지, 제작기술의 전승, 그리고 도구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간 투입은 당시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고정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요컨대 간석기는 신락하층문화 주민들을 기술적·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한 생활양식과 긴밀히 결속시키는 물질적 기제로 기능했을 개연성이 높다.

2. 기술지식: 물질과 비물질의 매개

비물질적 요소에 속하는 ‘기술지식’은 뎨석기, 간석기, 잔석기, 토기, 골기, 목기, 주거지와 같은 인공물뿐만 아니라 옥기, 매정제품 등 상징적 용도의 원거리 자원과 생활 영역의 원거리 자원, 그리고 교류와 같은 노드를 연결한다. 이는 기술지식이 물질문화의 거의 전 영역에 침투해 있으며 개별 사물과 행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관계망의 핵심 허브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기술지식 노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연결이 양방향 상호의존관계(\leftrightarrow)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과 사물 사이의 일방적 의존이 아닌 서로를 제약하는 순환구조가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석기 제작에 요구되는 눌러떼기(압박박리) 기술이나 옥기·매정제품 가공에 필수적인 절단·천공·마연 기술은 도구생산의 전제조건이다. 동시에 해당 도구의 지속적 사용과 사회적 수요는 기술의 유지와 세대 간 전승을 요구한다. 즉, 특정 도구를 채택하면 그에 딸린 기술적 실천을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장기간의 학습과 신체적 체화가 수반된다(Ingold 2000).

한편 정주성과 기술지식의 관계는 단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정주성 \rightarrow 기술지식). 이는 안정적인 정주환경이 기술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정주생활이 고도화된 기술의 추구하고 체계적인 전승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토대로 작용했음에 주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생활에서는 도구의 휴대성과 제작 편의성이 우선시된다. 반면 신락유적과 같은 안정적인 정주환경에서는 모든 도구를 소지하고 이동할 필요가 적으므로 무거운 도구를 보유하는 데 큰 제약이 없고 복잡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공간적 여유가 확보된다. 즉, 정주성은 기술지식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전문화된 지식체계로 심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축적된 기술은 다시 정주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나아가 기술지식은 집단 내부를 넘어 교류 및 원거리 자원(생활/상징)과 연결되며 외연을 확장한다. 신락 주민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수석이나 마노 등의 물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해당 석재에 대한 관련 지식이 이미 집단 내에 축적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원거리 자원 획득이 단순한 물자의 이동을 넘어 그 물질을 다루는 기술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결부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일 개연성을 높여준다(성춘택 2019: 27~29).

이처럼 정주성이라는 안정된 토대 위에서 고도화된 기술지식은 다양한 사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사물들은 다시 기술의 유지와 재생산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일단 특정 기술 체계에 진입한 집단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동과 시간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시간적 심화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순환구조는 구성원들을 해당 물질문화 체계에 결속시키는 기술적 속박 기제로 작동했을 것이다(Hodder 2012).

3. 계절성: 생계활동의 시공간적 리듬

비물질 범주의 ‘계절성’은 대부분의 자연자원(육류·어류·식물성 자원)과는 단방향(계절성 → 자원)으로, 이동성·정주성·저장식량과는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계절성이 자원의 가용성을 결정하는 환경적 조건인 동시에 거주방식과 저장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계절성 노드의 연결구조는 크게 두 가지 층위로 해석된다. 첫째, 자연자원과의 단방향 연결은 계절성이 인간의 개입으로는 변경 불가능한 환경적 제약임을 보여준다. 인간 집단은 계절적 주기에 따라 변하는 자원의 분포를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오직 그 리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생계전략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이동성 및 저장식량과의 양방향 연결은 이러한 환경적 제약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대응을 보여준다. 예컨대 인간은 저장 기술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정주성을 강화하지만, 역으로 저장량 부족은 다시금 이동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수집민(collector)의 저장전략과 채집민(forager)의 이동전략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계절적 리듬에 따라 유동적으로 길항하며 공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Binford 1980). 신락유적의 반지하식 주거지가 혹한기를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이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706). 이상의 논의는 계절성이 신락하층문화의 물질문화 체계에 시간적 리듬을 부여하는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자원의 획득-가공-저장이 연중 순환하는 패턴 속에 배치됨으로써 인간 행위와 사물은 이 리듬 내에서 정교하게 조율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신락하층문화의 얽힘 구조는 간석기를 기술적 허브로, 기술지식을 인지적 매개자로, 계절성을 시간적 조율자로 삼아 ‘현지 자원 기반의 자립적 생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구조 안에서 개별 가구는 식량 획득-가공-저장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로 기능했으며, 계절적 리듬에 따라 정주와 이동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적응전략을 구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제기된 원거리 자원에 대한 의존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현지에 석재 자원이 풍부함에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원거리 석재 선호, 또 전체 네트워크의 주변부에 위치하면서도 특정 도구 생산에는 필수적으로 개입하는 교류의 이중적 위상은 여전히 추가적인 해석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4절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이 어떠한 구조적 기제를 통해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

4. 원거리 자원에 대한 의존과 얽힘의 함정

신라하층문화 유물 3,000여 점 중 2,000점 이상이 석기균일 정도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며 이 가운데 약 72%는 유적 인근에서 조달한 현지 석재로 제작되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류' 노드의 연결선 수가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 역시 일상적인 생계 차원에서는 원거리 교류 의존도가 높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는 당시 사회의 생계-기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현지자원 가용성에 기반한 자립적 구조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지 석재가 양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원거리 석재에 대한 의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석기 제작기술의 측면에서 현지 석재의 질이 낮은 경우 정교한 잔석기 제작을 위해 양질의 원거리 석재를 수입하는 것은 기술의 합리성에 따른 보편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생계영역까지 외부자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석기의 30%에 못 미치는 원거리 석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렵·가공용 잔석기와 사회적 상징성을 띠는 위세품·장신구 제작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반면 땅을 파는 도구나 제분도구는 현지 석재로 제작되었다.

이는 자원고갈에 따른 수동적 대체가 아니므로 목적에 따른 전략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잔석기 제작에서 원거리 자원 의존은 재료의 물성을 까다롭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둔탁한 타격이나 마연기술이 적용되는 석부나 갈판 등의 경우 입자가 굵은 현지 석재로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정주생활에 따라 고도화된 눌러떼기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 미세한 힘으로 예리한 날을 떼어내야 하는 이 기술은 재료의 균질성과 높은 경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결이 불규칙한 현지 석재는 이러한 미세공정에 적합하지 못하다. 반면 원거리에서 유입되는 수석과 마노는 조직이 유리질에 가까울 만큼 균질하여 숙련된 장인의 의도를 오차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어포던스(affordance)를 제공한다.⁵⁾ 요컨대 원거리 석재의 선택은 자원부족이 아니라 기술적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선택의 논리는 기술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역으로도 확대된다.

5) 어포던스(Affordance)는 환경이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잠재적 행위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깃슨(Gibson 1979)이 제안하였다. 내렛(Knappett 2005: 35~63)은 이를 고고학적 맥락에 적용하면서 물리적 속성에서 즉각 인지되는 'directly perceived affordance'와 문화적 맥락을 통해 인식되는 'indirectly perceived affordance'로 구분했다.



[그림 7] 신라하층문화 2호 주거지 출토 유물 (1~2. 잔석기, 3~6. 옥기, 7~9. 매장제품)
 (출처: 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25, 35, 44~45.)

사회적 상징물인 옥기와 매장제품도 잔석기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정점에 위치한 산물이다. 옥기의 경우에는 기술적 필요와 더불어 사회적 차별화 논리가 작동한다. 취락 규모의 확대와 대형 주거지의 등장은 집단 내부의 역할분화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이때 누구나 강가에서 주울 수 있는 흔한 석재로는 소유자의 특별한 지위를 드러낼 수 없다. 사회적 위계를 물질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의 불평등이 전제된 재료가 필요하다. 수암에서 가져온 옥은 그 획득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희소가치가 높고 일상재와 뚜렷이 구분되는 속성 때문에 소유자의 권위와 네트워크 장악력을 과시하는 상징재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유사하게 신라유적에서 출토된 매정은 일반적인 석탄이 아니라 가공에 적합한 물성을 지닌 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한 결과이다. 당시 사람들이 유적지와 가까운 탄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예용으로 적합한 특정 광맥을 정확히 식별하는 고도의 재료 선별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정교한 귀걸이나 구슬로 가공하는 과정은 숙련된 장인의 기술을 요구한다. 주목할 점은 매장제품이 특정 계층에 독점되지 않고 전체 주거지의 약 90%에서 확인될 만큼 보편적으로 소비되었다는 사실이다. 희소한 원거리 자원을 획득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집단 전체가 공유함으로써 구성원 간 동질성을 확인하는 사회적 표지물로 기능했던 것이다. 요컨대 원거리 자원(상징)에 대한 의존은 현지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구별 짓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현지 자원을

배제하고 희귀 자원을 선택한 정치적 전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면 신라하층문화의 자원 운용 체계에서 원거리 자원은 기술적·사회적 정점을 점유한다. 비록 서로 다른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①기술의 효율성, ②정치적 차별화, ③공동체적 정체성이라는 이질적인 욕망들은 교류의 유지와 확대라는 공통과제를 공유하며 상호강화된다. 예컨대 잔석기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개설된 교역루트는 사회적 표지물이나 위세품이 유입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사회적 결속과 위계 유지를 위한 정치적 교섭이 생활용 석재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는 담보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적인 고리는 집단을 원거리 자원 의존 상태에 구조적으로 결속시키는 조건을 형성한다. 기술적 효율성과 사회적 상징성이 교류망을 통해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에서 특정 경로로부터의 이탈은 기술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결속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의 한 단면일 것이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의존 → 종속 → 속박의 경로로 심화되었을 개연성은 높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추가적인 고고학 자료와 편년연구의 교차검증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V. 맺음말

고고학적 사유는 과편화된 사물들 사이에 침묵하고 있는 관계의 고리를 복원하고 얽힘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본 연구는 이안 호더의 얽힘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취락유적에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사물이 서로를 규정하고 구속해 나가는 구조적 결을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신라하층문화 물질문화 체계는 단순한 생태학적 적응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내포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는 생계의 기반을 현지 자원에 두면서도 기술과 사회의 정점에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고비용을 감수하며 원거리 자원에 의존하는 전략적 선택을 감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석재의 물성이 지닌 어포던스와 집단의 결속 및 사회적 위계를 표상하려는 상징적 욕망이 자원 조달의 실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이해된다. 눈여겨볼 점은 이러한 선택이 일회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사물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며 집단 전체를 원거리 자원 의존

경로에 고착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한된 물질의 흔적을 통해 과거의 얽힘 과정을 온전히 조명하기란 쉽지 않다. 추론작업 자체가 객관적 실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기보다 연구자가 텍스트화된 사물과의 대화를 통해 과거를 새롭게 구성해내는 해석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재구성된 얽힘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유기적 맥락이 소거된 고고학 자료의 침묵 속에서 인간과 사물 사이 틈을 메우는 일은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수반한다. 아울러 탱글그램은 복잡한 관계를 사고하기 위한 발견적 도구로서 유의미하나 의존의 강도를 정량화하거나 시간적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다만 향후 사회연결망분석이나 작업연쇄 등 다른 방법과 접목하여 보완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이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인간과 사물이 치열하게 상호작용하며 빚어낸 긴장과 모순, 그리고 그 속에 내재된 역동성을 부분이나마 살펴보려 했으나 여전히 시론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시도가 동북아시아 선사시대 연구에서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유효한 접근으로 받아들여지고 앞으로 이어질 논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5. 12. 31 | 심사완료일 2026. 1. 26 | 게재확정일 2026. 2. 2

참고문헌

- 고일홍, 2022, 「네트워크 시각화와 고고학 자료의 활용 낙랑고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_____, 2023, 「무덤 연구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 네트워크 시각화와 '베치' 개념의 적용」, 『한국상고사학보』 120, 한국상고사학회.
- 김범철, 2018, 『가옥 가족 가구』, 충북대학교 출판부.
- 김종일, 2022, 「면, 점, 선 그리고 연결망」, 『인문논총』 79(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_____, 2025, 「고고학에서 인간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다」,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제49회, 한국고고학회.
- 복기대, 2019, 『홍산문화의 이해』, 우리역사연구재단.
- 성춘택, 2017, 『석기고고학』, 사회평론.
- _____, 2019, 「수렵채집민의 광역교류네트워크와 한국 후기 구석기시대 점유밀도의 변동」, 『한국고고학보』 112, 한국고고학회.

- 중문 -

- 辽宁省煤田地质勘探公司科学技术研究所, 1979, 「沈阳市新乐遗址煤制品产地探讨」, 『考古』 1979(01).
- 刘牧灵, 1988, 「新乐遗址的古植被和古气候」, 『考古』 1988(09).
- 刘岩, 2020, 「日常生活实践: 查海遗址聚落空间的社会考古学研究」, 『考古』 2020(7).
- 李志伟·王强, 2022, 「再论新乐文化分期与年代」, 『四川文物』 2022(04).
- 李晓忠, 1990, 「沈阳新乐遗址1982~1988年发掘报告」, 『辽海文物学刊』 1990(01).
- 赵宾福·杜战伟, 2011, 「新乐下层文化的分期与年代」, 『文物』 2011(03).
- 周阳生, 2004, 「新乐文化聚落形态及社会性质初探」, 『史前研究』 2004(00).
- _____, 2009, 「新乐遗址出土的史前木雕品研究」, 『中国国家博物馆馆刊』 2009(04).
- 陈醉·朱永刚, 2025, 「新乐下层文化分期与年代研究」, 『考古与文物』 2025(03).
- 常乐, 2015, 「新乐文化石器制作工艺考察」, 『福建文博』 2015(12).
- 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 2018, 「沈阳市皇姑区新乐遗址2014年的发掘」, 『考古』 2018(8).
- 沈阳市文物考古研究所·新乐遗址博物馆, 2018, 『新乐遗址发掘报告』上·下, 文物出版社.
- 沈阳市文物管理办公室, 1978, 「新乐遗址发掘报告」, 『考古学报』 1978(04).
- 沈阳市文物管理办公室·沈阳故宫博物馆, 1985, 「沈阳新乐遗址第二次发掘报告」, 『考古学报』 1985(02).
- 沈阳新乐遗址博物馆·沈阳市文物管理办公室, 1990, 「辽宁沈阳新乐遗址抢救清理发掘简报」, 『考古』 1990(11).

- 영문 -

- Bastian, M., Heymann, S. and Jacomy, M., 2009, Gephi: An Open Source Software for Exploring and Manipulating Network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3(1), AAAI.
- Binford, L. R., 1980, Willow smoke and dogs' tails: Hunter-gatherer settlement systems and archaeological site formation, *American Antiquity* 45(1),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R. Nice, Tra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B., 2001, Thing theory, *Critical Inquiry* 28(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3, *A Sense of Things. The Object Matter of American Litera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g, K. C.,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4th ed., Yale University Press.
- Der, L. and F. Fernandini, eds., 2016, *Archaeology of Entanglement*, Routledge.
- Dietler, M., 1998, Consumption, agency, and cultural entanglement: Theoretical implications of a Mediterranean colonial encounter, In *Studies in Culture Contact: Interaction, Culture Change, and Archaeology*, J. Cusick, ed., Centre for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 _____. 2010, *Archaeologies of Colonialism: Consumption, Entanglement, and Violence in Ancient Mediterranean Fra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densor, T., 2011, Entangled agencies, material networks and repair in a building assemblage: the mutable stone of St Ann's Church, Manchester,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6(2)*, Royal Geographical Society.
- Gi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Houghton Mifflin.
- Hodder, I., 1982, Theoretical archaeology: a reactionary view, In *Symbolic and Structural Archaeology*, I. Hodder,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5, Postprocessual Archaeology, In *Advances in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M. B. Schiffer, ed., Academic Press.
- _____. 1986, *Reading the Past: Current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in Archae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On the Surface: Çatalhöyük 1993-1995*, I. Hodder, ed., British Institute at Ankara, McDonald Institute for Archaeological Research.
- _____. 2012, *Entangled: An Archaeolog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Things*, Wiley-Blackwell.
- _____. 2016, *Studies in Human Thing Entanglement*. [Online]
- _____. 2018, *Where Are We Heading? The Evolution of Humans and Things*, Yale University Press.
- Hodder, I., and A. Mol, 2016, Network analysis and entanglement,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23(4)*, Springer.
- Hodder, I., and C. Cessford, 2004, Daily Practice and Social Memory at Çatalhöyük, *American Antiquity 69(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old, T., 2000, *The Perception of the Environment: Essays on Livelihood, Dwelling and Skill*, Routledge.
- Knappett, C., 2005, *Thinking Through Material Culture: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_____. 2011, *An Archaeology of Interaction: Network Perspectives on Material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Lemonnier, P., 1992, *Elements for an Anthropology of Technology*,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 Liu, Y., 2022, Complexity, Instability and Contradiction: The Impact of Human – Thing Entanglement on the Social Decline of the Hamin Mangha Neolithic Site in China, *Cambridge Archaeological Journal* 33(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eller, S., 2024, Human-Thing Dependencies in Early State Formations in the Iron Age Mediterranean – Jerusalem and Morgantina, *The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71,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Western Ancient History and Culture.
- Olsen, B., 2010, *In Defense of Things: Archaeology and the Ontology of Objects*, AltaMira Press.
- Stahl, A. B., 2002, Colonial entanglements and the practices of taste: An alternative to logocentric approaches, *American Anthropologist* 104(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Thomas, N., 2009, *Entangled Objects: Exchange, Material Culture, and Colonialism in the Pacific*,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 1976, *The Modern World-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Academic Press.
- Wright, K. I., 1994, Ground-stone tools and hunter-gatherer subsistence in southwest Asia: Implications for the transition to farming, *American Antiquity* 59(2), Society for American Archaeology.

Human-Thing Entanglement : A Case Study of the Lower Xinle Culture

JEON, Jeong-Min(Ph.D. Student, Department of Archaeology as Interdisciplinary Science, Inha University)

This study applies Ian Hodder's Entanglement Theory to reconstruct the material culture system of the Lower Xinle Culture from a relational perspective. It examines the 'asymmetry of procurement', defined as a structural dependence on costly long-distance lithics that persisted despite the abundance of local alternatives. The aim is to explore how technological and social practices, formed in response to material properties, act to channel and constrain human agency. To this end, a Tanglegram analysis of the Xinle site in Shenyang, Liaoning Province, China, visualises the entanglement processes and examines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ensive reliance on long-distance resources is not random but structurally embedded in domains requiring both technological efficiency and social symbolism. This phenomenon is interpreted as a product of the affordances of stone intersecting with the symbolic desire for group solidarity and hierarchy. The intensification of these interactions suggests the emergence of a path-dependent trajectory, potentially leading to the community's structural entrapment within long-distance procurement networks. Thus, the Lower Xinle Culture is redefined not by passive environmental adaptation, but by entanglement constituted through the mutual interpenetration of the technical and the social. This work attempts to reveal the dynamic relations between humans and things, and the mechanisms of social constraint latent within the archaeological record.

Key words : Entanglement Theory, Tanglegram, Lower Xinle Culture, Affordance

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진정성과 정책적 딜레마

Archaeological Authenticity and Policy Dilemmas in the Excavation of the Silla Royal Capital

이성준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조교수

- I. 서론
- II. 신라왕경 사업의 태동과 초기 딜레마
- III. 제도화의 명암
- IV. 발굴현장의 진화와 연구모델의 혁신
- V. 지속되는 딜레마
- VI. 결론 및 제언



국문 요약

이 연구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지난 10년 과정을 고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회고하고, 국가유산 거버넌스가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라왕경 사업은 경주의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적 목표 아래 시작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정치적 시간'과 유적의 진정성 규명을 위해 장기간의 정밀 조사를 요구하는 '고고학적 시간' 간의 심각한 충돌을 노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 초기에는 고고학적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성급한 복원 계획이 수립되거나, 발굴 기간 단축을 위해 다수 조사기관의 동시 투입이 거론되는 등 조사의 학술적 엄밀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과정에서의 유구 훼손과 같은 실질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학계와 정책당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유산 종합 연구모델'을 정립하여 융복합 연구와 대중 고고학을 실천하는 등 질적 고도화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제기된 월성 발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법적 제도화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 논리와 성과주의가 고고학적 원칙을 위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신라왕경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의 학술적 조사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연구 중심의 예산 구조를 확립하며, 과정 중심의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는 등 '고고학적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시급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 거버넌스, 국가유산 종합 연구모델, 경주

I. 서론

고고학에서 발굴조사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수습하는 행위가 아니라, 층위와 유구의 맥락을 파악하여 과거 인간의 행위와 사회상을 재구성하는 엄밀한 과학적 프로세스이다. 발굴은 그 자체로 유적을 파괴하는 ‘비가역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고고학자는 최신의 조사 방법론을 준수하고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여 기록의 완결성을 기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유적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원형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불완전한 조사는 영구적인 역사 정보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본격화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하 신라왕경 사업)은 이러한 고고학적 원칙과 현실적인 정책 요구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이었다.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추진된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은 필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적의 형성 과정과 미세한 변천을 규명하기 위해 장기간의 정밀 조사를 요하는 ‘고고학적 시계’와 임기 내에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정치적 시계’ 사이의 구조적 간극에서 기인한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 간 신라왕경 사업의 진행 과정을 ‘발굴조사 현장’과 ‘정책적 의사결정’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외부의 속도전 요구가 발굴조사의 학술적 엄밀성에 미친 영향과 이에 대응하여 학계와 정책당국이 구축해 온 방어 기제 및 연구모델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고학적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유산 거버넌스의 지향점을 현장의 시각에서 제언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신라왕경 사업의 태동과 초기 딜레마: 2014~2015년의 격랑

1. 사업의 추진 동력: 정치적 당위성과 지역적 열망의 결합

신라왕경 사업은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증진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의 대상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 지구 내 월성(신라왕궁),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등 8개 핵심유적이며, 계획 당시의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림 1] 박근혜 대통령 월성 발굴현장 방문 언론보도
(KBS1 2015-09-07)

이 사업이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71년 황룡사와 신라 왕궁 복원 등을 포함한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된 이래, 1973년 천마총 발굴, 1975년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발굴, 1976년 황룡사지 발굴 등으로 이어지면서 찬란했던 신라 문화의 면모가 드러났고, 이는 빈곤했던 한국 사회가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자긍심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경주의 지역 사회로 하여금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 육성’에 큰 기대를 걸게 만들었다. 당시의 공약은 경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고, 역사와 문화를 현대 기술과 융합하여 창조적인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비전을 담고 있었다.

정치적 리더십 또한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7일, 신라왕경 사업의 핵심 유적인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현직 대통령으로서 40년 만에 방문하여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그림 1).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신라왕경의 복원이 “문화융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체계적인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KBS1 2015-09-07). 이러한 행보는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으나, 동시에 역사적 고증과 과도한 개발,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2. 초기의 과제 : 신속한 개발 요구와 학술적 엄밀성 사이의 균형

거대한 포부와 기대 속에 시작된 신라왕경 사업은 초기부터 ‘속도’와 ‘질’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에 직면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가시적인 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빠른 발굴과 복원을 요구했다.

1) ‘발굴’ 없는 ‘복원’ 구상의 위험성

사업 초기 가장 큰 논쟁은 고고학적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기된 성급한 복원론이었다. 경주 월성의 경우, 발굴조사가 착수되기도 전에 정전, 문지, 누각, 회랑 등 주요 시설 8개소의 복원 등과 같은 구상이 흘러나왔다. 이는 고고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추정 복원이 시행될 수 있다는 학계의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고고학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지하에 매장된 유구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는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2) 발굴 주체와 조사 기간을 둘러싼 갈등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발굴 기간과 주체 문제였다. 지역 정치권과 일부 여론은 국가연구기관이 월성의 발굴조사를 전담하기로 한 방식에 대해 ‘단일 기관에 의한 독점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발굴의 장기화가 경주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영남일보 2014-11-11). 이들은 “민간 조사기관을 대거 투입해 발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그림 2), 이는 고고학 조사를 ‘토목 공사를 위한 선행 절차’나 ‘유물 수거 작업’ 정도로 취급하는 개발 중심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학계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빠른 발굴 및 복원이 국가유산의 훼손으로



[그림 2]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

경주 월성 신라궁터 발굴, 논란 속 오늘 개토제

경주문화재연구소 "10년간 발굴" 학계선 "최소 30년 이상 필요"

11일 오전 신라 천년의 궁성터인 경주 월성 들녘과 소나무숲에는 찬 바람이 쉴 새 없이 휘몰아쳤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돼오다 최근 학계와 정치권의 논란 끝에 결정된 월성의 발굴을 앞두고 이날 궁성터 안으로 취재진이 모여들었다. 최근 월성발굴조사단을 꾸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12일 열리는 개토제 전날 미리 인본식별회를 마친한 것이다.

"이제는 땅을 조금씩 파도 신라 유물층이 짙어져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트랜잭셔널 발굴이라는 길이 20~30cm 정도를 최대한 얇게 파고 조사할 겁니다. 내년 3월 시굴조사에 들어가

면 대왕건물터와 도로 양끝 유평 등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박유성 연구실장이 손을 가려진 곳은 월성 환가운데인 석빙고 부근의 너른 풀밭이었다. 첫 시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른바 C지구다. 월성 궁터를 시굴 기점으로 동쪽 끝까지 A, B, C, D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1만 7000여평의 C지구는 궁성 핵심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2004, 2007년 레이더 탐사 때 정전급 대왕건물터와 연못터, 도로터 등이 탐색된 바 있다. 유홍식 연구사는 "땅벌 바로 아래 건물터 초석이 깔려비 온 뒤 초석 자리가 가장 먼저 말라 흔적이 드러나며 땅 위에도 초석을 일부가 굴러다닌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이 구역에 길이 20m, 폭 4m의 발굴정 50여대를 격자모양으로 파고 유적 실체



경주 월성 발굴을 앞두고 11일 월성 안 발굴예정지에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현장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굴 구역의 전경.

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 시굴조사를 다음주부터 발인 것"이라고 말했다. 3월까지 시굴해서 건물, 도로터 등 유적들이 확인되면 지표층을 걷고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장기적으로는 10년 동안 500여평을 들여 모두 6만 2700여

평에 달하는 월성 터를 발굴한다는 방침을 잡아놓았지만, 손조맹부 추진되는 장담하기 어렵다. 월성이 신라 유적의 핵심인데다, 전례 없이 막대한 유물과 유적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학계에서는 최소 30년 이상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반면 시와 지역 일부 인사들은 발굴을 최대한 빨리 진척시켜 궁성을 복원하고 관광유산으로 활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4월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신라왕실유적 복원 정비사업추진단을 발족시켰지만 내부적으로는 발굴 기간을 놓고 이견을 품지 못한 상황이다. 재입 조사원 1명에, 조사원은 10명인 반야학 연구소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병식 연구소장은 "조사단 직제와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고 보존과학 및 세부분야 전문가도 확보하는 안을 준비중"이라며 말했다.

경주를 사진 노획서 기사 nuge@hani.co.kr

경향신문

2016-09-12 21면 (문화)

"경주 월성 '속도전 발굴' 왜곡된 복원 우려"

고고학회 '발굴중단 제안' 학술회에서 문제 제기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 복원도 역시 왜곡의 증가가 될 뿐이며, 왜곡된 복원으로 재현되는 자취를 버릴정할 수도 있고, 고고학의 본질인 신라문화의 복원이라는 미명하에 경주 시민들의 눈앞에서 '속도전'이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경주 월성발굴조사단과 관련사업에 대한 검토 높은 바이다."

안철모 동국대 교수는 최근 한국고고학회에서 열린 '경주 월성'에서 연 '경주 월성' 관련 '속도전'이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경주 월성발굴조사단과 관련사업에 대한 검토 높은 바이다.

다. 안 교수는 지난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월성 발굴조사 보고서'를 보자마자 '속도전'이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경주 월성발굴조사단과 관련사업에 대한 검토 높은 바이다.

이런 기록, 근거도 없이, 속속건으로 복원해 '속도전'이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경주 월성발굴조사단과 관련사업에 대한 검토 높은 바이다.

지침 사항이 거주해야 하였던 사원들이 온 경우라는 어느 시점의 복원도 가능할 수 있지만, 월성터에 신라시대 원형대로 복원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월성 발굴이 자체적으로 월성터를 복원하는 주장은 '속도전'이라는 명목에서 역사유적지 방문객의 4.2%에 불과하다"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월성터 복원 이후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월성터에 신라시대 원형대로 복원하는 주장은 '속도전'이라는 명목에서 역사유적지 방문객의 4.2%에 불과하다"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월성터 복원 이후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 견디기 어려운 '속도전'이라는 말이 되고 있는 경주 월성 발굴 현장. 문화재청 제공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며 "월성 발굴의 목적인 왕궁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역사유적지 방문객의 4.2%에 불과하다"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월성터 복원 이후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 보존 사업에서 강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이나, 내각개발협력지구인 대안지구 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문화유적의 발굴도 가장 높은 곳으로, 특히 개발이 진행되면 유적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남규 한국고고학회(현신)대 교수는 "물론적으로 추진 중일 경우 월성발굴사업이 진행되고, 이 때문에 '속도전'이라는 단어가 붙게 될 수 있다"며 "월성터에 신라시대 원형대로 복원하는 주장은 '속도전'이라는 명목에서 역사유적지 방문객의 4.2%에 불과하다"며 "지금이 가장 적절한 월성터 복원 이후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림 3] 빠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본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한국고고학회와 한국고대사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는 성명을 통해 "경주 월성은 신라 천 년의 역사가 중첩된 핵심 유적이므로, 국가연구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발굴조사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그림 3). 이는 속도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술적 조치였다.

반면, 경주고도육성포럼회와 경주문화원 등 시민단체는 학계의 이런 주장이 "국가유산의 보존 때문에,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배경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대통령의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한겨레 2014-11-17, 한겨레 2014-12-12).

3. 황룡사지 사례가 남긴 교훈: 완전성 훼손의 실체

이러한 학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은 2016년 황룡사 역사문화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유구 훼손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공사 중 불법 터파기로 인해 신라시대의

[표 1]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신라왕경 사업 초기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입장과 갈등 사례

이해관계자	주요 관심사	입장	우려사항	갈등사례
지역사회	경제성 회복 경제 활성화 관광 증진 개발 제한에 대한 보상	신속한 사업 추진 가시적 성과 도출 경제적 혜택	사업 지연 예산 낭비 개발 규제에 의한 추가 피해	학계의 신중론에 대한 반발 쪽샘지구 발굴 지연 불만 등
정치권	공약 이행 가시적 성과 달성 지역 발전 정치적 유산 확보	빠른 사업 진행 주요 시설 조기 복원 예산 확보 노력	사업 부진 지역 여론 악화	월성 발굴기간 단축 및 미확인 시설 복원 요구 사업 명칭 변경 논란 등
학계	학술적 연구 유적의 진정성·완전성 확보 장기적 보존	신중하고 체계적인 조사 충분한 연구기간 확보 국가연구기관 주도	졸속 발굴 추측에 의한 복원 국가유산 훼손 외압에 따른 학문적 원칙 훼손	빠른 복원 요구에 대한 반대 성명 황룡사 유구 훼손 비판 등
추진단	사업 총괄 및 집행 상충하는 요구 조정 사업 품질 확보 예산 관리	단계적 사업 추진 학술적 기반 마련 대국민 홍보 및 성과 공유	예산확보의 불안정성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 사업 목표 달성 지연	추진단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의문 제기 등

Ⅲ. 제도화의 명암: 신라왕경법의 제정과 정책적 대응

1. 신라왕경법의 제정 논리와 과정

신라왕경 사업 초기의 불안정성과 갈등 상황에서 정권 교체나 예산 변동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연합뉴스 2014-02-26, 영남일보 2014-02-27).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관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등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경북매일 2014-02-27, 경북일보 2015-10-14).

무엇보다 신라왕경의 복원이 경주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사업 추진이 특별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

다(경북매일 2019-11-17, 중도일보 2019-11-20). 이와 함께 경주 시민들이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 제한 등의 불편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신라왕경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도시의 수준에 걸맞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대감도 있었다(그림 5, 영남일보 2013-11-09, 경북일보 2019-11-19).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2019년 12월 10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체계적으로 복원·정비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2. 신라왕경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의의

신라왕경법은 사업의 추진 체계와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거버넌스의 골격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대상의 명확화이다. 법률은 신라왕경 및 핵심유적의 정의를 규정하고, 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등 8개 핵심 유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둘째, 종합계획 수립의 의무화이다.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주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단기 성과에 치중했던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하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이다.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설치하여 종합계획 수립, 사업 총괄, 기초조사연구, 대외협



신라왕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대구시에 한 식당에서 열린 가칭 '신라왕경 유적복원 및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예비모임에서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신라왕경 정비사업 추진단 제공)

“신라왕경 유적복원 특별법 제정 힘 보태자”

새누리 경북도당 예비모임 유적복원 및 정비법 제정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예비모임을 가졌다. 경북도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모임은 신라왕경의 수준 '고도 왕궁'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강조하고, 세계적인 유적공원을 갖춘 역사도시로 재조성하기 위한 법 제정 추진 차원에서 이뤄졌다. 모임을 참석한 고교익 및 미술학 교수, 법학의 교수, 법률 관계자, 경북도 및 경주시 공무원 등 지역 문화권

연 진문과 20여명은 2시간의 열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당 위원장은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정책 경쟁의 새로운 디딤돌이 바로 문화유산에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힘을 보태 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 후 문화유산의 복원과 정비에 힘쓰는 데가 있다. 대구로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황승기기자 a333@woonam.com

[그림 5] 신라왕경법 공감대 확산에 대한 언론보도

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넷째, 국회 보고 의무화이다.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 사업 추진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신라왕경법의 제정은 신라왕경 사업을 국가 차원의 책무로 명문화하여 사업의 위상과 정당성을 강화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과제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며,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 등이 법률적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3. 지속되는 도전과 비판: 실효성, 자율성, 자원배분 논쟁

신라왕경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부족하다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법률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지원재단 설립 조항 등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비판이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경북일보 2019-07-31). 이는 입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갈등이나 재정 당국의 입장에 따라 사업의 핵심적인 운영 동력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6).

특히 학술적 발굴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연구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뚜렷하다. 발굴조사 이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자연과학적 분석(연대 측정, 토양 분석, 동식물 유체 분석 등)과 보존과학적 처리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 확보는



[그림 6] 신라왕경법 실효성 논란 언론보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고고학 연구가 발굴조사 성과 이상의 종합적 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 비용뿐만 아니라 '실내 연구' 비용의 제도적 보장이 필수적이다.

추진단의 위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률 시행령에 추진단장을 4급으로 규정 한 것이 사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법률에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체를 경주시장으로 규정하고, 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다층적 구조가 사업의 추진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시사저널e 2020-01-23).

신라왕경법 제정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신라왕경법 제정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

구 분	주요 내용	주요 성과	한 계 점
재정 확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노력 의무화(제3조)	재정지원 노력의 명문화	특별회계 조항 삭제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의 한계
거버넌스 및 계획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제5조, 제6조) 추진단 설치 (제7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기반 마련 국가지방 간 연계 체계 구축	4급 단장에 따른 위상 약화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한 비효율 가능성
사업범위 및 투명성	8개 핵심유적 명시(제2조) 국회 보고 (제9조)	사업 대상의 명확화 책임성 강화	복원·정비에 치중되어 통합적 관리 미흡 가능성 국회 보고의 실질성 문제

IV. 발굴현장의 진화와 연구모델의 혁신

1. 국가유산 종합 연구모델의 정립

신라왕경법 제정 이후 추진단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조사 품질의 고도화, 유네스코 역사도시 경관의 국제 공신력 제고, 보존 및 활용의 선제적 갈등관리,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 왔다(그림 7). 현 단계에서 발굴조사, 융복합연구, 고증연구, 복원정비, 사회교육, 홍보 등이 연계된 새로운 개념의 '국가유산 종합 연구모델'이 성공적으로 발돋움했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성과 공유 및 확산 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단계의 단편적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관리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경주시의회 사업보고(‘15, 좌) 및 국회 문체위 소속의원 월성 발굴현장 방문(‘21, 우)

2. 대중고고학의 실현과 국민 소통

신라왕경 사업에서 소통과 미디어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발굴조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대중적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쪽샘 44호분 발굴의 전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발굴 성과 시사회, 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국민과 직접 소통하였다.

특히 2021년 MBC가 방영한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는 TV 예능 최초로 발굴하고 있는 쪽샘 44호분과 출토된 유물이 공개되면서, 방송국 집계 전국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신라왕경 사업이 국민적 관심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그림 8). 이러한 성과들은 “발굴 현장은 가림막 뒤에 있다”는 폐쇄성을 극복하고, 발굴 과정 자체가 훌륭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국가연구기관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는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로서, 고고학 조사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 학제간 융복합 연구의 심화

지난 10년간의 월성 발굴은 단순한 조사를 넘어 융복합 연구를 결합한 성과들이 두드러진다. 월성 해자 등에서 출토된 유기물 자료의 정밀 분석을 통해 신라 왕경의 식생, 식생활, 환경 등을 복원해 낸 것은 ‘느린 발굴’이 왜 필요한지를 학술적 성과로 증명해 낸 사례이다. 충분한 조사 기간과 정밀한 방법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고고학적 조사가 단순히 유물을 수습하는 것이 아닌, 고대 사회의 생활상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경주 쪽샘 44호 주인공은 키 130cm의 신라 공주였다

키 130cm, 나이 일 살 전후, 머리카락 어린 가락을 묶어 간으로 장식한 소년, 5세기 후반 세상을 떠난 신라 공주의 인상화가 150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온몸에 금·은 호화 장신구를 뒤집고, 머리맡 부장 공간에는 금동신발을 별도로 놓았다. 비단벌레 낚시로 장식한 죽제(竹制) 말다래도 처음 확인됐다.



4일 경주 시라벌문화회관에서 최흥천 문화재청장이 쪽샘 44호보물 채출된 금동신발, 가슴걸이 등을 소개하고 있다.

4일 오전 경주 쪽샘시라벌문화회관에서 경주 쪽샘 44호보물 발굴 성과 시사회가 열렸다. 인디애나 존스처럼 발굴 복장을 하고 등장한 최흥천 문화재청장은 "발굴 10년, 실제 발굴 일수 1300일에 달하는 조사 과정을 통해 몰무지(몰무지)의 전체 구조와 축조 공정까지 밝혀낸 최초 사례"라며 홀로 유물 재현물을 하나씩 소개했다.

비단벌레 낚시로 장식한 말다래 재현품에서 영감을 초록빛이 뿜어 나왔다. 말다래는 말을 탄 사람에게 묶어 뺨이 없도록 말 안장 양쪽에 늘어뜨리는 끈. 최정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그간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말다래 문양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나 비단벌레 장식은 새로운 형태"라고 했다. 대나무 살을 엮어 만든 바둑판 틀에 직물을 덧댄 뒤, 그 위에 비단벌레 낚시줄을 만든 모양인 장식을 올렸다.

금동관·금동신발 등은 기존 출토품에 비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열 살 남짓한 나이 세상을 떠난 공주를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됐기 때문이다. 금동관은 전체 길이 23.2cm, 금동신발은 280~290mm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직물과 유기물은 다소 확보한 것도 이번 발굴의 성과다. 금동관 안에 직물을 덧꿨고, 금동관 주변에는 5cm의 머리카락 다발도 나왔다. 삼원형 특발연구관은 "삼국시대 유적에서 머리카락이 출토된 첫 사례로, 모발을 4~5cm씩 묶어서 직물 끈으로 장식했다"며 "고대인의 머리 꾸밈 형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했다. 다만 모발 상태가 좋지 않아 DNA 분석은 불가능했다. 금동신발 내부에선 가죽과 비단, 재래종 산양털이 확인됐으며, 삼국시대 신발에서 가죽과 모직물이 확인된 것도 처음이다.

경주 쪽샘 발굴, 10년 만에 종로 '비단벌레 장식' 말다래 첫 확인
폭 5cm 머리카락 다발도 출토
"몰무지(몰무지) 전체 구조와 축조 공정까지 밝혀낸 최초 사례"

최흥천 문화재청장



'발굴 전문 인력 양성' 경주 쪽샘 유적 5차 공동발굴조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술지원 동국대 WISE캠퍼스 실습생 참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일부터 발굴조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5차 공동발굴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동국대 WISE캠퍼스 고고학·민속학과와 1차 공동발굴조사팀을 지원하고 7일 밝혔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2023년 공동발굴조사 모습. (문화재청 제공)

두 기관은 지난 2020년 경주 구황동 제1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신라 왕릉과 유적의 무덤구조인 경우 축조 방식 등 유적에 대한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위한 기술·행정 예산을 지원하고, 동국대 고고학·민속학과는 고고학·민속학 관련 학생들이 실습생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로 2023년 두 기관은 '경주 구황동 제1유적(2023년)' '경주 쪽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발굴 계획과 발굴 현장에 대한 고고학·민속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결과로 2023년 두 기관은 '경주 구황동 제1유적(2023년)' '경주 쪽샘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올해 공동발굴조사 대상은 경주 쪽샘 유적 북쪽포구사당 동쪽 확인된 신라 몰무지(몰무지)와 동쪽포구사당 1300여 개의 무덤 중 최초로 확인된 불사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무덤의 내부 구조와 형태, 축조 방법을 살펴, 4세기 이후 신라 지배층의 무덤 형태가 달라진 후임으로 변화하는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동조사는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 간 상호협력과 공동 책임의 연구·공작을 통해 연구의 과학적 고찰도 돕는다. 지역 대학을 활성화할 방안이 다수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측은 "양성 제도, 문화재청과 적극협력의 하나로 대학 기관과 공동발굴조사팀 구성의 진척에 따른 인력을 양성하고, 공동 유적의 유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유적의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WISE(wise.kmae.com)

[그림 8] 발굴성과 시사회 및 대학생 발굴 실습 관련 언론보도와 쪽샘 발굴 TV 예능 프로그램 방영 내용

V. 지속되는 딜레마 : '정치적 시간'과 '고고학적 시간'의 충돌

1. 가속화된 성과 요구와 진정성 있는 보존의 압력

신라왕경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고, 법적 기반과 연구모델이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따른 정책당국의 부담은 여전하다. 최근 월성 발굴의 '실적 압박'이라는 내용을 다룬 언론보도 등은 국가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활용 가치 창출에 매진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준다(그림9, 한겨레 2024-12-26).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라 왕궁을 왜 못 찾는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고고학 조사가 여전히 '보물찾기'나 '건물 복원을 위한 선행 철차' 정도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시간성의 충돌과 거버넌스의 위기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은 뿌리 깊은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관련된다. 특히 선거와 맞물린 단기적 성과 요구는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인 국가유산 복원 사업의 본질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정치적 시간’과 ‘고고학적 시간’의 충돌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정치적 시간’은 선거 주기와 임기에 종속된 시간으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반면, ‘고고학적 시간’은 유적의 충위와 맥락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다. 발굴은 한번 파괴하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행위이기에, 연구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록의 완결성을 기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지닌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발굴 현장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은 연구자의 학문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요인이며, 이는 결국 유적의 파괴로도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윤리의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공공의 프로젝트가 외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신라왕경 사업에서 소통과 미디어의 역할이 양면성을 보여

한겨레

2024-12-27 17면 (문화)



[그림 9] 월성 발굴의 실적 압박에 관한 언론 보도



[그림 10] 국가유산청 주최 신라왕경 사업 10주년 학술대회(‘24.12.13.)

주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홍보와 미디어 활용은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후진적인 여론몰이’의 수단이 되거나, 신중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속도전에 대한 압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고고학적 진정성을 위한 거버넌스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신라왕경 사업은 국가유산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동시에 복잡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프로젝트이다. 이 연구는 사업의 추진 배경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정책적, 고고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정치적 동력, 지역사회의 기대, 학술적 원칙,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고찰했다. 핵심적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본질적인 긴장 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을 확인했다.

신라왕경법의 제정은 사업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도였으나, 재원확보의 불확실성, 추진 체계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단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학술 연구의 심화,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그림 10). 그러나 여전히 단기적 성과를 갈구하는 여론은 사업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으며, 이는 국가유산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라왕경 사업의 경험은 단순히 특정 유적 복원의 차원을 넘어, 국가유산 정책 전반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대규모 국가유산 정책사업의 성공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안정적인 재정지원 시스템의 구축,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전문성 보장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2. 정책적 제언

신라왕경 사업이 ‘개발’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보존’과 ‘복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관점이 반영된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왕경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술 조사 기간’의 제도적 보장이 시급하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발굴조사의 경우,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연구자가 판단하는 적정 조사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라왕경법 내에 발굴조사의 학술적 절차와 기간 산정의 자율성을 명시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치적 외압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연구 중심 예산 구조 확립이다. 장기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 현재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넘어선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별회계 제도입, 국가유산기금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추진단의 자율성 및 권한 강화이다. 추진단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 외압으로부터 사업의 전문성을 보호해야 한다. 단장의 직급 상향 조정, 운영상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등 수행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구 인력 확충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적을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정교한 대국민 소통전략 개발 및 과정 중심의 사회적 합의 형성이다. ‘복원된 건물’이라는 결과물 못지않게 ‘발굴하는 과정’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국민이 고고학 조사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이해할 때, 속도전의 유혹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단순히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 보존의 복잡성과 장기적 추진의 당위성을 알리는 정교한 소통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신라왕경은 천 년 전의 유산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손끝이다. 그 손끝이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학술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 그것이 신라왕경 사업의 성공을 위한, 나아가 학계의 당면 과제이다.

* 이 논문은 국가유산청이 2024년 개최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10년의 성과와 도약」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참고문헌

1. 정책자료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0309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505호).
경주시·신라왕궁 복원정비 추진위원회, 2014, 『신라왕경 복원·정비에 즈음한 신라 문화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경주시·(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재)계림문화재연구원, 201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문화재청, 2019, 『신라왕경사업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_____, 202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2021~2025)』.

2. 보도자료

- 2013-11-09, 영남일보, “신라왕경 유적복원 특별법 제정 힘 보태자”
2013-12-13, 영남일보,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은 국가 의무”
2014-01-02, 영남일보, 신라왕궁 월성·황룡사 복원 본격화
2014-01-19, 이주경제, 천년고도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본격화
2014-02-26, 연합뉴스, 경주시,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 제정 추진
2014-01-27, 경북매일, 1조 들어가는 신라왕궁 복원 첫걸음 메다
2014-01-27, 노컷뉴스, 사라진 ‘신라왕궁’ 800년 만에 ‘복원된다’
2014-01-27, 일요서울, “내가 진짜” 친박·비박 곳곳 대혈전
2014-01-28, 경북매일, 경주시 ‘신라왕경’ 복원사업 명칭 변경 논란
2014-01-28, 영남일보, 신라왕경 복원·정비추진위원회 출범
2014-02-09, 경북매일, 유네스코 집행위 경주 문화유산 답사
2014-02-27, 경북매일,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2014-02-27, 영남일보, 1조6천억 투입 신라왕경 복원… 대통령 소속 위원회·특별법 추진
2014-02-28, 영남일보, 신라王京 복원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2014-05-01, 세계일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 출범
2014-05-08, 뉴시스,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순항
2014-06-09, 세계일보,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본격화
2014-08-11, 문화일보, 경주시 ‘1조6000억 프로젝트’… ‘백 투 더 신라’
2014-08-26, 뉴시스, 경주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상황 보고회
2014-09-15, 영남일보, 경북도, 문화 용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14-09-18, 연합뉴스, ‘신라왕경 복원’ 공감대 형성…서울서 심포지엄
2014-09-21, 경북매일, “신라왕경 유적 관광자원화 특별법제정 반드시 필요”
2014-10-12, 이투데이, ‘수상한 ‘신라왕경유적 사업’… 법적 근거 없이 교수 한명에 47억원 지원
2014-11-11, 브레이크뉴스, 경주시, 월성 문화재 발굴로 시끌시끌
2014-11-16, 한겨레, ‘천년 신라 궁터’에 호텔 지으려고?...권력자의 ‘황당한 메모’
2014-11-27, 노컷뉴스, ‘신라 천년 왕궁’ 복원 정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4-11-28, 매일경제, 흙더미 아래서 1000년...신라가 깨어난다
2014-12-11, 뉴시스, 천년의 부활, 첫 삼 뜨다

2014-12-11, 동아일보, 경주시, 서라벌 도심 모습 되살린다

2014-12-11, 한겨레, 경주 월성 신라궁터 발굴, 논란 속 12일 개도제

2014-12-23, 월간중앙, 신라 천년 역사가 경주의 미래 발전 원동력

2015-02-11, 영남일보, 신라왕경 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국회 교문위 상정

2015-08-22, 영남일보, 말로만 문화융성, 신라왕경 특별법 왜 묵히나

2015-09-07, KBS, 박 대통령, 경주 월성 발굴 현장 40년 만에 방문

2015-09-07, 국민일보, “현지 대통령의 발굴현장 40년만의 방문” 월성 복원현장 찾은朴대통령

2015-09-07,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경주 월성 깜짝 방문 왜?

2015-09-07, 세계일보, 박 대통령 월성 신라왕궁 발굴현장 방문, 40년만의 발굴현장 재방문

2015-09-07, 아시아경제, 경주 월성 발굴현장, 박대통령 “철저한 고증·복원 노력해 달라”

2015-09-07, 아시아투데이, 박근혜 대통령 경주 월성 방문... 경북도 문화융성 탄력

2015-09-07, 이뉴스투데이, 박근혜 대통령, 계획에 없던 경주 월성 방문..무슨일?

2015-09-07, 이데일리, ‘경주 월성 방문’ 박대통령 “예산·인력 최대한투입해야”

2015-09-07,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 경주 월성 방문으로 경북도 문화융성 탄력 예상

2015-09-07,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대통령 경주 월성 방문...경북도 문화융성탄력

2015-09-07, 한국일보, 신라왕궁 발굴 현장 찾은 박 대통령...‘문화 융성’ 행보 나선 듯

2015-10-14, 경북일보, 이진락 경북도의원,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2016-06-29, 경상매일신문, “신라왕경 복원사업,재원확보 필요”

2016-07-12, 연합뉴스,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 다시 탄력받나

2019-07-30, 경북일보,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특별법이라 할 수 있나

2019-11-17, 경북매일, 신라왕경 특별법, 역사도시 경주 위상 찾는 계기로

2019-11-19, 경북일보,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법 국회 통과

2019-11-20, 경북일보, 신라왕경 특별법,경북관광르네상스 기대된다

2019-11-20, 경북도민일보, 신라왕경특별법 통과 이후가 더 문제

2019-11-20, 중도일보, 경주 시민의 염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2020-01-20, 한국일보, 경주시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제정 학술세미나 개최

2020-01-23, 시사저널e, 2년 만에 국회 문턱 넘었지만... ‘신라왕경특별법’ 실효성 논란

2020-04-22, 매일신문,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 ‘속 빈 강정’ 전략 위기

2020-12-30, BBS, 경주 ‘황룡사’ 복원 속도... 신라왕경 특별법 시행

2021-11-20, 일요신문, 김석기 의원 “신라왕경 복원 특별법 국회 통과 ... 순탄하지 않았죠”

2022-06-07, 매일신문, ‘왕경도시’ 만들면 경주 시민 부자 될까?

2022-07-19, 국제뉴스, 박광호 경주시의원, 신라왕경 복원정비 후속책 마련해야

2024-12-26, 한겨레, “신라왕궁 왜 빨리 못 찾나” 경주 김석기 의원 황당 ‘압박설’

Archaeological Authenticity and Policy Dilemmas in the Excavation of the Silla Royal Capital

Lee, Sung-Joo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past decade of th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f Key Historic Sites of the Silla Royal Capital project (hereinafter Silla Royal Capital Project), launched in 2014, from an archaeological perspective, and aims to analyze the structural dilemmas faced by national heritage governance. The Silla Royal Capital Project began with the dual goals of recovering Gyeongju's historical identity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However, throughout its implementation, it exposed a severe conflict between 'Political Time,' which demands visible and rapid results, and 'Archaeological Time,' which requires long-term, precise investigation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the ruins.

The analysis reveals that in the early stages, the academic rigor of excavation investigations was frequently threatened, with hasty restoration plans established in the absence of archaeological data or discussions about the mass deploy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gencies to shorten the excavation period. Such conflicts led to tangible side effects, such as the damage to archaeological feature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Hwangnyongsa History and Culture Center. In response, the academic community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have sought qualitative advancements by securing legal stability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f Key Historic Sites of the Silla Royal Capital 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National Heritage Research Model' to practic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Public Archaeology.

However, the recent political pressure regarding the excavation of Wolseong Palace implies that development logic and performance-ism still threaten archaeological principles even after legal institutionaliz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for the Silla Royal Capital Project to succeed, it is urgent to build a new governance system that can guarantee 'archaeological authenticity' by institutionally ensuring the academic duration of excavation investigations, establishing a research-centered budget structure, and deriving a process-oriented social cons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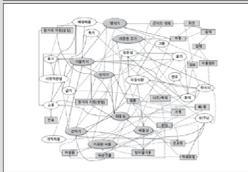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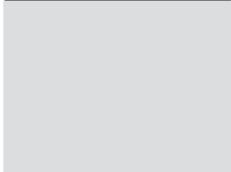
Key words :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f Key Historic Sites of the Silla Royal Capital Project,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of Key Historic Sites of the Silla Royal Capital, National Heritage Governance, Comprehensive National Heritage Research Model, Gyeongju City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원고 집필 요령

원고 투고 요령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中央考古研究』(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 및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간)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中央考古研究』(Journal of Central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라 한다.
2. 학술지는 매년 3차례(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발간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은 연구원 내·외의 고고학 연구자 가운데 연구 업적이 우수하고 덕망있는 연구자를 연구원 이사장이 위촉하며, 5~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역할)

1.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편집 방향 설정
2. 투고된 논문의 심사회부 여부 및 심사위원 위촉
3. 심사를 완료한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4.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 동향과 자료 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5. 기타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과 의무)

1.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3인 이상의 관련 연구자를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편집위원도 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위원은 당해 학술지 논문 심사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서약서, 투고 논문 심사 평가서, 논문 수정 제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과정)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에 적합한지와 형식 등을 살피는 1차 심사를 한다.
2.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편집간사는 논문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자료를 논문에서 삭제한 후 발송한다.
3. 논문 심사위원은 요약문의 적절성, 인용자료의 적절성, 형식요건 및 논문체제, 학술적 수준, 독창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4.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논문에 대해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위원의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수정하고 필자 회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7.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판정결과에 따른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호에 한하여 재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 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②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 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게재 논문의 조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등 문화유산에 관한 논문과 번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이어야 한다.

제9조(논문 심사위원과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1. 논문 심사에 참여한 사람은 심사위원과 심사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2. 만일 논문 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및 심사료 지급)

1. 학술지 게재 원고에 대해 연구원에서 정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의 허가없이 저작을 전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윤리)

1.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와 논문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의 운영규칙 및 『中央考古研究』 연구윤리를 위배하였을 경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때부터 3년간 투고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1.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은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을 따른다.
2. 원고는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원고의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원고는 반환한다.

부 칙

1.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0년 3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6년 10월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4월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2월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5년 6월부터 시행한다.

원고 집필 요령

1. (문자)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작성하며, 한자는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사용한다.
2. (분량) 논문은 본문과 도면과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학술지 인쇄 쪽수로 30쪽 내외로 하며, 도면과 사진은 논지 전개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도면과 사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구성) 논문은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 영문요약, 영문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요약문) 국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목차, 주제어와 함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만한 분량으로 한다. 영문요약은 제목, 저자명, 요약문, 주제어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술지 인쇄 쪽수 1쪽을 넘지 않을 분량으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1., 1), (1)의 순으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포함시킨다. 목차에는 章과 項까지 기재한다.
6. (주요 표기) 주요 표기는 논문명을 ‘『』’으로, 책명과 정기간행물명을 ‘『』’으로 통일한다.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문헌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적명이 반복적으로 열거되는 경우 처음만 인용문헌을 표기한다.

1) 인용문헌 표기 예

- ① 단독 연구 논문 : (홍길동 2005), (홍길동 2005b), (홍길동 2008: 25), (홍길동 2008: 14~36), (홍길동 2022, 2023), (이몽룡 2023; 성춘향 2023) 등
- ② 2인 연구 논문 : (이몽룡·성춘향 2008), (이몽룡·성춘향 2008b), (이몽룡·성춘향

2008: 3), (이몽룡·성춘향 2008: 5~7) 등

- ③ 3인 이상 연구 논문 : (홍길동 외 2008), (홍길동 외 2008b), (홍길동 외 2008: 128),
(홍길동 외 2008: 146~151) 등

2) 인용문헌 구성방식의 예

- ① 홍길동(1998: 21)에 의하면……, 홍길동(1998: 21)은 ……, 홍길동(1998: 21~27)은 …….
- ②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1998: 215).
- ③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각주) 각주는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 내용을 간략하게 달 수 있는데,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인용문헌 표기법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인용한 문헌만 기재하되, 한국어·중국어·일본어·서양어의 문헌의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 문헌은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와 일본어 문헌은 저자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 문헌은 저자의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작성하며,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책수나 간행일이 빠른 것부터 출판연도 뒤에 ‘a, b, c, …’를 덧붙여 구별한다. 공동연구는 같은 저자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배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아래와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책명』판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제3판, 一志社.

② 발굴조사보고서

國立中央博物館, 2002, 『法泉里Ⅱ』, 古蹟調查報告 第三十三冊.

③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2) 서양어 단행본 : 서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Thames & Hudson.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정기간행물명』권 또는 호수, 출판기관명의 순으로 표기한다.

(1)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논문

①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 「慶州九政里 出土 金屬併用期遺物에 對하여」, 『歷史學報』1, 歷史學會.

② 학위논문

홍길동, 2005, 「韓國 OOOO의 考古學的 研究」, OO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 서양어 논문 :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작성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Aldine.

10. (표, 도면, 사진 등) 표, 도면, 사진은 ‘[]’를 사용하여 ‘[표(도면, 사진) 1, 2···]’로 표시하고 그 뒤에 제목을 표기하며, 출전은 제목 뒤에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기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표, 도면, 사진은 문헌화하였을 경우 설명문을 포함하여 가로 13.5cm, 세로 20.5cm를 넘지 않게 편집하여야 한다.

1) 표는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2) 도면은 가급적 흑색으로 제도하며, 사진은 선명한 것이어야 한다. 도면과 사진은 본문이나 참고문헌 뒤에 편집할 수 있으며, 제목은 도면이나 사진하단 중앙부에 표기한다.

11. (세부편집요령) 논문의 세부편집요령은 □글의 경우 아래와 같다.

1) 편집용지 : 용지종류 B5(4×6배판), 용지여백은 위쪽 15mm, 머리말 10mm, 왼쪽 · 오른쪽 30mm, 아래쪽 13mm, 꼬리말 17.5mm로 한다.

2) 문단모양 : 정렬방식은 章만 양쪽 정렬하고 들여쓰기 하지 않으며, 項, 目, 細目은 양쪽 정렬과 함께 첫줄을 들여쓰기하며, 줄간격은 본문 180%, 각주 130%로 한다.

3) 글자모양

- (1) 題目 : 기준크기 1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2) 著者 : 기준크기 11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3) 국문요약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0%, 속성 보통, 줄간격 180%
- (4) 章 : 기준크기 14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5) 項 : 기준크기 12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6) 目·細目 : 기준크기 10.5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 (7) 본문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100%, 자간 -6%, 속성 보통
- (8) 표·도면·사진 제목 : 기준크기 7.5pt, 글꼴 중고딕, 장평100%, 자간 -20%, 속성 보통
- (9) 표 내용 : 기준크기 9.5pt, 글꼴 중고딕, 장평 100%, 자간 0%, 속성 보통
- (10) 각주 : 기준크기 9pt, 글꼴 신명조, 장평 95%, 자간 -9%, 속성 보통
- (11) 참고문헌(제목) : 기준크기 10pt, 글꼴 신명조, 장평 100%, 자간 0%, 속성 진하게

원고 투고 요령

1. 투고자격 : 국내 · 외 고고학 연구자
2. 투고분야 : 투고된 원고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 조사보고문, 자료소개문, 서평 등으로서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만한 독창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3. 접수 및 마감 : 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각 호별 논문접수 마감은 당해 학술지 발행일의 두달전(12월 31일, 4월 30일, 8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중앙문화유산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jungangmedsoft.kr>)에 회원가입 후 매뉴얼에 따라 논문투고
5. 논문의 제출 형태
 - ① 논문은 게재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함께 원고를 제출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은 아래의 집필 요령에 따라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된 요약문과 주제어(Key Word)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투고자는 게재 확정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내에 논문 한글파일과 도면 원본(해상도 300dpi 이상)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1.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 1)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성과나 주장, 아이디어를 참조할 경우 『中央考古研究』 원고 집필 요령의 인용문헌, 각주, 참고문헌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2) 연구원의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 4)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전부 또는 일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할 경우 연구 표절이라 하며, 사용 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5) 일반적으로 타인의 논문 및 저서를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구 표절로 인정한다.
- 6) 연구자 본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이중게재에 해당하며, 이중게재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경우만 해당하고 학위논문은 예외로 한다.
- 7)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의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한 사실과 논문의 내용 등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학술지가 간행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사적인 친분관계나 어떤 선입견 없이 오로지 원고집필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관련연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